어사매 제20호

於斯買





横城文化院

橫 城 郡 民 憲 章

우리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像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豊饒를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 精神과 愛鄕心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 좋은 새 橫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우리 郡民은 서로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硏究와 實踐으로 豊饒로운 내 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 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郡民이 된다.

Hoengseong

횡성군
Hoeng Seong Gun

심벌마크

자연친화, 인간중심, 미래지향
우주속의 삶의 터전



군목 : 느티나무

군목인 느티나무는 나무의 수명이 길뿐만 아니라 우람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횡성군을 뜻한다.



군조 : 백 로

은백의 눈부신 자태는 군민의 순결함을 뜻하며 서원면 압곡리 일대에 무리지어 여름을 난다.



군화 : 함 박 꽃

녹색의 넓은 잎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말하며 탐스럽고 화려한 꽃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밝은 미래를 뜻한다.



2005 학술세미나(횡성지역 항일민족운동의 재조명)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 공모대상 수상 낭송

차 례

2005 / 제20호 **어 사 매**

- 발 간 사 ..... 횡성문화원장 이 일 영 / 7
- 축 간 사 ..... 횡성군수 조 태 진 / 8
- 축 사 ..... 횡성군의회 의장 조 창 호 / 9
- 축 사 ..... 횡성교육청 교육장 허 만 봉 / 10

Ⅰ. 향토문화 창달

- 애국의 고장 의미탐구 ..... 박 순 업 / 13

Ⅱ. 학술심포지엄

- 1920년대 횡성지역 청년의 민족운동 ..... 조 규 태 / 33
- 횡성「애국의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 방안 ..... 채 용 식 / 51

Ⅲ. 향토인물탐구

- 운곡 원천석 ..... 이 일 영 / 77
- 삽교 안석경 ..... 진 교 원 / 85

Ⅳ. 향토문화 연구 및 사료

- 해방 전 농촌 사회의 관습법적 질서 유지에 대한 연구 ..... 류 민 우 / 91
- 강원도 민요를 통해 알아본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인 관계 ..... 조 의 현 / 111
- 어러리, 그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적인 모습 ..... 안 세 연 / 116
- 어러리의 이해 ..... 차 효 인 / 120
- 엮음 어러리의 이해 ..... 김 가 영 / 124
- 숯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 이 예 인 / 129

Ⅴ. 어사매 논단

- 아름다운 횡성 ..... 서 제 원 / 157
- 횡성예찬 ..... 류 장 희 / 160

Ⅵ. 어사매 문화마당(시 · 시조 · 한시 · 콩트 · 기행문)

- 기억의 춤 ..... 정 금 자 / 165
- 엽서 한 장 ..... 전 태 규 / 166
- 우리 아버지 ..... 정 하 영 / 167
- 가을의 기도 ..... 정 요 섭 / 168
- 섬강에서 ..... 권 욱 인 / 169
- 세모(歲暮) ..... 송 인 석 / 170
- 초동(初冬) ..... 이 승 호 / 171
- 우리 이혼했어요 ..... 김 미 애 / 172
- 역사를 통하여... ..... 박 현 숙 / 174
- 향토 문화유적 답사기 ..... 이 다 휘 외 / 179
- 문화체험기 ..... 김 광 섭 외 / 192

Ⅶ. 문예백일장 입선작품

- 제19회 태기문화제 201
- 2005 횡성한우축제 203
- 故이연승시비건립 8주년 기념 205

Ⅷ. 문화원 소식 및 회원명부

- 문화원 소식 209
- 임원 및 회원명부 217



發 刊 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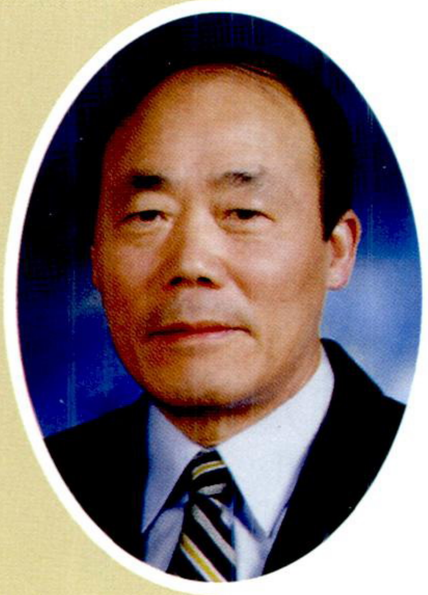
이 일 영
횡성문화원장

2005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즈음 우리 횡성의 향토문화를 발굴 · 수집 · 정리 · 보존하는 『어사매』 제20호의 발간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창달과 문화사업을 위해 성원해 주신 문화가족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어사매』 발행 스무 돌을 맞았습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 강산이 두 번 바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듯 『어사매』가 지속적으로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의 덕이라 생각합니다.

스무 살, 그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나이입니다. 현재 우리의 전통문화계승은 가느다란 실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성인의 삶과 관련된 민속문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역의 향토문화를 제대로 학습하기도 전에 어른들이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난 결과입니다. 스무 살의 『어사매』,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횡성의 문화를 익히고 전승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원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한 사업이며, 그것은 곧 횡성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문화인 그리고 내외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祝 刊 辭

조 태 진
횡 성 군 수

향토문화를 꽃피워온 『어사매』 제20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힘써온 이일영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사매』는 횡성군 유일의 향토문예지로 향토사, 향토문인 발굴 등 지방문화의 구심점이 되어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우고 문화적 갈증해소에 훌륭히 제몫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에 향토문화는 지역발전의 밑바탕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며, 삶을 보다 윤택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주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번호에 실린 작품 하나 하나에 깃들여 있는 높은 문학성과 향토사랑의 마음은 군민의 문화적 욕구와 갈증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횡성문화원을 정점으로 여러분의 힘과 뜻을 모아 지방 문화를 선도하는 향토문화의 중심이 되어 군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어사매』가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애정 속에서 향토문화를 선도하는 문예지로 자리 매김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조 창 호
횡성군의회 의장

횡성의 맥과 얼을 되살리는 향토 애향지『어사매』 제2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횡성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세계를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창달에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이일영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산업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화는 단순히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들 삶의 본질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우리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한정 높아져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 전통과 뿌리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정체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하여온『어사매』의 제2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진정한 개척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허 만 봉
횡성교육청 교육장

자랑스런 우리고장 횡성의 전통문화를 발굴 · 계승시켜 온『어사매』제20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21세기는 세계화, 또는 정보화시대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는 유비쿼터스, 달리는 자동차안에서도 맑고 깨끗한 화면으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DMB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방식의 변화와 발전은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도 다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활용 없이는 단 몇 시간의 사회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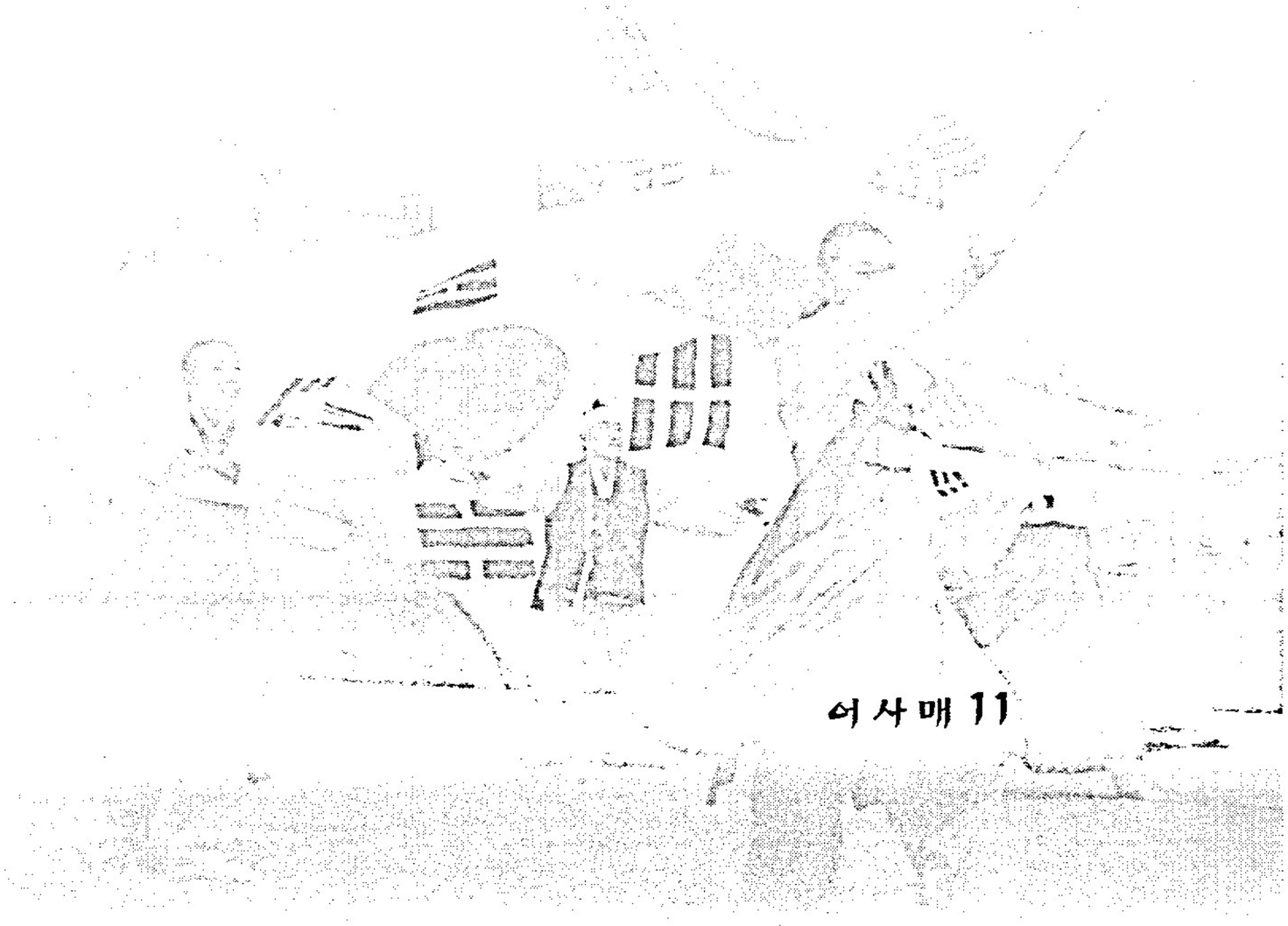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들이 변함 없이 소중하게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민족의 전통문화일 것입니다. 이는 옛 것을 기초 · 기반으로 하지 않는 문화의 발전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무 살로 다시 태어나는『어사매』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물론 횡성 군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향토문화와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바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발간을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땀과 정성으로 탄생한 이번『어사매』제20호가 온 군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Ⅰ. 향토문화 창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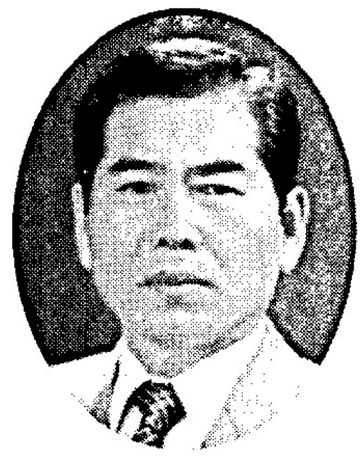
• 애국의 고장 의미 탐구



어사매 11

애국의 고장 의미 탐구

박 순 업 / 횡성초등학교 교장



1. 시작하며
2.비문으로 본 애국지사 활동
3. 증언으로 통해 본 애국지사의 활동
4. 맺으며

1. 시작하며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 10, 9)에 의하면 애국이란 "자기 나라를 사랑함", 애국지사란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바지하는 사람"이라 하였다. 이어령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에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행복을 거부하는 데서 애국이 시작된다."라고 하였다. 애국이란 포괄적이어서 애국선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군인, 과학자, 경제인,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길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도 다 애국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횡성군민이 횡성을 애국의 고장이라고 부르며 자긍심을 느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고려시대 거란족을 물리친 조충장군의 업적, 임진왜란시 의병의 치열한 항쟁(삼군이, 말굴이고개, 왜뚠지, 종달바위 등 의병활동과 관련된 지명, 바위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옴)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일제침략기 고장의 애국지사 자취의 하나인 의병총 비문, 의병장 추모비 비문, 3·1운동기념비 비문, 횡성군민 만세운동기념비 비문, 애국지사의 묘비문을 살펴보

고 애국지사 및 관련된 분들의 증언 일부를 토대로 애국의 고장이라는 의미를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2. 비문으로 본 애국지사의 활동



1) 강림의병총 비문

이 곳 강림의 의병총은 일본이 이 땅을 강점하면서 1907년 구 한국군대를 강제 해산하자 이에 격분한 병사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일어선 백성들이 의병장 휘하에 모여 봉기하였다.

이들 의병은 치악산을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눈부시게 활동하며 조국의 수호신으로 자신을 불살랐다.

1908년 2월 29일을 전후하여 이곳 강림, 월현에서 일제와 큰 싸움을 벌였다. 이 의병총은 그 당시 이곳에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무연고 열 분의 묘를 한 곳에 모아 총을 만들고 묘역을 정화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

1984년 11월
횡 성 군 수



2) 의병장 민긍호 강림 전적비 비문

○ 관동창의대장 민긍호는 여흥 민씨 민치봉과 모친 원주 원씨 사이에 고종 을축년(1865) 서울에서 태어났다.

○ 민긍호 의병대장은 1897년 진위대에 입대 1900년에는 원주 진위대 고성분견대의 정교(지금의 상사)로 근무하였으며 1901년 특무정교(지금의 원사)로 발탁,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군대가 강제로 해산될 때까지 원주 진위대에서 근무에 충실하였다.

○ 1907년 8월 10일은 원주 진위대 해산 예정일이었는데 민긍호 의병대장이 이를 미리 알고 대대장 홍유형의 지

휘 아래 서울로 진격 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홍유형이 여주로 도망하자, 봉기에 동참한 민초들에게 총기와 탄약을 지급하고 의병대를 편성 그 해 8월 5일 오후 2시에 봉기하였다.

○ 이를 진압하기 위해 온 충주 수비대를 쫓아내고 일본군 10여명을 사살하였으며 그 후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온 서울주재 일본군 소속 보병 47연대 3대대와도 끝까지 싸웠다.

○ 민긍호 의병대는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던 이강년, 윤기영 등을 비롯한 여러 의병장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약 1000명을 지휘하여 횡성, 충주, 원주, 여주, 고성 의 지역에서 100여 차례 일본군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07년 관동창의 대장이 되어 20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서울 탈환작전에 참가, 삼산리전투와 처현동전투, 죽전리 전투 등에서 큰공을 세웠다.

○ 1907년 추운 겨울철이 되자 일본군은 의병대에 반격과 토벌을 강화하였다. 이에 민긍호 의병대장은 의병대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50~60명씩 분산시켜 일본군의 공격에 대항하였으며, 1908년 2월 27일 오전 11시 강림 박달치 부근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월현리 등자치로부터 10리 지점에 있는 궐덕리에서 숙영하였는데, 일본군은 이 정보를 탐지하고 2월 29일 11시 동, 남향 방면으로 포위 공격하였다.

○ 민긍호 의병대는 궐덕리 남방고지에서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3시간 30분만에 탄환이 떨어져 전세가 기울자 민긍호 대장은 민초들과 의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에 스스로 체포되어 원주에 있는 일본수비대로 압송되는 도중에 강림5리 창말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날 밤 의병대 60여명이 민긍호 대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박달치동 북방으로부터 일본군을 습격 "민긍호

대장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라"고 크게 외쳤다. 이 소리를 듣고 민긍호 의병대장이 포박된 채 탈출을 시도하자 다급해진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 이렇게 민긍호 의병대장은 1908년 2월 29일 43세의 나이에 장렬한 일생을 마치고 순국한 것이다. 특히 강원도 선유사인 홍우석이 민긍호 의병대장 회유를 위해 5개조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그 요구를 거절 할 시 체포하고자 밤중에 민긍호 의병대장과 회동하려고 하였다.

○ 그러나 민긍호 의병대장은 이를 눈치채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회유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강원도 관찰사 황철이 직접 횡성군수를 시켜 귀순 권고에 나섰으나 이 또한 단호히 거절하고 죽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국권을 빼앗기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 때에 내가 일본에 투항하면 일본치하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역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나의 뜻은 나라를 찾는데 있으므로 강한 도적 왜와 싸워 설혹 이기지 못하여 흙 속에 묻히지 못하고 영혼이 망망대해를 떠돌게 될지라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며 의연히 통박하면서 일본군과 대적하여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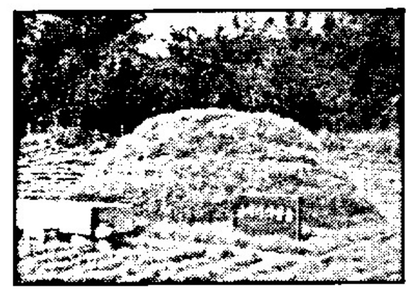
○ 1954년 원주봉산동 중턱에 충혼탑을 세워 민긍호 의병대장 넋을 기리게 되었으며, 1962년 정부로 부터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또한 서거 90주기를 맞아 1998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정되었다.

○ 그리고 강림면민 모두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디딤돌이 되어준 민긍호 관동창의대장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민족의 자존심과 백의민족 정체성을 전해주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이되어 오늘 이 탑을 세우는 것이다.

2004년 11월 12일

강 림 면 민 일 동

3) 금대리 의병총 비문



1907년 조선군을 강제 해산하고 고종황제를 폐위한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의병으로 봉기 한 분들 중 이 지역 전투에서 순국하신 세 분의 무연고 의병을 모신 묘역이다.

1907년 11월에서 12월까지 이 곳 서원면에는 700여 의병이 대부대를 이루고 일본군보병 제51연대와 대치하던 강원, 경기, 충청도 의병의 거점으로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장렬히 전사하신 의병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후손에 전하고자 묘역을 정비하고 비를 세우다.

1989년 12월 5일

횡 성 군 수

4) 한상렬의사 추모비 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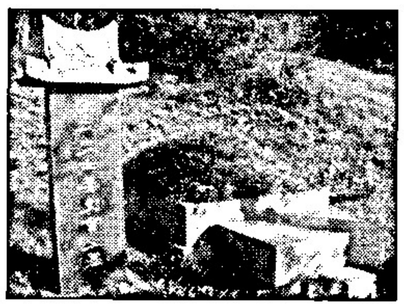


1876년 4월 2일에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에서 부친 한동수 공과 모친 연일 정씨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청소년 시절에 선생은 일제의 침략에 의한 주권 상실과 고종 32년 1895년의 을미의병을 보고 애국사상과 항일의식을 품게 되었다. 광무 9년 1905년에 일제의 병탄 야욕이 노골화되고 을사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분개하여 민영환, 조병세 등 자결하는 인사들이 속출하더니 다음해에는 제2차 의병인 병오 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때의 의병은 충청도의 민종식 선생과 전라도의 최익현 선생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다음해인 광무11년 1907년에 해외밀사 사건을 구실로 일제가 고종황제를 폐출하고 순종을 즉위시킨 후 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한국군대를 해산시키게 되자 마침내 전국적인 의병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를 3차 의병 또는 정미의병이라 부른다. 이전의 을미의병이나 병자의병이 대체로 노장층의 유림지도자가 중심이 되었던데 비하여, 정미의병은 해산된 구한국 군대가 중심이 된 것으로서 군사에 밝은 청년들이 앞

12일까지 횡성 장터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 고을 만세운동은 총칼의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향해 달려가는 뜨거운 여정의 시작이요 횃불이었다. 일제의 잔악한 살육에도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겨레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랐다. 이 운동으로 하영현, 강달회, 전한국, 강성순, 강만형 의사가 순국하고 많은 사람이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더 많은 사람이 뜨거운 피를 흘리며 오로지 광복과 영광을 위한 씨알로 희생하였다. 이 숭고한 일과 넋을 기리며 이 비를 세워 영원히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1984년 11월 22일
횡 성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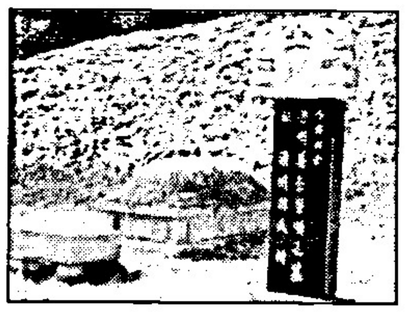
7) 애국지사 강달회 묘비문



진주 강씨 통정공파 후손인 강달회 지사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한일합방하는데 대하여 통분을 금치 못하시던 중 1919년 기미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에서 분연궐기하여 4월 1일 횡성만세운동에 참가하시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주독립의지를 당당히 주장하시다 현장에서 왜적의 총에 맞아 당당히 순국하시었다. 지사께서는 광복된 조국을 보시지도 못하고 한스러운 삶을 마치셨기에 이러한 독립항쟁정신은 우리 고을의 명예이므로 그 뜻을 기리어 묘역을 단장하고 지사의 거룩한 자주독립정신과 숭고한 일을 후세에 전하여 받들고자 합니다.

서기 1990년 10월 30일

8) 애국지사 강성순 묘비문



공의 휘는 성순이요 자는 사윤이며 관은 진주이시다. 갑자년에 부친 호원과 해주 오씨 사이에 독자로 출생 인생의 삶을 다하지 못한 채 젊은 나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열사이

시다.

공은 시대적으로 춥고 배고픈 그리고 자유마저 빼앗긴 일제 통치하의 억압된 세파 속에서 나라 잃은 설움을 금할 길 없는 세상을 살으셨다. 각지에서 독립을 위한 독립선언서가 배부되고 만세운동이 전개 되고 있을 때 공이 살고 있는 횡성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횡성독립만세운동이 있기까지 공은 동분서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사랑하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른이시다. 더구나 횡성3 · 1운동은 천도교에 의해 추진되었던 바 공도 천도교인이셨던 것이다. 공은 최종하, 윤태환, 탁영재, 전성수, 최동수 등 십 수명과 함께 추진 그 활약이 대단한 것으로 횡성과 3 · 1운동이란 책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공이 서거하신 4월 1일의 만세운동은 13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의기는 대단하였을 것이다. 일본군의 군화 발과 말발굽에 밟힌 지 수십 년 동안 고생과 역경을 이겨내며 참아왔던 백의민족운동으로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함이요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한 맺힌 투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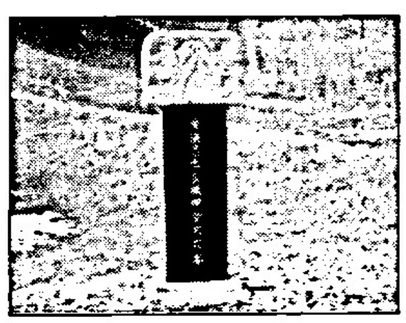
대한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공은 뜻을 이루지 못 한 채 비명에 가셨지만 후손들의 평온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하여 몸을 던지셨던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후손들은 서광하지 않은가?

길이 후손에 물려줄 기상이요 영원한 빛이요 한 세대에 빛이 되시리라! 고이 평안하옵소소. 공의 묘는 우천면 정암리 잣나무골에서 1989년 11월 1일 우천면 법주리 바리골로 이장되었다.

서기 1989년 11월 1일

9)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 묘비문

여사께서는 1878년 10월 15일 경주읍 서부리 김해 김씨 문중에서 태어났다. 1898년 10월 19일 안흥면 안흥리에서 박영화 씨와 결혼하여 횡성읍 옥동리와 갑천면 구방리를 거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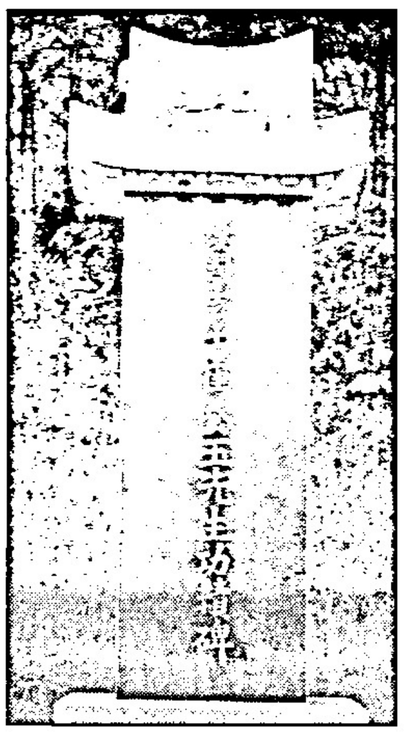


로 가난과 세파에 시달리면서 애국의 일념으로 생활하시다가 1952년 12월 19일 한 많은 삶을 마쳤다.

기골이 장대한 여사(일명 황소갈보)께서는 뜻한 바 있어 당시 천대받던 주막을 경영하면서 푼푼이 받은 돈으로 애국지사인 갑천면 화전리 최양옥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우셨고 자금 모금에도 협력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3·1운동 시에는 자신의 주막을 모의장소로 제공하여 하영현, 강달회, 강성순, 전한국, 강만형 의사가 순국하시고 많은 지사가 투옥되었던 4월 1일 횡성장날 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일경에 쫓겨 장터 술집에 숨어 든 동지들을 규합 군중을 진두 지휘하다 투옥됨으로서 횡성 3·1독립만세운동을 성취시킨 전설적인 여인이다. 자손은 절손되고 난중에 소실된 기록을 챙기는 후사가 없어 찬연한 공적에도 보훈의 대열에 들지 못하고 갑천면 구방리 공동묘지에서 실묘의 지경에 이르니 실로 애석함을 금할 길이 없던 바 다행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군민의 뜻이 있어 이곳에 안장하고 여사의 드높은 애국의 뜻을 기리며, 후세에 귀감을 삼고자 이 비를 세우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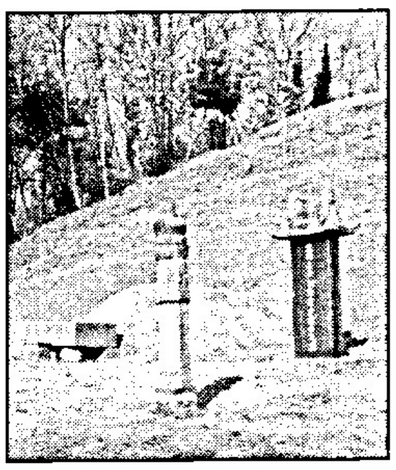
1990년 4월 27일
횡 성 군 민 일 동

10) 애국지사 최양옥 묘비문



지사는 1893년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출생하시어 1913년 4월 원주보통학교에 입학하시어 1917년 동교를 졸업하셨고, 동년 3월에 서울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시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민족정신과 항일사상이 투철한 지사는 독립투쟁에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학교를 중퇴하고 강원도 횡성으로 내려오시어 동지를 규합한 뒤 천도교인들과 합세하여 횡성 장날에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셨다. 그 후 지사는 일경의 추적을 피하여 가진 고생을 겪다가 상경한 후 만주에 가서 이동령, 박은식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의 지

령을 받고 서울에 와서 만주농림주식회사를 창립하던 신덕영을 만나 1920년 7월 서울 소격동 신덕영의 집에서 신덕영, 노형규 등과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셨고, 지사는 농림주식회사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하고 전남 각지에서 많은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임시정부로 보내었다. 지사는 다시 신덕영, 노기준과 같이 전남 담양군 및 곡성군에서 군자금 모집에 진력하던 중 동년 11월 5일 노기준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광주로 가던 도중에 일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5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7년의 언도를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6년 출감하였다. 출감 후 귀향하니 부친은 4개월전 별세하였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그 형편은 말할 수 없었다. 조국광복을 위하여 몸을 바친 지사는 불고가사하고 고국을 떠나 만주로 망명하여 중국 산서성 태원부에서 안창남, 이용화, 김정연 등 여러 동지와 더불어 공명단을 조직한 후 단장에 피선되었다. 1927년 안창남, 신덕영, 김정연 등과 북만주에서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비행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그 기금 모집과 서울에 공명단 지부를 설치하고자 김정연 이선구 등과 같이 1929년 서울에 잠입하여 첫 번째 행동으로 동월 20일 지시는 김정연, 이선구와 함께 서울 교외 망우리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가는 일본 우편물 수송차를 권총으로 습격하여 정차시켰다. 그리고 지사의 일행은 차 속에 실었던 우편낭을 뒤져 많은 돈을 빼앗은 뒤 일인의 우편물은 전부 불태워버리고 동포의 우편물만 남겨두었다. 이 때 이곳을 지나던 자동차를 모조리 정지 시킨 후 운전수와 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산골 속으로 끌고 가서 열좌 시키니 그 수효 70명이었다. 이같이 산밖으로 정보가 새지 않게 한 후 지사의 일행은 행장을 수습하고 강원도 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뒤 미쳐 이 급보를 받은 일경은 경기, 황해, 강원, 충북, 충남 등 5도의 일경과 일군 제 19사단의 응원을 얻어 천마산 양주를 포위하매 지사의 일행은 이를 상대로 전투를 시작하여 망우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면서 1주야를 악전고투하였으나 탄환은 떨어



지고 배는 고파 세 궁력진하여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그후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간의 예심을 거쳐 지사는 징역 10년의 언도를 받고 김정연은 징역 9년, 이선구는 징역 6년의 언도를 받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이선구는 옥중에서 병사되고 지사는 10년이란 긴 세월을 복역하다가 만기 출옥하였다.

1945년 8 · 15광복 후에는 서울 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인천형무소장에 승진되어 근무하였다.

서기 1962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았다.

서기 1984년 4월 15일 건립

이상 의병항쟁 및 4 · 1군민 만세운동과 관련, 횡성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항일 애국지사의 비문을 한군데 모아 보았다. 이를 통하여 횡성이 애국의 고장이라고 부르게 됨을 어렴풋이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구한말 의병항쟁에 있어서 일본군의 발달된 무기, 막강한 군수물자 보급체계에 의한 군사력은 빈약한 무기로 대항한 우리 의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는 나라를 빼앗긴 울분과 애국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의병장 또는 의병이 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며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후세에 와서 애국선열, 애국지사라 부르지만 당시는 일제에 의하여 폭도, 불량배, 불순분자로 낙인되어 호도되었다. 여기에 일부 몽매한 동포들도 부화뇌동하여 손가락질하며 매도하였으니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겠는가? 강림 전투에서, 금대리 전투에서 전사한 의병들은 일제가 조성한 공포분위기에 제대로 장사를 치를 수도 없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묻혀 있던 것을 후세에 발굴 새로 단장하고 묘비를 세운 것이다. 문암리 한상렬 의병장도 많은 재산으로 편히 지낼 수 있었으나 의병의 길을 택하여 고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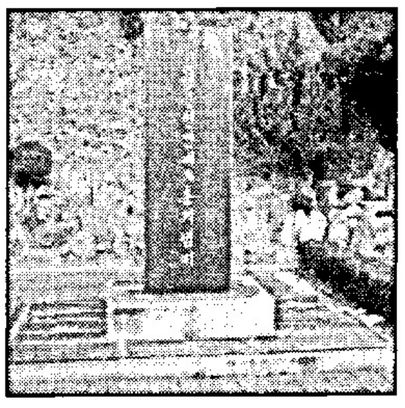
길을 걸은 한 예이다. 일제는 그의 처자식을 인질로 잡고 항복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항거하다 가족은 모진 고초를 당하여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으며, 집도 불살러졌음에도 의병장은 좌절하지 않고 무대를 만주로 옮겨 독립군으로 일제와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렇게 의병활동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횡성의 많은 의병장들이 활동하였지만 무덤이나 비문하나 없는 경우가 많다. 어느 의병장은 당시의 활동기록이 없음에도(사실 증언 외에는 당시 기록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후손이 있어 천신만고 증인이나 고증절차를 통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의병들은 후손조차 없어 그렇게 챙겨 줄 사람도 없었고, 어쩌면 국가의 혜택도 받지 못하던 가난한 민초로 세상에 주목을 받는 위치도 아니었으며 마을사람들에 그냥 구전되다 묻혀버린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조건에서 수 없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의병의 아우성, 그 고귀한 희생이 우리 향토사에 묻혀있기에 우리는 횡성을 애국의 고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3. 증언을 통해 본 애국지사의 활동

필자는 향토사 연구를 핑계로 1980년부터 2년 간 생존하셨던 애국지사, 목격자, 후손을 추적하여 녹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증언을 예시하여 보고자 한다.

1) 4 · 1군민만세운동

1919년 4월 1일 횡성 장날 어둠이 깔리지 콩볶듯 총 소리가 났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시위군중에게 발포하는 사격이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현재 군청 부근 느티나무 밑에 몇 구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지난밤 일본군의 사격에 의하여 희생된 분들이다. 시체 밑에는 밤새도록 피가 쏟아져 한 삽날까지 피가 스며들었다고 목격자는 증언하였다. 소식을 듣



1920년대 횡성지역 청년의 민족운동

조 규 태 / 국가보훈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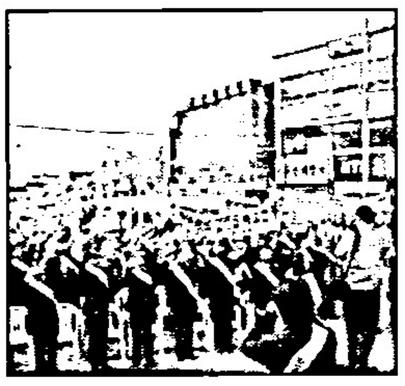
1. 머리말
2. 橫城靑年會의 설립과 문화운동의 전개
3. 橫城勞農同盟의 설립과 노농운동의 전개
4. 同盟休校와 衡平運動 및 高麗革命黨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횡성지역은 강원도 지역에서 대표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웅거지였다. 위정척사사상과 존화양이의 학문적 전통, 그리고 반외세의 동학사상을 계승한 횡성지역의 주민들은 구한말 일제의 국권침탈에 저항하여 치열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때에는 계층과 종교를 불문한 대부분의 주민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3·1운동 이후 횡성지역의 주민들은 횡성지역 내외에서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그리고 항일학생운동과 의열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횡성지역의 항일운동적 특성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족하였다. 그리하여 횡성지역의 의병, 3·1운동, 의열투쟁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계열의 민족운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있었다.[1]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횡성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1) 강대덕·박정수·최창희, 『횡성 민족운동사』(횡성문화원, 2003). 본서에서는 횡성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를 통하여 횡성지역의 각 계열의 민족운동이 분명히 해명된 것은 아니었다. 의병투쟁, 3·1운동, 사회운동, 대중운동, 의열투쟁 등 거의 모든 부문의 운동이 심층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 특히 시급히 연구해야 할 분야가 1920년대 청년의 민족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3·1운동 후 민족운동의 주도세력은 청년이므로, 횡성지역 청년들의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면, 3·1운동 후 횡성지역의 민족운동을 분명히 파악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굳이 1920년대 횡성지역의 청년운동을 연구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3·1운동 후 횡성청년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주도인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횡성청년회의 문화운동에 한계를 느낀 청년들이 횡성노농회와 횡성노농동맹을 조직하고 전개한 민족운동을 검토하고 그것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횡성지역 청년들이 전개한 동맹휴교와 형평운동 및 고려혁명당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횡성청년회의 설립과 문화운동의 전개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횡성지역의 청년들은 새로운 민족운동의 활로를 모색하였다. 마침 조선총독부가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청년운동과 문화운동을 장려하여 전국적으로 청년회가 조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횡성에서는 먼저 橫城靑年俱樂部가 설립되었다. 횡성청년구락부의 정확한 설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3·1운동 후 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20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횡성청년구락부의 部員은 副長 趙基淳, 총무 趙轍九, 부원 李東求 등이었으며, 천도교계의 청년들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횡성청년구락부는 1921년 6월 12일 오후 9시 횡성의 천도교회당에서 副長 趙基淳씨 사회 아래에 李東求가 「우리 청년의 사명」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2] 또한 횡성청년구락부는 1921년 7월 3일 천도교청년회와 합동으로 천도교청년회 동경지부의 순회강연단을 맞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횡성청년구락부는 星環에서 환영회를 개최하고, 오후 9시부터 천도교구에서 이동구의 사회 아래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全敏轍은 「인생과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鄭重燮은 「우리의 각성과 來頭세계」, 천도교청년회 경성본회 특파원인 金弘植은 「인류의 자연성과 종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3] 요컨대, 횡성청년구락부의 활동은 주로 강연이었고, 그 강연내용은 주로 각성과 교육을 통한 청년 등 인간의 변화와 개조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횡성청년구락부는 1921년 10월 1일 오후 8시 횡성군 읍상리 천도교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청년구락부의 명칭을 횡성청년회로 개정하였다.[4] 1920년 이후 청년회가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세워지던 상황을 보고, 횡성지역의 청년들도 단순히 친목모임 같은 횡성청년구락부라는 명칭을 운동단체인 횡성청년회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횡성청년구락부는 이동구가 임시회장이 되어 횡성청년회의 창립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선정된 임원은 다음의 **<표1>**과 같다.[5]

2) 『동아일보』 1921. 6.19.

3) 『동아일보』 1921. 7.15.

4) 『동아일보』 1921.10.31.

5) 『동아일보』 1921.10.31.



이 름	직 책	나 이	경 력	출신학교	출 신 지 거 주 지
趙轍九	회장		1924년 동아일보 횡성분국장		
金龍在	부회장		1922년 동아일보 횡성분국장		
沈容九	총무				
尹泰年	회계		1928년 동아일보 횡성지국장교통계의 선구(1935)		
柳大振	서기				
趙根英	평의원		횡성감리교회 목사		
李東求	평의원	1886	천도교인		강원도 횡성
咸基燮	평의원	1897	1915년수원고등농림학교 졸 횡성군 군속 8등급		원주면 하동리
趙基淳	평의원				
鄭雲時	평의원				
白永道	평의원				
尹泰煥	간사				
林東洙	간사				
柳寅澤	간사				
嚴衡燮	고문		횡성군수		
中 西 壽之助	고문		횡성학교장		
鄭鎬鳳	고문		면장		
崔赫鍊	지육부장				
尹泰年	덕육부장				
韓明洙	체육부장				

위의 표에 의하면 횡성청년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평의원, 간사, 고문과 지육부장 · 덕육부장 · 체육부장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회장인 조철구와 부회장인 김용재는 동아일보 횡성지국의 간부였다. 그리고 평의원인 이동구는 횡성 천도교구와 천도교 중앙총부의 간부였다. 또 조근영은 횡성 감리교회의 목사였다. 그러니까 횡성청년회는 동아일보 횡성지국원인 조철구 · 김용재와 횡성 천도교구의 이동구, 횡성 감리교회의 조근영 등의 주도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횡성군수와 횡성면장, 횡성보통학교장 등이 횡성청년회의 고문에 선임되었던 것으로 보아, 횡성군내 관청과 횡성보통학교의 후원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횡성지역에서는 횡성청년회와 아울러 1922년 7월 23일에는

횡성군 井谷面 安興里의 안흥공립보통학교에서 안흥청년회가 창립되었다. 안흥청년회의 창립 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표 2> 안흥청년회의 창립시 임원(1922. 7.23)

이 름	직 책	나 이	경 력	출신학교	거 주 지
崔和吉	회장				
權達洙	부회장				
中尾英一吳	고문		횡성군수		
喜有馬純行	고문		횡성학교장		
鄭鎬鳳	고문		면장		
吳彦泳	덕육부장				
趙斗昌	지육부장				
申鉉晩	체육부장				
李丙轍	평의원				
李相奭	평의원				
朴崇根	평의원				
孔在善	평의원				
李泰鎬	서기				
李泰鎭	회계				

횡성청년회는 1922년 4월 9일 오전 9시 읍상리 천도교당에서 열린 제2회 정기총회시, 회장 조철구, 부회장 韓基燮, 총무 윤태년, 지육부장 崔赫鉉 등을 보선하였다.[6] 또 횡성청년회는 1922년 9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부회장 조근영, 평의원 金相俊, 체육부장 尹泰煥, 간사 李鍾基, 회계 韓明洙 등을 보선하기도 하였다.[7]

횡성청년회의 주요 활동은 강연활동이었다. 먼저 횡성청년회는 청년회관 등지에서 매월 2회씩 강습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8] 강연회의 연제는 청년의 각성과 아울러 여성의 각성에 관한 것도 있었다. 예컨대, 횡성청년회는 1924년 1월 19일 연사 安信行이 「시대와 여자」라는 주제로, 尹先鉉이 「愛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9] 또한 횡성청년회는 각 면을 순회하며 강연을 실시하였다. 1922년 8월 횡성청년회가 동아일보 횡성분국과 함께 군내 각 면을 순회 강연한 일시와 장소 및

6) 『동아일보』1922. 4.20.

7) 『동아일보』1922. 9.18.

8) 『동아일보』1924. 2. 2.

9) 『동아일보』1924. 1.28.

10) 『동아일보』1922. 8.12.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횡성청년회 각면순회강연단 일정[10]

연사: 李東壽, 方興範, 秋秉玉, 柳奎燁
8월 9일: 공근면 학담리
8월 10일: 서원면 분삼리
8월 11일: 서원면 조항리

연사: 趙根英, 申永鎬, 李鍾基
8월 9일: 정곡면 하안흥리
8월 10일: 둔내면 자포곡리
8월 11일: 정곡면 정금리

연사: 趙轍九, 金允洙, 方箕範
8월 9일: 청일면 유동리
8월 10일: 갑천면 매일리
8월 11일: 갑천면 포동리

연사: 未詳
8월 14일: 우천면 하수남리
8월 15일: 우천면 남산리
8월 16일: 횡성면 읍내리

또한 횡성청년회는 지육부 주최로 노동야학과 청년야학을 실시하였다. 횡성청년회는 1923년 8월 25일부터 횡성청년회관에서 李東壽, 韓明洙, 尹兌鉉, 崔赫鉉, 方熙世, 尹泰年, 方箕範, 趙轍九, 朴淳卿, 柳大振, 尹昶鎬 등이 70여명의 학생을 가르쳤다.[11] 또한 횡성청년회는 1924년 3월 24일부터 청년회관에서 청년야학을 개최하고 청년들에게 법학과 산학을 60일간 교수하였다.[12] 횡성청년회는 횡성지역의 소년회와 노농회 등의 단체를 지도하기도 하였다. 횡성청년회의 평의원인 조근영은 1922년 8월 2일에 횡성읍 기독교회당에서 창립된 횡성소년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13] 횡성청년회는 1924년 8월 경 횡성노농회의 야학을 지도하고 있었다.[14] 또 횡성

11) 『동아일보』1923. 9. 4.

12) 『동아일보』1924. 3.24.

13) 『동아일보』1922. 8.15.

14) 『동아일보』1924. 8.23.

청년회는 1924년 5월 횡성소년회, 화성유치원, 횡성노농회, 횡성형평분사, 횡성보통학교 체육부와 함께 메이데이와 어린이날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다.[15]

그런데 횡성청년회의 활동은 1923년 무렵부터 그리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횡성청년회는 1923년 12월 30일 회원들이 월회비를 내지 않고 강연회 · 토론회 등에 참석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23년 4월에서 9월까지의 밀린 회비를 1924년 1월 25일까지 내도록 하고, 회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날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16] 또한 횡성청년회는 1924년 1월 25일 회장 방현영의 사회 아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비를 미납하고 퇴회를 희망한 23명을 제명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17]

一. 過番 추수기에 중지되었던 노동야학은 舊曆 정월 초순부터 계속할 사.

一. 강습회와 토론회는 매월 2회식 종전대로 계속할 사.

一. 본회원은 일반에게 생활개선상 필요품인 염색의 使用을 실행키 위하여 구력 정월 1일부터 솔선실 행할 사.

一. 造林事業을 實行키 위하여 道 당국에 國有林野 貸付申請을 제출할 사.

一. 본 회관 내에 화성유치원을 이전하여 일반유치생의 편의를 與케 할 사.[18]

즉 횡성청년회는 강연회와 노동야학을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 '염색의 입기' 등의 생활개선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화성유치원을 횡성청년회관 안에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횡성청년회의 활동은 1920년대 중반 문화운동의 전반적인 퇴조와 함께 점차 위축되어갔다.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의 대다수가 소작농으로서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성과 교육'을 강조하는 문화운동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5) 『동아일보』 1924. 5. 7.

16) 『동아일보』 1924. 1. 6.

17) 『동아일보』 1924. 2. 2.

18) 『동아일보』 1924. 2. 2.

3. 횡성노농동맹의 설립과 노농운동의 전개

횡성지역의 청년들은 청년회를 통한 문화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노농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횡성지역의 청년들은 문화운동의 열기가 한풀 꺾였던 1923년에 횡성노농회를 조직하였다.[19] 당시의 위원장은 강원도 원주군 원주면 上洞里 출신인 李東壽였다.[20] 설립 초기에 있어서 횡성노농회는 계몽운동과 개량운동에 치중하였다. 1924년 8월 18일 횡성노농회는 제1회 임시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횡성노농회 제1회 임시총회 결의사항

1. 본회의 회원을 정리할 것.
1. 본회의 자금을 적립할 것.
1. 본회의 야학은 당지 청년회와 소년회의 후원을 득하여 來 9월 1일부터 개최할 것.
1. 본회의 부업장려는 회원 일반에게 爲先 筵織을 장려할 것.
1. 본회에서 來 추수기부터 각 舍音들의 악습인 마령(斗量科)를 폐지케 할 것.[21]

위의 내용에 따르면, 횡성노농회는 설립 초기인 1924년 계몽운동인 야학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횡성청년회는 노농회원들에게 부업으로 대자리를 짜게 하고, 사음들의 악습인 마령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즉, 횡성청년회는 농민계몽과 농민의 수익 향상과 농민들에게 가해지는 폐해를 개선하는 개량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횡성노농회의 활동은 횡성지역의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횡성노농회는 1926년 3월 7일 당지 횡성청년회관에서 혁신총회를 개최하였다. 혁신총회시 이동수가 의미 깊은 개회사를 하였고, 趙秀雄이 혁신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吳奎善 · 柳天福이 감상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횡성노농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을 개선하고, 결의사항을 정하였다.[22]

19) 『동아일보』1925. 3.18. 이 기록에 의하면 횡성노농회가 창립된 지 2개 星霜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횡성노농회가 1923년에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20) 『동아일보』1924. 8.23. 강원도경찰부장, 「맹휴선동자의 처분 및 불온격문 살포범인 검거에 관한 건」 1930.

21) 『동아일보』1924. 8.23.

22) 『조선일보』1926. 3.14.

❖ 위 원: 위원장 吳之默, 서무부 집행위원 이동수 · 吳奎善 · 柳天福 · 오호영 · 嚴千一 · 趙秀雄, 소작부 집행위원 李文七 · 金元實 · 李化春 · 朴明七 · 韓愼明 · 咸春化, 노동부 집행위원 金鍾實 · 金主奉 · 李億石 · 金昌洪 등

❖ 결 의: ①회원정리에 관한 건. ②소작문제에 관한 건. ③노동문제에 관한 건. ④농민교양에 관한 건. ⑤농촌경제상황 조사에 관한 건. ⑥세포단체 조직에 관한 건.[23]

23) 『조선일보』1926. 3.14.

위의 내용에 의하면, 횡성노농회는 소작문제, 노동문제, 농촌경제상황 등을 조사하고 세포단체를 조직하려고 계획하였다. 또한 횡성노농회는 혁신총회를 통하여 지식인이 아닌 노동자 · 농민들을 임원으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횡성노농회는 혁신운동을 주도한 李東壽, 趙錚 등이 횡성노농회의 해체와 중앙집권적인 조선노농동맹의 발기를 제의하였다. 그리고 1928년 4월 5일 오후 8시부터 횡성청년회관에서 준비위원 趙錚의 사회 아래에서 횡성노농동맹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창립대회시 李東壽의 의미심장한 연설이 있은 후 盟員加盟受理, 會員點名, 자격심사를 마치고 임시집행부로 의장 李東壽, 서기 吳虎泳, 趙錚, 규찰원 崔成述 외 약간인을 임명하였다.[24]

24) 『조선일보』1928. 4.10

그리고 6일에는 다음과 같이 부서의 책임자를 정하였다.[25] 집행위원장 崔成述, 서무부장 金昌洙, 동부원 金萬壽 · 李恩三 · 崔相玉 · 鄭春元, 농민부장 李文七, 동부원 金鍾實 · 金聖洙, 체육부장 趙錚 , 동부원 韓哲洙, 선전부장 洪八福, 동부원 鄭義燮, 조직부장 金成萬, 동부원 權允鎭, 조사부장 韓應哲, 동부원 方順範이었다.[26]

25) 『조선일보』1928. 4.18

이것을 토대로 횡성노농동맹 창립시의 임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6) 『조선일보』1928. 4.18

〈표 3〉 횡성노농동맹의 임원(1928년)



이 름	직 책	나이	경 력	출신학교	출 신 지 거 주 지
崔成鉉	집행위원장				
韓哲洙	회계 체육부원				
吳虎泳	서기				
李東壽	검사위원		1927년 원주노동회 창립위원장 1927 강원청년연맹 임원. 1930년 동아일보 원주지국 총무 겸 기자		원주
金昌洙	집행위원 서무부장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인 高光洙와 친구		
李文七	집행위원 농민부장				
金成萬	집행위원 조직부장				
韓應哲	집행위원 조사부장				
李恩三	집행위원 서무부원				
洪八福	집행위원 선전부장				
鄭春元	집행위원 서무부원				
權相玉	집행위원 서무부원				
權允鎭	집행위원 조직부원				
金鍾實	집행위원 농민부원				
金聖洙	집행위원 농민부원				
鄭義燮	집행위원 선전부원				
金萬秀	집행위원				
方順範	집행위원 조사부원				
趙 錚	집행위원 체육부장				

위의 인물 중 이동수는 원주에서 활동하던 인물로 1927년 7월 7일 원주에서 창립된 원주노동회의 위원장이었다. 그는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에 참석한 바

있었다.[27] 그리고 그는 1927년 7월 10일 전강원도사회운동자대회를 추진하고,[28] 1927년 8월 18일 강원청년연맹의 혁신운동을 추진하였으며,[29] 1927년 10월 경 강원청년연맹의 순회강연대 중 제3대 영서대의 일원으로 횡성지역을 순회하기도 하였다.[30] 요컨대 그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에 참여하여 민족협동전선의 결성을 위해서 활동하였고,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강원청년연맹의 혁신을 위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 김창수는 횡성 출신의 대표적 사회주의운동가인 고광수와 접촉을 하고 있었다.[31] 1900년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읍성리 335번지 출신인 高光洙[32] 는 춘천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보성전문학교를 중퇴하였다. 그는 1920년 4월 간도에서 조선인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그 해 9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가입하였다. 그는 1925년 10월 귀국하여 조선공산당에 관계하면서 1926년 말에는 통합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로 선임되었다. 또한 그는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모스크바에 파견되었다가 1928년 2월 귀국하여 고려공산청년회의 선전부장, 전국대회 준비위원등으로 활동하였다.[33] 따라서 그는 횡성지역의 청년들과 연락하며 공산주의의 확산에 일정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횡성노동동맹은 창립 후 다음과 같이 조직, 교양, 노동, 소작문제 등을 다루기로 결의하였다.[34]

조선노농동맹의 창립시 결의사항[35]

제1부 조직문제

1. 세포단체 조직 촉진의 건
1. 부문운동에 관한 건

제2부 교양문제

1. 노동자 · 농민 기초지식 연구의 건
1. 신문 · 잡지 구독의 건
1. 노동야학 개최의 건

27) 警高秘제2502-1,「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 개최상황 및 집회금지에 관한 건」(1927. 5.30).
28) 『중외일보』1927. 6. 5.
29) 『중외일보』1927. 8. 13.
30) 『중외일보』1927. 8. 13.
31)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망에 관한 건」1930. 2. 7. 김창수는 고광수의 사망시 그의 시신을 인수하였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이것으로 보아 김창수는 고광수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2)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망에 관한 건」1930. 2. 7.
33) 강만길 · 성대경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23면.
34) 조선일보』1928. 4.10.
35) 『조선일보』1928. 4.10.

제3부 재정문제
1. 기본재산 적립의 건
1. 회원 부담금에 관한 건

제4부 사회 及 당면 문제
1. 봉건적 허례 등 타파에 관한 건
1. 여성, 백정, 노예 등에 관한 차별 철폐의 건
1. 인신매매 금지의 건
1. 무산아동 수업료 철폐의 건
1. 18세 남녀 결혼금지의 건
1. 민족단일당 구성 촉진의 건
1. 신간회 지지의 건
1. 근우회 지지의 건

제5부 노동 及 소작문제
1. 최고임금 결정의 건
1. 8시간노동제 실천의 건
1. 소작료 결정의 건
1. 부당부과 철폐의 건
1. 舍音 철폐의 건
1. 경작권 확립의 건
1. 회관문제 [36]

36) 『중외일보』

위의 내용에 따르면, 횡성노농동맹은 농민의 계몽과 농민문제를 개량적으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단일당 구성 촉진의 건, 신간회와 근우회 지지의 건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노동조건과 임금조건과 같은 노동문제, 소작료 · 경작권과 같은 소작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자 과거 횡성노농회의 회장이었던 윤태환은 1928년 7월 12일 오후 8시 횡성청년회관에서 횡성노농동맹 임시의총을 열고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횡성노농동맹의 청부공사 진행의 건을 가결하였다.[37] 그리고 윤태환은 1928년 7월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횡성노농동맹의 맹원정리, 위원장 개선등을 결정하였다.[38] 또 윤태환은 1928년 11월 8일 前川

37) 『동아일보』1928. 7.19.

38) 『동아일보』1928. 8. 7.

工事의 건, 관북수해 구제의 건, 노동야학 개최의 건, 회원정리의 건, 축우구입의 건, 공동경작의 건, 청년회관 薔草의건 등을 가결하였다.[39] 요컨대 李東壽 등이 횡성노농동맹의 실권을 잡고 민족유일당 지지와 같은 정치문제에 간여하고, 노동문제와 소작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자, 윤태환은 횡성노농동맹의 권력을 되찾고 다시 계몽적이고 개량적인 농민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횡성노농동맹의 실권을 잃은 이동수는 다른 단체의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30년 1월 경 李止淵 · 徐昌南 등이 동맹휴교를 촉구하는 전단을 철원지역에 뿌린 사건에 관계하였고 이로 인해 피검되었다.[40] 그리고 그는 1930년 말 신간회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민족통합전선의 결성을 위해 활동하였다.[41]

39) 『동아일보』 1928.11.8.

40) 강원도경찰부장, 「맹휴 선동자의 처분 및 불온격문 살포범인 검거에 관한 건」 1930.1.29.

4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4권, 1978, 339면.

4. 동맹휴교와 형평운동 및 고려혁명당 활동

1920년대 횡성지역의 청년들은 문화운동 · 노농운동과 아울러 학생운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 4월 1일 개량서당인 晴陽學塾의 학생 23명은 교사의 언동이 불온당하다고 하며 교사를 배척하기 위한 동맹휴교를 전개하였다. 또 1922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횡성공립보통학교의 학생 139명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춘계운동회 즈음에 일본인과 조선인 학생 사이에 투석을 하며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학교직원들의 처우가 불공평한 것을 문제삼아 동맹휴교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모자들은 3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42] 그리고 횡성지역의 청년들은 1923년 4월 24일 경남 진주에서 衡平社가 만들어져 백정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평등 대우를 주장하는 형평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참여하였다. 횡성지역의 청년들은 1924년 1월 횡성군 읍하리에 형평사 횡성분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임시 분사장은 吉萬學이었다.[43] 1925년 1월 창립1주년

42) 「1924년 관내상황」 附 同盟休校 其他 學校紛爭事件 動機一覽. 同盟休校 其他 學校紛爭事件 內容.

43) 『동아일보』 1924.1.10.

에 참석한 인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것[44]으로 보아 형평사 횡성분사의 인원은 100 · 200여명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평사 횡성분사는 1925년 1월 4일 창립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횡성지역에 선전삐라 약 1,000여 매를 배포하여 횡성운동의 취지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45]

형평사 횡성분사의 임원들은 형평사 본사의 임원으로도 참여하였다. 길만학과 李東求는 1924년 형평사 본부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5년에는 길만학은 중앙집행위원, 이동구는 검사위원에 선임되었다.[46] 길만학은 1928년 6월 8월 강원도 지방을 순회하는 특별위원, 1929년 2월에는 충남을 순회하는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30년 4월에는 형평사 상무집행위원인 생활보호부원으로서 활동하였고,[47] 1931년 3월에는 형평사 정기총회 강원도 순회위원으로 활동하였다.[48] 또, 횡성청년회원 方榮麟은 1925년 경 사회주의계 사상단체인 北風會의 회원으로 40만 명이나 되는 형평사원에게 공산주의사상의 확산을 위하여 형평사의 書記로서 활동하고 있었다.[49]

한편 횡성지역의 3 · 1운동시 크게 활동하였던 이 지역의 천도교인들 중에는 3 · 1운동 후에도 민족적 색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1924년 경 횡성지역의 요시찰인은 갑종 2명, 을종 2명 등 총 4명이 있었는데[50] 천도교인 安敬春과 張道勳이 요시찰 대상자였다. 안경춘은 이명이 安承敬으로 1901년 횡성군 정곡면 하안흥리 667번지 출생이었다. 그는 3 · 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징역 10개월을 받았고 그 후 2년간 행방이 묘연하다가 1926년 이후 정곡면 池邱里에 거주하며 吳竝善 · 鄭完鍾 · 金雲河 등과 교류하고 있었다.[51] 또 장도훈은 원래 영월군 수주면 월현리 출신이나 횡성군 정곡면에 거주하며 천도교 敎師로서 활동하던 중 3 · 1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2년을 받았으며 1920년대에도 치열한 독립사상을 소유하고 있었다.[52]

44) 『동아일보』1925. 1.13.

45) 『동아일보』1925. 1.13.

46) 김중섭, 『형평 운동 연구』(민영사, 1994), 151면.

47) 김중섭, 『형평 운동 연구』(민영사, 1994), 221면.

48) 김중섭, 『형평 운동 연구』(민영사, 1994),

49) 「형평운동과 북풍회 주의자에 관한 건」1925. 9. 3.

50) 「1924년 관내상황」 附 요시찰인서별일람표(1924년 6월말 현재).

51) 『倭政時代人物史料』6권.

52) 『倭政時代人物史料』3권.

1920년대 횡성지역 출신의 천도교 청년으로 독립사상을 견지하고 독립운동을 추진한 대표적인 인물은 횡성청년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던 李東求였다. 이동구는 1886년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횡성면(橫城面) 영영포리(永永浦里) 420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세잔(世殘)한 집의 서자 출신인 이동구는 평등을 강조하는 천도교사상에 매료되어 입교하였던 것 같다. 그는 1918년 6월 경 강원도의 議事員에 선임된 강원도의 지도급 천도교인이었다. 횡성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그는 1921, 22년 경 횡성에서 청년구락부와 청년회를 이끌면서 한편으로 서울에서 최동희(崔東曦), 홍병기(洪秉箕), 오지영(吳知泳), 김봉국(金鳳國) 등과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사상을 천도교의 이념 아래에서 재해석하여, 권위주의적 교회제도를 개선하고 평등한 민주적 제도를 실시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의정원(議政院)이 설립되자, 그는 횡성의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혁신운동이 원로들의 반대로 실패로 귀결되자 그는 혁신운동에 참여한 동지들과 함께 1922년 말 천도교연합회를 설립하고 천도교총부로부터 분립하였다. 한편 그는 1922년 7월 14일 가회동의 최시형의 아들 崔東曦의 집에서 東學의 항일정신을 견지하는 인사들과 함께 高麗革命委員會를 결성하고 海內組織部將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53]

이동구는 최동희 등 고려혁명위원회의 위원들이 해외에 망명하여 활동하던 즈음인 1924·5년 국내에서 형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1925년 8월 최동희의 부름을 받고 만주로 갔다. 그는 10월 경 吉林, 하얼빈에서 최동희를 만나 그로부터 고려혁명당의 결성계획에 관하여 들었다. 그는 1925년 12월 경 귀국하여 김봉국에게 천도교·형평사·正義府가 합동하여 중국 땅에 고려혁명당을 조직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동구는 서울 와룡동의 형평사 중앙총본부로 吳成煥을 찾아가 이 조직의 구성원이 될 것

53) 고려혁명위원회의 결성에 관하여는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1956, 234면에 기록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임원은 顧問 李鍾勳, 委員長 洪秉箕, 副委員長 崔東曦, 秘書 宋憲, 外交部長 崔東曦, 海外 組織部長 李東洛, 海外宣傳部長 金光熙, 海內組織部長 李東求, 海內宣傳部長 金鳳國, 財政部長 朴奉允, 委員 金致甫, 康昌善, 池東燮, 金洪鍾, 姜道熙, 金文闢, 李東郁, 姜明赫, 金炳植, 孫斗星이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 위원회가 어느 곳에서 결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최익환은 이 단체가 만주 吉林省 磐石縣에서 조직되었다고 들었다고 한다. 반면에 최정간은 이 단체가 가회동의 崔東曦 自宅에서 組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 권유하였다. 그후 이동구는 吳成煥의 대리로서, 송헌의 대리자격을 띤 김봉국 · 이동락과 함께 1926년 3월 22, 23일 경 만주 吉林省 吉林城內에 도착하였다.[54] 이동구는 3월 26일 梁起鐸의 방에서 崔東曦, 梁起鐸, 吳東振, 鄭元欽, 高豁信, 李一心, 朱鎭壽, 金光熙, 李奎豊, 玄正卿, 玄益哲, 郭鍾毓, 李成桂 등과 회합하여 高麗革命黨의 결성을 모의하고[55] 동월 29일 梁起鐸의 집에서 양기탁, 李東求, 崔東曦, 李東洛, 金鳳國, 高豁信, 李一心, 주진수, 金光熙, 李奎豊, 玄正卿 등이 모여[56]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혁명당의 선언, 강령, 당칙을 작성하고 組織部, 宣傳部, 經理部, 檢查部의 집행기관을 조직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러한 협의 후 그는 1926년 4월 5일 길림에서 고려혁명당을 창당하고 책임비서에 선임되었다.[57] 이후 이동구는 1926년 11월 吉林省 阿城縣에 거주하는 유공삼을 하얼빈에 불러내어 고려혁명당의 목적을 알려 주고 입당하게 하였다.[58]

그러나 그는 고려혁명당의 활동을 오래 전개하지 못하였다. 중앙집행위원 이동락(李東洛, 천도교인)이 1926년 12월 28일 장춘(長春) 서정(曙町) 삼정목(三丁目)의 동아정미소에서 장춘경찰서원에게 체포됨으로써 고려혁명당의 조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동락의 검거로 인한 조직의 탄로로, 이동구는 결국 1927년 3월 11일에 정이형, 이동욱, 이원주, 이규풍 등과 함께 전가전(傳家甸) 13도가(道街) 112호에 위치한 조선인 경영의 농업공사(農業公司)에서 일경에게 검거되었다.[59]

이동구는 일경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다. 또한 그는 재판장에서 일제의 강압적 통치와 착취적 경제체제를 비판하고, 정치 · 경제 이론에 관하여 재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압박)과 ○○(착취)를 일삼는 이 세상에 있어서 절대의 평화 절대의 평등사회를 실현할 위대한 사명을 들고 나온 고려혁명당을 적대시하여 죄를 주겠다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라

54) 고려혁명당사건 판결문(신의주지방법원: 1928. 4.20), 理由 중 이동구 관련 부분. 이동락가출옥관계서류(138권) 내 보존, 154면, 155, 169면.

5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 1968, 58면. 오동진 예심종결전문, 1929년 12월 26일 新義州地方法院 豫審掛.

56) 1927년 고려혁명당사건 신의주지방법원 판결문. 1929년 오동진예심종결 전문에는 1926년 3월 29일에 참석한 인물이 양기탁외 9명으로 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1927년 고려혁명당 신의주지방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채택하였다. 다만 이 당시의 모임이 창당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오동진예심종결서에 의하면, 양기탁과 함께 참석한 인물들이 준비위원이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鄭元欽, 玄益哲, 吳東振, 鄭鍾毓, 李成桂 5명은 출석하지 않았다가 후에 가입하였다.

57) 김준엽 ·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4권, 122면;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대한민국공보처, 1949), 139면; 애국동지원호회, 『한국독립운동사』, 271면. 창립당시 간부진에는 위원장 양기탁, 책임비서 이동구, 위원 정이형(정원흠) · 현정경 · 오동진 · 고할신 · 이동락 · 김봉국 · 최소수 · 주진수 · 곽종육 · 현익철 · 이규풍 · (이청천 · 유동열 · 김규식 · 김좌진) 등이었다.

58) 고려혁명당사건 판결문, 156, 157면.

고 말할 정도의 당당함을 가졌다.[60]

그는 재판에서 징역 7년의 구형을 받았으나 최종 징역 5년(미결구류 200일 通算)을 받았다. 1932년 10월 만기출옥 한 이동구는 옥고로 인한 신병으로 계속 고생하다가 1933년 10월 7일 신당리(新堂里) 16번지에 위치한 천도교 同德이면서 형평사와 고려혁명당의 동지인 유공삼(柳公三)의 자택에서 47세로 사망하였다.[61]

59) 『在滿不逞團 社會主義團體의 狀況』, 1928. 3, 9-10면. 金俊燁 金昌順 공저, 『韓國共產主義運動史』 제4권, 청계연구소, 1986, 126면에서 재인용.

60) 『조선일보』1928. 3.10.

61) 『동아일보』1933.10.10.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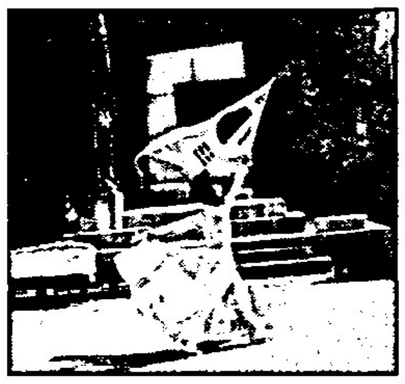
횡성지역의 청년들은 3 · 1운동 후 횡성청년구락부를 조직하였다가 1921년 횡성청년회를 조직하였다.

횡성청년회는 천도교인 이동구, 기독교인 조근영과 동아일보 횡성분국장인 趙轍九 · 金龍在 등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것의 활동을 횡성군내의 군수와 면장 등의 관헌들이 후원하였다.

횡성청년회는 강연회를 통해 청년 등 인간의 각성과 개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횡성청년회는 횡성소년회, 횡성노농회, 형평사 횡성분국 등을 지도하고 이 구성원들을 계몽하였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의 대다수가 소작농으로서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성과 교육'을 강조하는 문화운동은 농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따라서 횡성청년회의 활동은 1920년대 중반 문화운동의 전반적인 퇴조와 함께 점차 위축되어갔다.

횡성청년회의 문화운동이 한계에 직면할 즈음인 1923년 횡성지역의 李東壽 등은 횡성노농회를 조직하였다. 설립 초기 횡성노농회는 농민들의 계몽과 농민들의 경제적 소득 향상, 개량적인 농민문제의 해결 등에 치중하였다. 횡성노농회는 그 조직이 농민 중심이 아닌 지식인 중심의 조직이었으므로 농



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자 이동수 등은 1926년 횡성노농회의 혁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농민의 참여와 농민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동수 등은 1928년 4월 횡성노농회를 해체하고 중앙집권적인 횡성노농동맹을 창립하였다.

횡성노농동맹은 지식인 중심의 조직에서 탈피한 농민들의 참여가 이루진 조직이었다. 횡성노농동맹은 농민의 계몽과 농민문제를 개량적으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단일당 구성 촉진의 건, 신간회와 근우회 지지의 건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노동조건과 임금조건과 같은 노동문제, 소작료 · 경작권과 같은 소작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횡성노동동맹은 과거 횡성노농회의 주도인물인 尹泰煥 등의 반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소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횡성지역의 학생들은 1922년 동맹휴교를 실시하여 일본인 교사의 한인차별 등에 항의하였다. 그리고, 횡성의 吉萬學과 李東求는 1924년 형평사 횡성분국을 조직하고 형평사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횡성지역의 3 · 1운동시 크게 기여한 천도교인들은 항일적 민족운동을 지속하여 나아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구였다. 그는 1922년 최동희 등 동학의 항일정신을 견지하는 인물들과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해내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는 1925년 말에서 1926년 초 만주의 최동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천도교연합회원과 형평사원을 견인하여 1926년 4월 5일 길림에서 천도교연합회 · 형평사 · 正義府의 삼각동맹인 高麗革命黨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책임비서로 활동하였다.

횡성「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 방안

- 의병 · 독립운동 관련 유 · 무형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채 용 식 / 송호대학 교수

제 1 장 시작하면서
제1절.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의 이론적 기초
제 1절. 문화와 애국의 고장
제 2절. 문화와「애국의 고장」문화유산
제 3절.「애국의 고장」과 문화관광자원의 의의 및 개념
1. 문화관광자원의 의의
2. 문화관광자원개발의 개념
3. 문화관광자원개발의 효과

제 3 장 횡성지역의 문화유산 현황과 문제점
제 1절. 현대적 조류와 지리적 위치
제 2절. 역사 문화관광자원의 현황
1. 현황
2. 문제점
제 3절.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적 요소

제 4 장「애국의 고장」문화관광상품화 방안
제 1절.「애국의 고장」에 대한 관광상품화의 의미
제 2절.「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위한 기본 컨셉
제 3절.「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 방안

제 5 장「애국의 고장」 문화관광상품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 1절. 애국의 고장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
제 2절.「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특별관심관광(SIT)자원화

제 6 장 결어 : 횡성지역 문화유산의 발전과제

제 1 장 시작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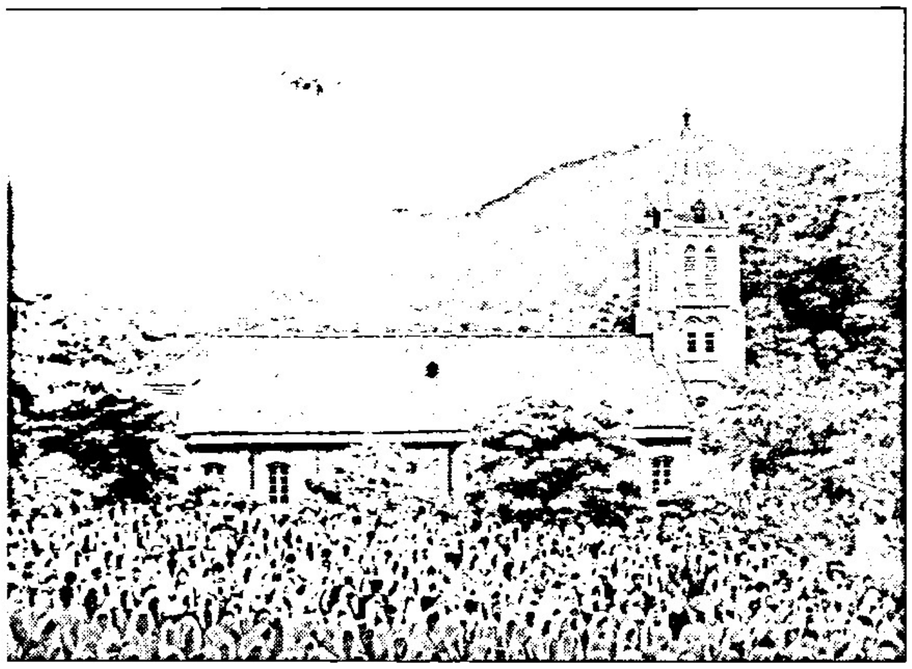
제1절.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

바람직한 횡성인의 삶의 양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횡성지역의 문화, 역사, 전통, 제도 및 문물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건전하고 자신 있는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을 통한 소비욕구가 높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화적 가치는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이미지 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은 당해 주민들이 지닌 문화적 전통과 뿌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자리하게 될 경우 담보될 수 있으며, 문화적 공동체와 유대감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주민통합과 너와 나의 벽을 허무는 동아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 따라서 횡성지역 유·무형의 정신적 문화유산의 탱주는 동학혁명, 의병운동 그리고 3·1독립운동을 거치면서 현대적 의미의 정체성(identity)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은 하나의 유물이나 역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횡성지역주민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공유문화이며,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기층문화로서 철학과 가치관의 뿌리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횡성지역의 뿌리를 찾는 역사학습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역주민으로서는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병행작업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지역주민들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아가는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애국의 고장」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는 유·무형의 정신문화유산을 후대에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선



풍수원성당

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횡성지역의 자랑스러운 뿌리역사를 발굴 · 전승 · 성장시키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의 하나가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이며, 과거 · 현재 · 미래를 공존시킬 수 있는 합목적적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범위는 20세기 초반 횡성 3 · 1독립운동을 정점으로 형성된 선조들의 항일 애국정신과 관련유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박힌 횡성「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에 한정키로 한다. 또한 구한말 이전에 있어왔던 애국 애족과 관련된 각종의 역사적인 사건을 포함으로써 횡성지역의 뿌리나 문화, 전통, 역사성,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광의적으로 다루었다.

한편 시간범위를 일제의 탄압에 분연히 항거한 3 · 1독립운동 만세사건을 전후로 설정한 것은 횡성지역의 애국지사들이 보여주었던 역사적 교훈이야말로 횡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문화 뿌리요, 정서요, 바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방법은 우선「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와 관련된 국내 · 외의 諸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문헌조사(data research)와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방법(descriptive method)을 병행 · 실시하였다.

제 2 장 「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의 이론적 기초



제1절. 문화와 애국의 고장

문화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박을 수는 없으나, 대개의 경우 어떤 집단이나 민족이 공유하는 의식 내지는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견해를 요약 ·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적인 의미로는 "同 세대 내에 존재하거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민족이나 집단의 사상 · 관습 · 기술 · 예술 등의 총체"를 의미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크라크혼(C. Kluckhohn)은 "문화는 후천적 ·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외면적 · 내면적인 생활양식의 총체이며, 집단 전원 또는 특정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으며, 로이(R. H. Lowie)는 "문화는 사회 전통의 총체이며,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문화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보통 "집단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제 2절. 문화와「애국의 고장」문화유산

문화의 개념과 아울러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상관관계를 규명코자 한다. 일반적으로 유산이라는 뜻은 "계승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것으로서, 이는 한 사회의 문화적 전통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1]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앞에서 살펴본 문화와 문화유산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굳이 구별해 본다면 문화가 공유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문화유산은 전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와 문화유산의 개념이 상호 독립된 내용이 아닌 동

1) 1983년 국가유산회의에서는 유산을 "과거 세대가 보존하고 현재에 물려준 것이며, 미래에 물려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일선상에서 불가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횡성 「애국의 고장」이라는 문화유산은 횡성지역 주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현대사의 뿌리문화이며, 이를 후대들에게 전승시켜줌으로써 문화적 자긍심과 우월감을 갖게 해 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며, 또한 정신적 지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identity)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 3절. 「애국의 고장」과 문화관광자원의 의의 및 개념

1. 문화관광자원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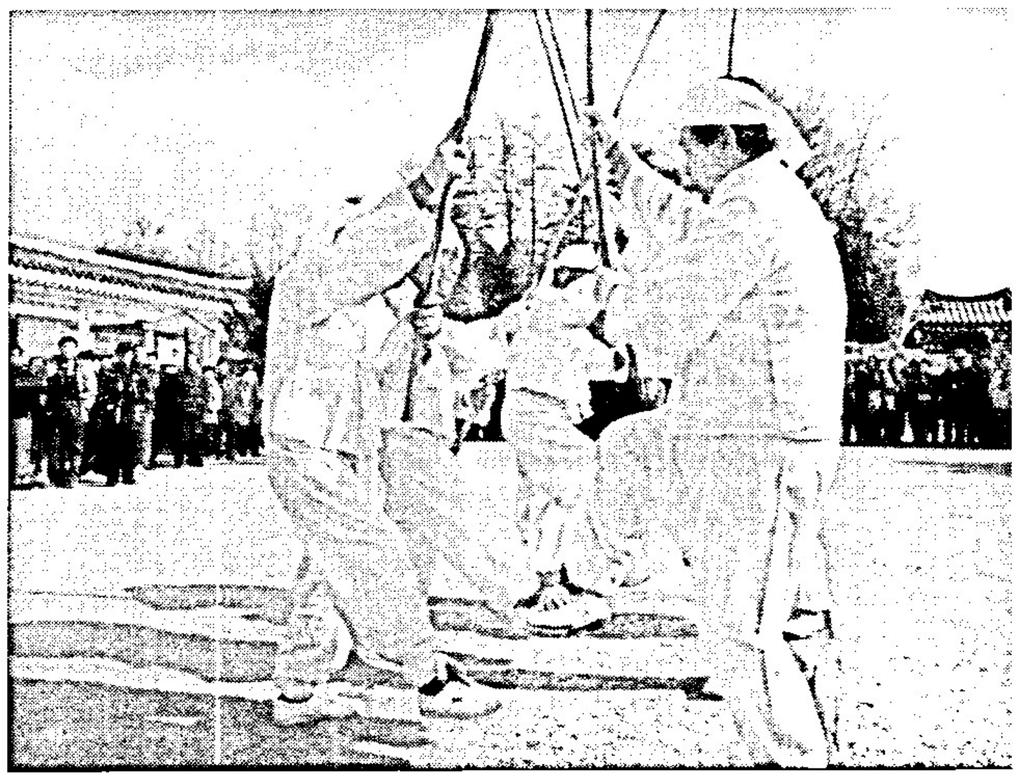
관광자원에 대한 개념규정은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의 목적, 관광자원의 대상범위, 관광자원의 기본적 성격, 관광자원의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국내학자의 경우, 이장춘 교수는 "인간의 관광동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태계 내의 유 · 무형의 諸자원으로서 보존, 보호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할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김성기 교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관광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요인 및 요소들의 총체"로서 관광목적 중심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외국의 경우, 津田昇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이 그 관광동기 내지 관광의욕의 목적물로 삼는 관광대상이다."라고 하여 관광자원의 개념요소를 목적과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小谷達男은 "관광상의 諸효과를 창출하는 자원으로서 개발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기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문화관광자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문화관광자원은 관광객의 관광대상으로서 민족문화 유산이어야 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고,



횡성회다지

관광매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지역문화의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예술적, 학술적, 관광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관광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욕구충족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문화관광자원은 분류기준에 따라서 문화 · 교육 · 사회시설을 사회적 관광자원에 포함시킨 학자도 있고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극장, 문화회관 등은 문화관광자원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대학, 호텔 등 교육사회시설은 사회관광자원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박물관 이외의 현대적 문화시설(미술관, 문화회관, 극장, 음악관)도 문화관광자원의 범주에 해당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자원은 관광대상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문화유산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문화관광자원은 관광의 가치인 예술성, 학술성, 역사성, 체험성, 놀이성 등이 존재해야 한다. 즉, 문화관광자원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문화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예술적 창조성을 비교 · 감상 · 비판하는 대상이 되어야 관광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 분석해 볼 때 횡성「애국의 고장」은 지역의 뿌리문화, 기층문화이며, 동시에 문화유산으로서 문화관광자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매력을 지닌 자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문화관광자원개발의 개념

개발이란 일반적으로 창조적 과정 또는 의도적인 변화로서 주어진 현상에 대한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보다 나은 현상을 창조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부터 한층 더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이며, 이는 의도적 · 계획적인 변화이다'라고 주장하여

개발의 계획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애국의 고장」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자원개발은 개발의 개념과 문화관광자원의 개념을 합쳐 생성해 낼 수 있다. 즉 인간의 관광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문화자원으로서 보존 · 보호하지 않으면 가치가 상실되거나 소멸할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에,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보다 나은 현상인 문화관광자원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크게 개발대상, 개발행위, 개발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문화관광자원개발의 효과

문화관광자원개발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으나, 다음의 <표 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은 관광동기[2] 측면에서 볼 때, 관광객은 관광을 통하여 심신의 휴식과 자기실현, 교육문화적 동기 등에 크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애국의 고장」은 문화관광자원으로서 문화적 동기와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큰 자원이며, 창조적인 개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횡성군은
제 5년차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관조성 횡성 8경[3]에 「애국의 고장」마을 조성이 지금의 횡성지역 경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2-1〉「애국의 고장」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자원개발의 효과

2) J. Thomas는 중요한 관광동기를 다음과 같이 18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교육문화적 동기(타국의 견문확대, 명소감상, 새로운 것의 이해, 특별행사의 참여), 둘째, 휴식과 즐거움 동기(일상성 탈피, 즐거운 시간향유, 낭만적 경험추구), 셋째, 종족지향적 동기(조상의 생활터 방문, 종족의 묘지방문), 넷째, 기타 동기(기후, 건강, 스포츠, 경제, 모험, 우월성, 동조, 역사체험, 세상을 알고자 하는 욕망 등이다. 또한 McIntosh는 인간의 기본적 관광동기를 신체적 동기, 문화적 동기, 대인적 동기 및 지위 · 위광적 동기 등으로 나누면서 문화적 동기의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3) 경관조성 횡성 8경은 병지방계곡, 태종대(부곡계곡), 삼형제바위, 풍수원성당, 횡성온천, 횡성장날, 안흥찐빵 마을, 횡성댐 등으로 선정하였다.(횡성군, 『2004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2005)

효 과	내 용	접 근 방 안
교육 · 문화적 동기충족	❖ 관광대상물을 통한 문화적 · 사회적 특성을 경험 ❖ 문화적 동기와 교육적 동기를 충족	관광동기 자극 ↓
leisure-time 활용의 목적(5都 2村)	❖ 여가시간의 증대(주 5일 근무제)와 다양성 확대 ❖ 문화자체를 교육과 문화적 성취 이상으로 간주 ❖ 참여를 통한 관광목적 실현	여가와 문화적 소비의 역할 증대 ↓
이질문화에 대한 체험의 목적	❖ 이질문화에 대한 경험 ❖ 관광기념품, 전통공예품구입, 전통공연물참가,의식주경험 ❖ 관광목적 실현	특화 문화관광개발의 필요성 대두 ↓
자기실현의 욕구충족	❖ 관광객은 관광지의 문화관광자원을 동경 ❖ 자기실현 욕구충족	「애국의 고장」 관광상품화 ↓

※ 자료 : 연구자 작성

제 3 장 횡성지역의 문화유산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현대적 조류와 지리적 위치



횡성댐

횡성군은 고속도로 및 국도의 확 · 포장에 따라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도권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의 분산 및 산업유치에 유리한 지역이다. 더욱이 동서남북 교차점인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개발전략에 따라 우리나라 제 1일의 휴양 · 관광목적지인 강원도 동해안으로 향하는 중간기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확대실시와 5都 2村의 새로운 소비형태 출현으로 녹색농촌관광의 관광목적지로서 부상되는 지역이다.

더욱이 횡성군은 산악고원관광지대로서의 특징과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면형 · 내륙형 관광자원으로서 섬강유원지, 횡성호유원지, 병지방계곡, 청태산 휴양림 등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환경자원이 있다. 또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개, 횡성민속장, 한얼문화예술관, 정금문화마을, 한우축제, 태기문화제 및 「애국의 고장」과 같은 문화관광자원과 더덕, 찐방, 한우 등 지역특산물과 한우프라자 등의 먹

거리 자원을 갖고 있다.

한편 횡성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청정한 농산촌지역을 배경으로 한 관광농산촌과 그린투어리즘(농박+농원+휴양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녹색농촌관광자원의 寶庫로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수려한 諸관광자원과 접근성의 우위확보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반시설의 미확충, 관광지간 연계성 미흡, 다양한 관광상품과 관광매력물 부재 등으로 인해 머무르는 관광목적지가 아닌 경유하는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어 관광산업의 諸효과가 지역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횡성지역과 가장 부합될 수 있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 웰빙시대를 주도해 가면서 새로운 경험과 모험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휴양목적지, 자립형 녹색농촌도시 조성을 통한 도농교류의 활성화, 태기문화제 · 한우축제와 같은 신규 관광매력물 창출 등에 대한 지역혁신주체들의 역량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통합적인 관광마케팅 활동, 포로시장(captive market) 조성,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개발에 대한 연구 ·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횡성의 부존자원인 어메니티(amenity)자원에 대한 플래닝을 구상함에 있어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문화관광자원과의 접목을 고려해 볼 때, 이색적인 유 ·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자료조사와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기획 연출을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종대

제 2절. 역사 문화관광자원의 현황

1. 현황

횡성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

재는 서원면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서식처가 있으며, 그 밖에 강원도가 지정하는 각종의 유 · 무형의 문화재가 있다.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로는 갑천면 중금리 3층석탑, 공근면 상동리 석불좌상, 횡성읍 읍하리 석불좌상, 서원면 풍수원 성당(1907년 정규하 신부가 건립한 도내 최초의 성당이며, 전국적으로 4번째로 세운 성지임.), 청일면 신대리 3층석탑, 공근면 매곡리 육절여, 횡성읍 정암3리 문정공 조충장군 지석 등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는 횡성회다지소리와 장송모도자연구원<표 3-1 참조>과 운암정, 횡성향교 등 문화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표 3-1〉 횡성군 지정 문화재 현황

구 분	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 료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 념 물	
전 체	17	1	13	10	2	1	3
횡성읍	5	-	3	3	-	-	2
우천면	1	-	1	-	1	-	-
안흥면	-	-	-	-	-	-	-
둔내면	1	-	1	-	-	1	-
갑천면	2	-	2	2	-	-	-
청일면	1	-	1	1	-	-	-
공근면	4	-	4	3	1	-	-
서원면	2	1	1	1	-	-	-
강림면	1	-	-	-	-	-	1

※ 자료: 횡성군, 횡성군 통계연보, 2004 참고.

향토문화유적자원으로는 횡성읍 읍하리 태풍루, 갑천면 구방리 화성정, 서원면 압곡리 취석정, 청일면 신대리 봉복사, 둔내면 화동리 태기산성, 횡성읍 남산리 보광사 등과 효열유적은 횡성읍 정암2리 이미문(열녀 김복이문), 둔내면 화동2리 효자각(안광근 효자각), 갑천면 포동1리 열려문(강릉 김씨 정려문), 추동리 정문(곽채상 효행), 갑천면 중금리 이원빈, 이풍용 효자문, 공근면 부청리 청원각(유봉수 효자각) 등이 있다.

한편 횡성군은 매년 4월 1일 횡성군민의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군민만세운동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애국의 고장」으로서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선열들의 기개와 불굴의 의지

에 감사하며 숭고한 뿌리 문화를 발굴 · 전승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형의 문화유산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면, 3 · 1독립운동관련 애국자원(3 · 1운동 기념비,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 김순이 여사 묘 등)과 의병애국자원[한상열 의병장 유적(우천면 문암리), 최양옥 지사 공적비(갑천면 추동리), 금대리 의병총(서원면), 강림리 의병총(강림면)] 및 국난 극복 문화유산(네델란드 참전기념비, M · P 오우엔 중령현충비, 충혼탑) 등을 들 수 있다.

2. 문제점

「애국의 고장」을 문화관광상품화로 개발함에 있어 그 접근방식이나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관광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소구력과 매력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동시에 확충되어야 하나, 우리지역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지역주민들이 「애국의 고장」이라는 문화유산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 주로 역사학자들의 연구 작업에 크게 의존하는 결과, 소수의 몇몇 계층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

셋째, 문화관광상품화로 개발되지 못한 결과 지역의 관광코스설정에 배제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문화관광활동에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

넷째,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의 실패와 체험상품 개발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

다섯째, 지역문화의 연계 관광상품화에 대한 기획과 연출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

여섯째,「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유산해설사와 해설체계가 전무하다는 점

일곱째,「애국의 고장」 등 지역관광정보의 생산 · 홍보 · 판매



횡성5일장

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부족과 홍보활동 프로그램의 열악성, 방문객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관련부스의 개설도 눈에 띠지 않는다는 점

여덟째, 관련단체나 기관 등도 크게 협조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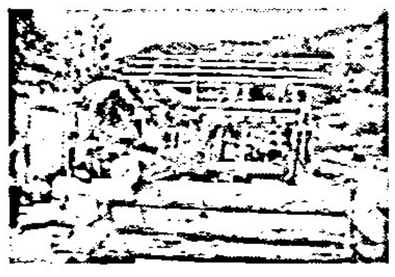
제 3절.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적 요소



청태산휴양림

횡성지역은 청정한 자연과 맑은 숲 · 물, 때묻지 않은 諸환경, 한우 · 더덕 · 애국의 고장, 한우축제, 안흥찐빵마을축제 그리고 양호한 접근성 등으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농촌 위주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비도시적인 색채와 이미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 가장 한국적인 전원의 풍경이나 목가적인 분위기 및 각종의 특화산업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 21세기 국난극복을 위해 분연히 일제에 항거했던 선열들의 얼이 서린 유서 깊은 곳이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상품화로 패키지화해 나아간다면 횡성의 부가가치창출과 지역이미지 제고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원들을 각 읍 · 면에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누가, 누구를 위하여, 어떤 특성화된 요소를 선택하여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21세기 우리 횡성지역을 선진복지사회로 인도해 가는 지렛대(lever)가 될 것이다.



한국통나무학교

「애국의 고장」문화관광상품화는 위에서 제기한 횡성지역 발전의 동력원으로서 읍 · 면간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단조로움을 극복해 가면서 다양한 관광활동거리를 제공케 하는 지역혁신사업 중 하나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정책으로 관리 · 지도해 나아간다면, 「아름답고 개성있는 횡성」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관광사업의 성공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인근 유명관광목적지와의 연계

성과 이용의 편리성이며, 이를 여하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광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횡성군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4)]

4) 횡성군은 현대성우리조트, 관광펜션리조트가 입지하고 있으며, 향후 골프랜드, 썬밸리골프장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력물과 연계가 용이하여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한 관광목적지로 부상 하고 있다.

제 4 장「애국의 고장」문화관광상품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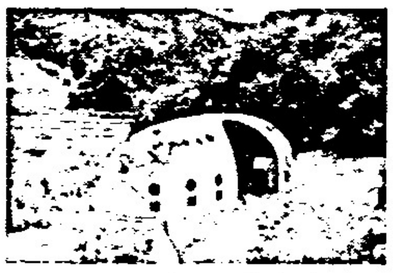
제 1절.「애국의 고장」에 대한 관광상품화의 의미

관광상품화의 개념을 파악해 보면, 광의적으로는 관광객이 집을 떠나 경험하는 행사는 모든 대상을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특정행위의 대상을 관광객의 기호나 취향, 욕구에 부응하게끔 상품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국의 고장」문화유산은 우리지역의 전통과 역사, 뿌리문화 및 정체성을 발현케 하며, 내외적으로 자부심을 갖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간의 결속력과 인화 단결을 주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방문객간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21세기형 문화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관광상품화하여 매력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관광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목적지로 탈바꿈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제 2절.「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위한 기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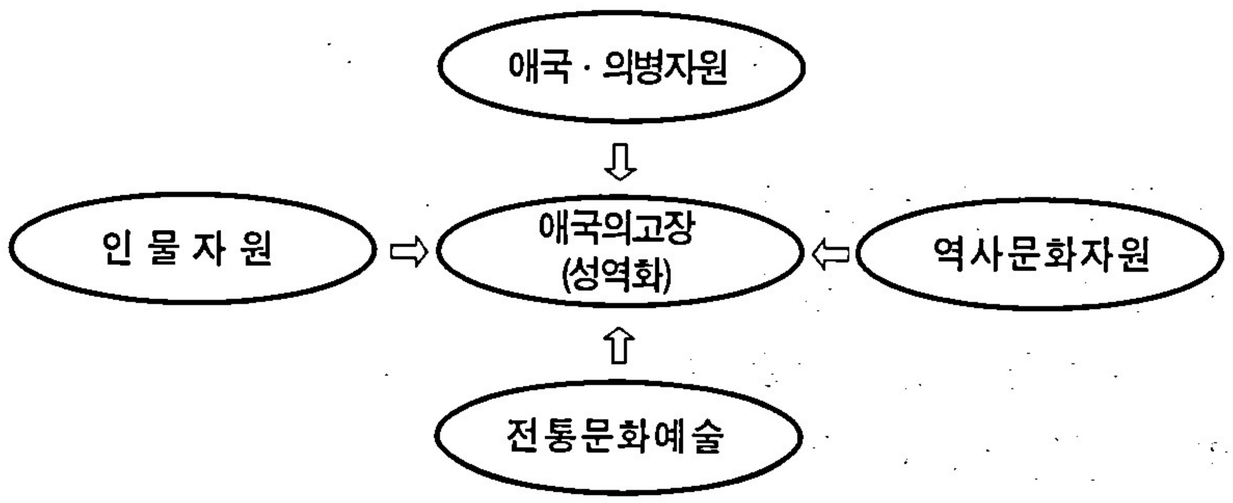
「애국의 고장」문화유산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주 설정과 기본컨셉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범주설정으로는 첫째, 3 · 1독립운동관련 애국자원은 3 · 1운동 기념비,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 묘 등의 성역화 자원이며, 둘째, 의병애국자원은 한상열 의병장 유적(우천면 문암리), 최양옥 지


홀로세생태학교

사 공적비(갑천면 추동리), 금대리 의병총(서원면), 강림리 의병총(강림면) 등이며, 셋째, 역사자원은 횡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 · 무형의 역사 · 문화 · 교육 · 자원을 「애국의 고장」문화유산과 접목하는 것이며, 넷째, 인적자원으로는 역사적인 인물을 상품화(김순이 여사 등)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애국의 고장이 특화 문화관광상품으로 기획 연출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과 검증 절차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고,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 · 무형의 諸자원이 더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횡성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인벤토리 작업을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발굴 · 조성하여 문화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기틀과 여건을 만들고, 각각의 문화관광자원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역문화 예술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해 본다면 애국의 고장은 결국 횡성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한 가장 대표적인 문화지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특화개발유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인 문화인프라, 체험형 역사문화활동 및 프로그램개발, 전통문화 퍼포먼스 공연장, 문화경관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림 4-1 참조>

〈그림 4-1〉「애국의 고장」개발의 유형 및 기본컨셉



※ 자료: 연구자 작성

64 여사매

제 3절. 「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 방안

상기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횡성지역의 대표적인 21세기형 특화관광자원으로서「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애국의 고장이 문화관광상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접근성과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 급선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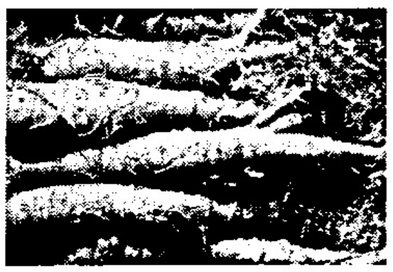
횡성지역은 경기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양호한 접근성이 확보하고 있어, 이색적이고 생경한 문화관광상품이 새로이 개발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숙박 · 레저 · 편의시설에 대한 인프라구축은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상이지만 횡성지역의 인프라시설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 지며, 향후 중 · 저가 숙박시설이나 관광펜션 등이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추진되어 문화활동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근의 유명관광자원인 리조트를 비롯하여 온천, 강원참숯, 별, 도자, 생태 등과의 연계패키지 상품을 보다 더 밀도 있게 개발하여 관광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둘째, 애국의 고장에 대한 문화관광상품화의 근본적인 취지는 횡성지역이 갖고 있는 뿌리문화를 상품화하여 볼거리가 빈약한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광매력물을 조성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외지방문객들에게는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교육 · 문화적 관광동기를 충족해 줌과 동시에 다양한 관광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치악산 부곡계곡



횡성더덕


횡성관광종합사격장

셋째, 애국의 고장을 비롯하여 횡성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행정체제가 보다 과학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체제도 보다 긴밀히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방정부마다 문화관광자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취약한 지방재정이나 전문인력 부족, 기획력과 연출방법의 미흡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외 관광객이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안내 · 예약시스템의 구축이나 도로안내표지판 및 지도 등의 보완 · 개선책도 뒤따라야 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국어 · 외국어의 안내표지판 등도 형태와 디자인 등에서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애국의 고장」이 문화지구 유형으로 개발된다면, 문화유산해설사의 상시 고용이 요청되는 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의무교육과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해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횡성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송호대학 평생교육원에 문화유산해설사 과정을 개설하여 규모에 맞는 알찬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섯째, 횡성문화원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인력과 재정적인 뒷받침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안흥찐빵

횡성문화원은 횡성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의 연구작업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문화를 집대성하고 있는 관련단체로서, 애국의 고장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郡차원의 가칭 【횡성 애국의 고장 문화관광상품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문화관련 지역혁신 주체세력들을 총결집하여 지혜를 모으고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여섯째,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의 기여 방안이다.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문화유산 자체만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축제나 이벤트, 지역특산물과 함께 연계 홍보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애국의 고장」문화유산은 위의 내용과 접목될 경우, 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부각될 수 있어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횡성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색 있는 지역이미지(city identity)에 대한 통일화 요구 즉, 횡성군의 지역 이미지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횡성하면 쉽게 무엇인가가 연상될 수 있는 이미지 통일화가 필요하며(현재 미시적인 측면에서 지역특산물인 한우, 더덕, 찐빵 등), 횡성군의 도시이미지를 매력 있게 · 기억되게 · 머리 속에 남게 · 오래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애국의 도시로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 요망되며, 이는 모방불가의 이미지로 상품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횡성칠기

제 5 장「애국의 고장」문화관광상품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 1절. 애국의 고장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

21세기 버팀목 산업이자 지역개발의 정책수단으로 등장한 관광산업은 국제간 · 지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나 나침반 및 솔루션(Solution)을 설계 · 제시해야 한다.

이런 바탕에서 특성화 · 차별화 · 지방의 논리와 같은 비규격화된 이념들이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문화관광개발을 추구하려는 지방정부의 적응논리와 차별화 시도는 생존의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타 지방자치 단체와 비교하여 차별화 되거나 고유하고 독특한 소재를 이용한 관광상품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실패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특히 21세기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와 지방정부의 발상의 전환 및 전략적 사고를 모색해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문화관광상품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총체적 기획 · 연출 · 사고가 필요하다. 지방화시대의 관광상품화는 당연히 지방정부와 해당전문가 · 지역혁신주체 및 주민들이 주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관광시대에 기초한 유 · 무형의 신규관광상품개발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광상품화 방안과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셋째, 참여지향적인 풍토를 조성하고, 혁신마인드에 기초하여 현장성을 반영한 유 ·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와 유명관광자원과의 연계 ·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에는 소요예산의 투자도 요구되지만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는 관광상품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애국의 고장」이라는 독특한 지방색을 연출하여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동일한 것이더라도 타 지역과는 무엇인가 차이가 나는 그 지역 고유성이 강조될 때, 관광객은 확실한 추억을 만들게 되고 색다른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재방문자가 되어 다시 찾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5]

여섯째, 횡성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은 우리지역의 고유문화, 전통예술,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색적인 매력이 문화관광산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관광은 그 사회 구성원의 생생한 사회문화적 표현이 매력이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애국

5) 한 예로써 강원도 하면 감자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화, 충청도 하면 양반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화, 경상도 하면 보리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화 등 지역적인 색채를 활용한 고감도의 관광상품개발은 지방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 고장」은 문화지구조성의 유사개발형태로 접근하게 될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지며, 경쟁의 논리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모방이나 아류와 같은 관광자원은 진한 감동을 줄 수 없고, 그 지역만의 관광철학이나 문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일회성 관광매력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일곱째, 횡성지역의 의병운동이나 3 · 1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 · 문화자원을 특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흡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애국의 고장」문화유산과 주변관광지와의 연계관광상품화, 지역축제이벤트와 연계한 체험관광상품화, 애국운동과 관련된 참여관광상품화 및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교육관광상품화 등을 여하히 수행할 있느냐가 관건이다.

여덟째,【애국의 고장】을 다양한 연계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관광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하며, 횡성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코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체험형 연계관광코스 : 장송모도자연구원-3 · 1공원【애국의 고장】-횡성민속장-한얼문화예술관-정금문화마을-횡성칠기단지-팜스테이

자연생태형 연계관광코스 : 우리별천문대-횡성댐-3 · 1공원【애국의 고장】-홀로세생태학교-천문인마을-한국통나무학교-응양원 -강림소수력발전소-팜스테이

역사교육형 연계관광코스 : 풍수원성당-3 · 1공원【애국의 고장】- 우시장-SBS드라마세트장-민족사관고등학교-태종대-팜스테이(마을콘도, 관광펜션)

웰빙형 연계관광코스 : 3 · 1공원【애국의 고장】-한우프라자-더덕마을-안흥찐빵마을-강원참숯사우나-온천관광-관광농원-팜스테이

등반형 연계관광코스 : 3 · 1공원【애국의 고장】- 어답산-청태산 -태기산-치악산국립공원-팜스테이

마지막으로 아무리 훌륭한 유 · 무형의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이나 상품화가 불가능하다면 관광을 통한 재생산이나 지역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관광의 활성화와 관광수요자 중



장송모 도자연구원

심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위해 톡톡 튀는 신사고의 발상이나 사고기술이 요구된다.

제 2절.「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특별관심관광(SIT)[6]자원화

횡성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내외 방문객들에 대한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SIT상품 개발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는 바, 향후 개발 가능한 SIT 분야를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5-1>과 같으며, 이러한 개발 가능한 분야에 대한 SIT상품은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대상 아이템과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상품판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1〉 횡성지역의 SIT 개발가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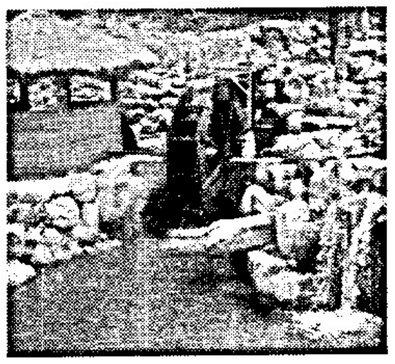
구 분	유망SIT상품개발(안)	세 부 내 용
역사문화 체험관광	· 동학의병 역사 기행 · 장송모도자연구원 도예체험여행 · 3·1운동관련 애국의 고장 방문여행 · 횡성 금석문 탐사 · 퍼포먼스공연	초, 중,고교 대학생 등 대상 관광분야 전공자 및 관심대상자 도예분야 〃 역사분야 〃 가족단위 및 특별관심분야 방문객
예술문화 유적관광	· 먹거리 맛보기 여행 · 태기왕국 유적지 관광 · 관광문화축제 참여관광	향토별미+음식문화 설명 문화재 감상 민속+음식+참여+이벤트
자연 생태관광	· 원시림 계곡 트래킹 관광 · 토종동식물(나비,쇠똥구리)생태관광 · 별나라 여행 · 녹색농촌체험, 관광농촌체험 등	부곡계곡, 성바위계곡 여행 생태학교 방문 우리별 천문대, 천문인 마을, 별똥별캠프 농촌과 어메니티자원 활용
스포츠관광	· 스키관광/골프관광 등	연습, 시합, 사교 등 목적
건강관광	· 온천욕관광 · 웰빙관광 · 더덕, 한우, 약초 효능체험관광 · 등반관광 등	온천욕으로 건강 치료기능 향상 장수마을과 웰빙식품을 통한 건강증진 〃 어답산, 태기산 등

※ 자료: 연구자 작성.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 검토해 보면, 우선 개발 가능한

6) SIT상품은 일반적으로 활동적 · 참여적 · 경험적 · 교육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흔히 활동적 관광(active tourism), 체험적 관광(experimental tourism), 질적 관광(quality tourism), 유목적 관광(travel with a purpose), 진지한 관광(serious leisure)이라고도 한다.

SIT상품 아이템은 횡성지역의 독특한 역사, 문화유산, 종교, 예술분야 그리고 생태 자연환경을 특화시켜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다음으로는 각각의 SIT상품 아이템에 축제 이벤트 요소를 철저하게 결부시켜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횡성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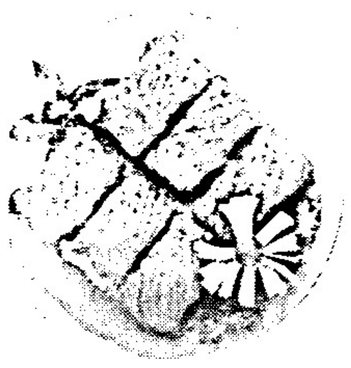
제 6 장 결어 : 횡성지역 문화유산의 발전과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가 인간의 중요한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도 이러한 점에 착상되어야만 관광객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21세기 인간형은 감성을 추구하며, 이미지적인 색채를 뚜렷하게 표현하며, 또한 상징성을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애국의 고장」문화유산에 대한 발전과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인간의 성장형 모델과 부합될 수 있는 측면에서 새로이 규명되어야 횡성지역 문화관광의 매력도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동안 횡성지역에서 수행되었던 각종의 관광개발사업과 비교해 볼 때, 주로 자연자원 위주의 관광개발이나 하드웨어측면의 관광개발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이나 투자계획 등은 지금까지도 매우 인색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횡성지역의 문화관광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횡성다움을 보여주는 뿌리문화나 정신문화유산과 관광의 접점을 찾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 · 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가장 횡성다운 문화관광상품개



횡성한우

발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유구한 역사, 뿌리, 정서, 그리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 · 상품화함으로서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는 잠재관광수요자의 소비욕구에 부합하여 횡성을 관광목적지로 인식케 함은 물론 다양한 관광활동을 증진시켜줌으로서 횡성지역 관광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한 일례로서 문화관광 대국이라 일컫는 프랑스는 예술관련 관광객이 6,000만 명을 넘고, 스페인은 고적관련 관광객이 4,0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는 사실은 횡성지역 문화관광분야가 타 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선진좌표라고 판단된다.

둘째,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과 호기심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유 · 무형의 문화관광자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셋째,「애국의 고장」문화유산, 구비문학, 전통 종교문화 및 민속신앙 등에 대한 諸요소를 관광상품화하는 것은 물론 농악, 회다지소리, 노동요, 설화 등을 관광에 접목하여 체계적인 기획연출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타 지방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넷째, 생활문화인 전통음식, 사투리, 제례 등 고유문화를 관광소재로 개발하고 특화 관광시설 확충과 아울러 특색 있는 관광 Software개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고객감동 위주의 서비스 예절을 습득하여 최고의 환대서비스로 관광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참고문헌

- 김홍윤,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관광학 연구」제 12호, 1988.
- 경남, 경남문화유산해설사, 2003.

- 안경모,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4.
- 원융희, 관광이미지, 서울 : 백산출판사, 2003.
- 이장춘, 관광부국의 비전, 서울 : 대왕사, 2002.
- 채용식, 횡성한우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 2004.
- 채용식, 지역축제 · 이벤트의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2003.
- 채용식, 관광축제이벤트론, 학문사, 2001.
- 채용식,"21세기 횡성지역의 관광 · 리조트개발에 대한 정책구상,", 2002.
- 채용식,"지역특구지정과 횡성지역 관광특화마을 조성 방안, 2003.
- 채용식,"횡성(웰빙)한우축제의 관광상품화 방안,", 2004.
- 채용식,"농산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광펜션정책과 바람직한 방향,"2004.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유산 관광상품화 방안, 1997.
- 횡성문화원, 사진으로 보는 횡성의 문화유산, 2000.
- 횡성문화원, 횡성금석문대관, 횡성문화원, 2004.
- 횡성문화원, 어사매(제 19호), 2004.
- 횡성문화원, 횡성의 구비문학 Ⅰ · Ⅱ, 2004.
- 횡성군, 지역종합개발계획, 1999.
- 횡성군,『2004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2005.
- 횡성군, 한우문화촌조성사업, 2005.

Ⅲ. 향토인물탐구

- 운곡 원천석
- 삽교 안석경

운곡 원천석

이 일 영 / 횡성문화원장

1. 운곡 원천석 선생의 생애와 학문 그리고 사상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선생은 1330년(고려 충숙왕 17년) 7월 8일 개성에서 출생하여 90여 년 동안 살았다. 본관은 원주(原州) 자(子)는 자정(子正), 호는 운곡(耘谷)이다. 정용별장(精甬別將) 원열(元悅)의 손자이고, 종부사령(宗簿寺令) 원윤적(元允迪)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명(才名)이 있었으며, 자라면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문장으로 널리 알려졌고 도의(道義)가 높았다.

초기에는 과거에 응시하여 중앙관직에 진출하려는 꿈을 가지고 1355년(공민왕 4년) 그의 나이 26세 때 국자감시(國子監試)에 응시하여 합격 국자감진사(國子監進士)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부역과 병역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당시 고려 말의 정치사는 문란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고려 말 두 기둥인 최영 장군이 참형되고 정몽주가 살해되는 등 충신들이 쓰러졌다.

운곡은 개혁정치지론을 가지고 개혁정치 시대에는 구관의욕(求官意慾)이 있었으나, 당시 부조리와 불의에 회의를 느껴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당시 시대상을 개탄하고 조성왕조 개국에 반대하여 1362년(공민왕 11년) 33세 때에 치악산에 낙향하여 심산유곡 첩첩산중에서 화전을 일구었다. 초근목피와 산나물로 연명하며 시작활동과 학문연구에 열중하며 깨끗한 생각과 모습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야인 생활을 하였다.

운곡은 학문이 출중한 관계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인 어린 시절 그의 스승이기도 하였다. 주로 각림사에서 학문을 지도하였다.

방원이 등극하기 전 왕자의 난을 겪고, 왕으로 등극이 결정된 후 스승 운곡을 찾아가 정사를 의논하려 하였으나 치악산 속으로 피하여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후에도 태종은 운곡을 관직에 중용코자 하였으나, 운곡은 일사이군의 정신으로 응하

지 않았다. 그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목은(牧隱) 이색(李穡), 야은(冶隱) 길재(吉再)와 같은 높은 절개를 보였다.

또한 운곡은 세상의 명리를 사양하고 은둔의 길을 택하였으나 언제나 왕권의 안정과 국가의 융성을 갈망하였고, 선량하고 현명한 신하들의 보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하로서 갖추어야할 덕행으로 의(義), 지(智), 용(勇), 충(忠)을 강조하였으며, 그 외에 청렴, 공평, 근검 등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할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비록 초근목피와 나물로 생활하였지만 자기 수양뿐만 아니라 애국우국으로 일관하였던 선비요 또 절의 지사였다. 운곡은 신하로서 임금을 배신하여 새로 건국한 조선왕조를 거부하였으며, 고려왕조를 흠모하면서 불사이군의 절의를 <회고가>에 실었고, 망국의 한을 품은 고려 말 지사들을 모아 치악산 정상에서 매년 치제를 드리면서 고려왕조를 추앙하였다.

운곡은 방원이 태종이 되어 다시 부르자 차마 어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이에 상복차림으로 대궐에 들어가 태종의 형제간 살육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무언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태종은 옥새도 없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운곡은 태종이 손자들을 놓고 하문할 때 여러 손자 중 수양대군을 지목하여 조부(태종)와 많이 닮았다 하였으니, 과연 수양대군은 단종을 유배 폐위시키고 끝내 참혹하게 처형하고 왕위에 올랐으니 앞날을 내다보는 선경지명이 있었다.


주필대(강림면 강림리)

운곡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야사 6권을 저술하고 궤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고 자손들을 모아놓고 어진 후손들이 나지 않으면 궤를 열고 책을 꺼내보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였다. 후에 그의 증손대에 이르러 제례를 지낼 때 일가친척들이 모여 의논 끝에 궤를 열어보았다. 야사 6권에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비리정치를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조정에서 알면 종

족의 멸문지화를 입을까 두려워 소각하였다. 우매한 자손들의 소치로 귀중한 자료가 후세에 전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그 궤만은 후손 원달호가 보관하다가 6.25 전란 직전에 고려대에 기증하였다고 하나 그 행방이 묘연하다.

운곡은 고려왕조에서 62년을 살았고, 조선왕조에서는 30여 년을 살았다. 그리고 『운곡시사』에 1,146수의 시를 남겼고, 화해사전을 범세동과 같이 공편하였다. 화해사전은 고려말기의 유학의 학맥과 당시 성행하였던 성리학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문학적으로 깊은 소양을 가졌던 운곡은 그가 남긴 『운곡시사』 속에서 당시의 사회상과 함께 그의 사상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고려 몰락의 원인이기도 하였던 대토지 겸병에 의한 사회경제적 혼란에 대하여 "무너진 집에 새들만 지저귀니 백성은 도망가고 아전도 보이지 않네. 해마다 민폐만 더하거늘 어느 날 어느 때 즐겁게 지냈으랴. 토지란 토지는 토지 권문가에 빼앗겼는데도 포악한 무리들은 문 앞에 연이었네. 묻노니 이 고생은 누구의 허물인고. 남아있는 주민들 더욱 가엾어라."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대토지 겸병으로 인한 백성의 처참한 모습을 탄식하고 그러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모습에서 대토지 겸병의 반대 입장을 볼 수 있다. 특히 "흥망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라는 <회고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운곡의 선비정신은 조선왕조 정신의 한 축이 되었고, 그의 문학사상은 조선시대의 문학사상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운곡의 학문적 업적은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잡이가 되었다.

조선 중기 학자 허목(許穆)은 운곡의 묘갈(墓碣)에서 군자는 숨어살아도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선생은 비록 세상을 피하여 스스로 숨었지만 세상을 잊을 분이 아니었다. 변함 없이 도를 지켜 그 몸을 깨끗이 하였다고 표현하여 운곡을 백대의 스승이라 말하였다. 이식은 "하늘의 일월처럼 밝은 강상을 만고에 전하신 분"이라고 칭하였으며, 이기는 "군자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였고, 이익은 "조이(操履) 있는 선비상의 구현"이라고 칭하였다.

한편 운곡은 치악산에 은거하면서 두문동 72인에 참여하여 대의정신을 실천하였으며, 횡성 · 원주지역의 정신적인 지주였을 뿐 아니라 조선왕조의 정신적인 지주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신의와 도의와 효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에 운곡 원천석 선생의 충절과 절의정신 그리고 청렴결백과 강직함, 고매한 성품과 인품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귀감이 되고 사표가 된다.

2. 운곡 원천석 선생의 유적

○ 태종대(太宗臺) : 횡성군 강림면 강림2리 1216-3번지에 위치한 절벽 위 비각이 있는 곳. 조선왕조 3대 임금인 태종이 왕자시절 운곡에게 학문을 배웠으므로 스승님과 정사도 의논하고 관직에도 앉히려고 이 바위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운곡을 찾았다. 그러나 운곡은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치악산 산중으로 피신하였고, 태종은 운곡 선생의 뜻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 환궁하였다.

그곳을 주필대(駐蹕臺)라 불러오다가 방원이 태종으로 등극한 이후부터 태종대라 부르고 비석과 비각을 세웠다. 비각 정문에는 현판이 걸려있고, 비각 내에는 주필대 비석이 있으며 내부 상단에는 태종대사적이란 현판이 걸려있다. 1723년 여름에 석벽에 태종대라고 새겼음.

○ 노구소(老嫗沼) : 구연(嫗淵)이라고도 한다. 운곡 선생이 고려의 패망과 고려 말 정치의 부조리, 이성계의 왕권 찬탈과 방원 형제의 왕자난에 회의를 품고 초야에 살기 위하여 치악산에 은둔하였다. 방원은 옛 스승인 운곡 선생을 만나 정사를 의논하기 위하여 여러 번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방원이 등극하기 전 직접 치악산에 찾아와 운곡 선생을 만나려고 하자 운곡 선생은 이 소식을 듣고 현재의 노구소에서 빨래하는 할머니를 만나, 내 뒤에 사람들이 와서 나의 거처를 묻거든 앞 시냇물이 흐르는 쪽으로 곧장 갔다고 말하여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운곡 선생은 변암 쪽으로 떠났다. 그 후


노구소 (강림면 강림리)

방원 일행이 나타나 운곡의 거처와 행방을 물음으로 할머니는 운곡 선생과의 신의를 지켜 운곡 선생이 부탁한대로 일러주었다. 이에 방원은 스승인 운곡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의 태종대가 위치한 바위절벽 부근에서 7일 동안 머무르다 환궁하였다.

후에 할머니는 방원이 태종 임금인줄 알고, 임금을 속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빨래하던 깊은 소에 투신하여 죽음으로 사죄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이 소를 노구소 또는 구연이라 부르고 그 충절을 기렸다.

60여 년 전인 해방 전까지만 해도 삼간초옥의 제막이 있어 마을 유지들이 노구할머니의 충절을 기려 제례를 올렸으나, 6.25전란으로 초옥마저 없어지고 제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 노구사당 : 횡성군과 강림면에서는 노구 할머니의 충절을 기리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노구소 남쪽 100m 지점 산밑 300여 평 부지에 건평 7평의 목조 와가로 2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구사당을 건축하였다.

강림면에서는 2005년 10월 21일 노구 할머니 위령제를 드리고 노구사당 안에 노구 할머니의 충절을 영원히 기리게 되었다.

○ 주필대(駐蹕臺) : 방원이 스승 운곡을 만나기 위하여 7일 동안 머물렀던 바위를 말하며, 그곳에 태종대 누각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석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비석을 바로 주필대라 한다.

○ 횡지암(橫指岩) : 태종대에서 약 100m 지나 우측으로 홍제비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구 할머니가 운곡 선생의 행방을 방원에게 잘못 가르쳐주었다 하여 횡지암이라고 하였다. 또 한편 운곡 선생의 제자인 방원이 포악 무도하게 왕권을 탈취한 것이 운곡 선생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 횡지암이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다.

○ 배향산 : 해발 806m. 방원이 운곡 선생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때, 한차례 뒤를 돌아보며 절을 하였다 하여 전해지는 산으로 남대봉 동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 수레너미재 : 해발 720m. 강림면 강림리 가리네에서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로 연결되는 통로로, 방원이 치악산에 올 때 수레를 타고 넘어왔다고 하여 전해진 재이다.

○ 원통재 : 해발 820m. 강림면 부곡에서 원주시 행구동과 연결되는 고개로, 태종이

재를 양성하였다.

○ 매봉서원(梅峰書院) :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칠봉마을은 1983년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는 횡성군 서원면에 속해 있었으며, 서원면은 칠봉서원에서 유래하였다. 서원면에서는 칠봉서원을 복원 건립하여 조상들의 건학정신과 유학(儒學)의 전통을 이어가는 마음의 성지로 삼고자 1997년 10월 29일 서원면 창촌리 매봉산 아래 건립하고 매봉서원으로 명명하였다.
매봉서원은 2003년 불의의 화재로 소실되어, 서원면에서는 군비, 도비 지원과 자체 자금으로 2005년 7월 목조기와로 10간의 매봉서원을 다시 복원하였다. 단청공사와 운곡 선생을 주향으로 팔계군 정종영, 관란 원호, 구암 한백겸을 배향하는 일만 남아있다.

○ 하마비(下馬碑) : 칠봉서원에 남아있던 하마비는 서원철폐와 6.25전란으로 누군가에 의하여 2㎞ 떨어진 산현초등학교에 안치되어 보존되고 있다.

○ 운곡암(耘谷菴)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02번지(화야산 큰골)에 있으며, 운곡 원천 선생이 고려 말 어지러운 국정과 험악한 민심을 비관하시어 1380년에 양근 땅 절골이라 불리는 이곳에 초막간(草幕間)을 마련하여 불당을 설치하고 불사에 전념하며 은거생활을 시작하였다.

※ 앞으로 찾고 밝혀야 할 유적

○ 도경산재(道境山齋) :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가랫골(일명 태화동) 변암과 누졸재 사이에 있을 듯하다. "도경선사와 이웃하며"라는 글이나 운곡시사를 종합분석하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 문수사(文殊寺)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7 원주목 불우조에 원주 치악산 서쪽(현 흥양리로 추정)에 있던 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주 시립박물관 박종수 관장이 여러 번 현지답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아야니원(阿也尼阮) : "아야니 서쪽 강을 건너다"라는 작품에서 원주 서쪽 38리에 있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원주목 역원조에 기록되어 있는 바 섬강변 어디쯤이 아닐까 한다.

삽교 안석경

진 교 원/강원도민일보기자

순흥 안씨(順興 安氏)인 삽교(霅橋) 안석경(安錫儆)은 1718년 충주 가흥의 쌍오곡에서 숙종, 영조대의 문인인 안중관(安重觀 · 1683~1752)과 고령 박씨 회년(會年)의 딸 사이에서 4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안석경(이하 삽교)은 출생 후 부친을 따라 서울에서 생활해 오던 중, 1727년 부친이 관직생활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자, 벼슬을 그만두고 충주 가흥으로 귀향하는데, 삽교의 나이가 10세 때였다. 그 후 부친은 작은 암자를 짓고 학문탐구와 후학양성에 매진하는데, 삽교도 이때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1729년 이인좌의 난을 피해 거처를 제천의 도촌(陶村)으로 옮겼고, 가족들은 부친이 다시 벼슬을 하기 전까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1736년 부친이 공조좌랑을 제수 받아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돌아와 우곡에서 살게 됐으며, 삽교 나이가 19세 무렵으로 '삽교집'에는 이 시기부터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삽교 안석경 묘소(둔내면 삽교리)

21, 22세 때인 1738년과 1739년 부친이 홍천현감과 제천현감으로 부임하자 삽교도 2년간의 짧은 서울 생활을 마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다. 23세 되던 1740년, 생활의 근거지를 원주 흥원(興原) 섬암(蟾巖)으로 옮겼다. 가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부친의 관직생활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되자, 삽교는 이때부터 조

용한 암자를 찾아 학문을 배우며 본격적인 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삽교가 거주하던 지역은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유역. 섬강은 예부터 수로교통이 발달, 영서와 영동의 물품을 서울로 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섬강의 수려한 풍경은 삽교의 작품에 영향을 줬고, 편리한 교통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25세 때인 1742년, 부친과 네 형제가 소동파의 적벽부를 모방해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으며, 26세 때는 낙동강을 따라 퇴계(退溪)와 농암(聾巖)의 유적지를 유람했다. 관향인 순흥에 있는 백운동 서원에 들러 자신의 선조인 안향을 찬양하는 시와 산문을 짓기도 하는 등 젊은 삽교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에 두미(斗尾)에 와서/ 호쾌하게 왕성을 바라본다
삼각산은 하늘을 밀칠 듯이 솟아 있고/ 한강은 바다에 이르도록 맑구나
바람과 구름은 천고의 모습이건만/ 꽃과 버들은 늦봄의 점이로구나
배의 노 아닌 것이 절로 부끄러우니/ 어떻게 임금의 밝은 지혜 도울꼬

서울 초입에 있는 나루터 두미협에서, 삽교가 32세 때 과거시험에 응시할 목적으로 서울을 찾았다가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로, 관직에 진출해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고 싶다는 작은 포부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삽교는 자신의 뜻과는 달리, 수 차례의 과거시험에 낙방한다. 그리고 35세가 되던 1752년은 삶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맞는다.

자신의 절대 스승이기도 했던 부친 안중관이 그 해 흥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삽교는 시묘생활을 마치고 가산을 정리해 40세 때인 1757년에 원주 손곡(蓀谷) 안산(安山)으로 거처를 옮긴다. 수 차례 걸친 과거시험 낙방이 그에게는 큰 좌절을 남겨주면서 동시에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깨달음을 줬다.

자신의 문집에서 당시 과거제도의 폐단과 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과거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학문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미뤄, 이 시기부터 삽교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도학 공부와 시작(詩作)활동 및 벗들과 교류로 소일키로 결심한 듯하다.

삽교는 북벌론과 명나라 회복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다. 민족의 자주의식과 주체의식을 강조한 북벌론은 초기의 의욕과는 다르게 효종 승하 후 매력을 잃어갔고, 이에

대한 자신의 울분을 시로 표출했다. 북평사로 가는 동서(同壻) 박성원에게 준 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조선을 선을 그어 조그마한 동쪽이라고 말하지 말라
북으로 오랑캐 땅과 접해 있어 끝없이 펼쳐진다네
태양을 품은 백두산 천 봉우리에 눈내리고
하늘에 떠 있는 동해만리에 바람부네
누가 붉은 깃발에 기대 의기를 낸다면
영웅과 같은 공적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부상의 신목 어떤 가지를 자르면 좋을꼬
나와 함께 새로 원수 갚은 활 만들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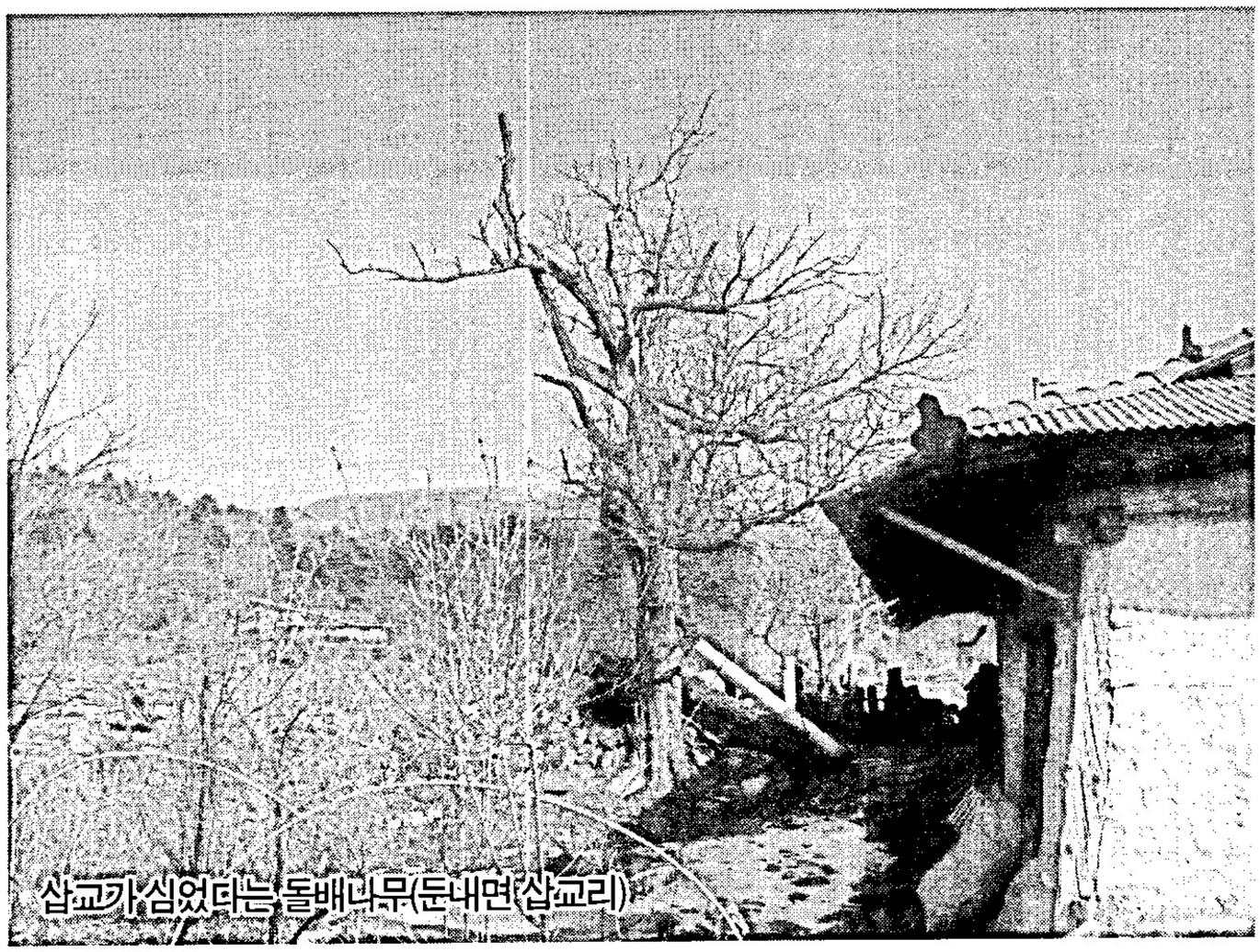
삽교는 궁핍한 생활과 고루한 성품으로 인한 세상과의 불화를 이기지 못하고, 1765년, 그의 나이 48세에 덕고산 자락(현재 삽교1리)에 은거한다.

다음은 삽교가 덕고산의 산신에게 '은거하겠다'고 알리고 허락을 구하는 글이다.

"석경은 학식도 얕고 계책도 졸렬하며 또한 차마 이 세상에 스스로를 맡길 수 없어 명산을 떠돌아다니다가 점쟁이 집에서 늙었습니다. 이제 이 산을 얻어 돌아갈 곳으로 삼아 부친의 책과 형제들을 데리고 은거하고자 합니다.(중략) 밝은 신은 굽어살피소서."

삽교는 은거 후 삽교만록 저술 등 작품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후학도 가르치고 외부사람들과의 연분도 이어갔다.

삽교1리에는 삽교와 연관된 설화들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힘이 장사였다', '축지법을 썼다', '천리안을 가졌다' 등 다소


삽교가 심었다는 돌배나무(둔내면 삽교리)

해방 전 농촌 사회의 관습법적 질서 유지에 대한 연구
- 횡성군 지역의 영좌제도를 중심으로 -

류 민 우/민족사관고등학교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제15회 강원향토문화연구발표회 노력상 수상





1.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2) 연구 과정 및 방법
      (1) 연구 과정
      (2) 연구 방법
2. 본론
   1) 영좌제도의 조직
   2) 영좌제도 구성원들의 관습법적 역할
      (1) 영좌
      (2) 공원
      (3) 총각대방
      (4) 그 외 구성원
3. 결론

1.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지금까지 마을 농사일과 관련한 두레에 대한 연구는 중요시되어 다방면으로 연구가 많이 진전이 되어왔다.[1] 그러나 농사일과 관련이 깊은 또 다른 조직 중 하나인 영좌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영좌제도는 농악대 그 자체는 아니나, 농악대의 상쇠가 영좌제도의 장인 영좌를 맡음으로써 영좌제도와 농악대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

1) 주강현, 「두레의 조직적 성격과 운영방식」, 『역사민속학 5권』(한국역사민속학회, 1996), 103 - 137쪽. 주강현, 『한국의 두레 1,2』(집문당, 1997). 조경만, 「두레의 일과 놀이에 관한 연구 - 1940년경 충남 부여군 추양리의 사례」(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문계순, 「두레공동체 운동 연구 - 생태적 다양성, 순환성, 관계성을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실 농악대의 정신과 그 협동체로서의 농업 생산력에 대한 기여는 농악대가 존재하는 동안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농악대는 좁은 의미로는 농악, 즉 농사를 지으며 연주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굿중패', '걸립패', '굿패', '두레패'라고도 한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농악대는 마을 구성원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큰 조직으로서 마을을 이끌어나가는 주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악대의 기본적인 목적과 하는 일, 그 의미까지는 수많은 논문과 연구가 진전된 반면, 정작 이러한 농악대를 이끌고 조직했으며, 행정적인 각 지역 단위의 지도자들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도자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관한 연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대학의 한국 농촌을 연구한 국사학과, 인류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등의 다수의 교수들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2] 이와 관련한 논문은 전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농악대를 이끌어 갔던 영좌, 공원, 총각대방, 그리고 구성원 등의 인적요소들 간의 상호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풍습이 계속되어 오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농촌 사회에서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 역시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연구가 일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농악대의 농업 생산에 대한 역할에 대한 것일 뿐, 실제로 농악대와 영좌제도가 관습적으로 마을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악대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영좌제도의 지도자들의 자연 단위 부락에서의 역할은 물론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그들이 관습적으로 지켰던 규율이나 법을 연구함으로써 당시의 마을에 대한 이해가 깊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필자가 영좌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에 '영좌', '공원', '대방'으로 검색을 하였으나, 영좌제도와 관련된 기록은 찾지 못했다. 그리고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전자도서관에서도 검색을 하였으나, 영좌제도와 관련된 논문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 대학에 직접 전화를 하였는데, 영좌제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말을 여러 교수들로부터 들었다.

2) 연구 과정 및 방법

(1) 연구 과정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는 여러 노인들과의 인터뷰를 녹취 및 채록하는 등의 자료 수집을 집중적으로 하였다.[3] 조사 대상 노인들은 80여 살 정도의 영좌 제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접 체험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좌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배제하였다. 그리고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마을에서 오랜 동안 살았던 토박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좌 제도에 대한 문헌 기록을 접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자들로부터 구술 증언을 연구 대상 자료로 삼았다. 이러한 증언들은 적어도 50여 전의 체험이기 때문에 일부 구술자의 기억력에 의문이 가는 면도 발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는 영좌 제도의 원형적인 모습을 재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2) 연구 방법

원래 본 주제와 관련한 문헌과 논문을 검색하여 참고하려 했으나,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이와 관련한 문서나 글로 적힌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여러 교수들에게 연락을 취해 조언을 구하고 문헌에서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영좌나 공원 등에 대한 설명조차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대방에 관련한 내용이 간혹 있기는 했으나 필자가 찾고자 하는 방향의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현장 답사를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택했다. 필자와 박관수는 횡성군 내의 주로 영좌제도를 경험한 토박이 노인들을 중심으로 1 : 1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6명의 노인들과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실시한 인터뷰

3) 심운택,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유동리, 2005년 4월 12일, 82살.
장석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2005년 4월 12일, 86살.
고천식,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유동리, 2005년 5월 3일, 79살.
엄영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2005년 5월 3일, 80살.
손용덕,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2005년 5월 3일, 75살.
오복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2005년 7월 3일, 81살.

는 모두 녹취한 후 필자가 직접 채록하여 정리하였다. 정리본은 뒤에 첨부자료로 첨부하였다.

우선 필자는 현장 자료들을 채록하고 분석, 종합하여 영좌제도의 일반적인 모습을 추출하는 데 최선을 기울였다. 각 동네마다 약간의 이질적인 모습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논의 과정 중에 논의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영좌제도의 일반적인 모습을 통해 과거 자연 부락에서 영좌제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2. 본론

1) 영좌제도의 조직

농악대는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자연 마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다. 그렇지만 마을의 크기에 따라 큰 마을에는 여러 농악대가 존재하기도 하고, 소규모의 마을일 경우 이웃한 마을끼리 같이 농악대를 형성하기도 했다.[4]

농악대는 농사일을 주로 관장하였는데, 농악대의 상쇠가 영좌로서[5] 농악대를 이끌고 농사일에 관련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영좌제도와 농악대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악대의 구성원들은 실질적인 노동력을 지닌 청 ·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공동 경작을 하는 등의 공동체적인 노동력이 필요할 때 노동력을 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었다. 노인들이나 여성, 어린 아이들은 제외되었으며, 청 · 장년층이라도 노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노동력의 잣대로는 '들돌 들기'가 있는데, 무거운 들돌을 들거나 어깨 너머로 넘길 수 있으면, 농악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가 있었는데, '무동'은 10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주로 맡았기 때문에 '무동'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니 무동들은

4) 이영화, 『조선시대 조선사람들』, 가람기획, 1998, 363쪽.
5) 영좌가 상쇠를 하지 않았다는 마을도 있었다.

농악대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노동력 행사와는 무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농악대와 조선 후기 당시의 다른 조직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악대는 양반층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마을 주민들만의 조직이었다는 점이다. 마을 내에 양반이 있으면, 양반의 일은 양반 내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농악대의 장들조차 함부로 양반의 영역에는 침범하지 못했다.[6]

우선 농악대의 임원들과 그 구성원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치	이름
장	영좌
임원	공원, 총각대방
구성원	노동 능력이 있는 청 · 장년층, 무동

이제부터 각 장과 임원들, 특히 영좌와 공원, 총각대방 등의 하는 일을 정리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들은 각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도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되는 등 상하 구분이 뚜렷하였다.

2) 농악대 구성원들의 관습법적 역할

(1) 영좌

영좌는 실질적인 농악대의 우두머리로서, 주로 50대 이상의 그 마을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남성이 담당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렇다고 나이만 많다고 해서 영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말솜씨가 좋고 마을에서 평판도 괜찮은 편인,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영좌 선출 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영좌의 직책을 맡으려면,

6) 손용덕은 영좌는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반이 죄를 지으면 쉽게 관여하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즉 양반은 죄를 지어도 영좌의 체벌권의 바깥에 존재했다.

나이가 많더라도 농사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영좌 선출에서 배제된다. 그러니 영좌제도는 실질적인 영농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면들을 볼 때, 영좌는 영좌 조직의 정신적인 지주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맡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덧붙이자면, 조사자 6명 중 엄영태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은 영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7] 이는 농악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재력이 필요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재산이 농악대 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영좌를 하려면 정신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짐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지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되었다.

영좌의 선출은 요즘과 같이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른들, 주로 나이가 많은 마을의 상노인들이 모여서 토의 끝에 합의하여 선출하게 된다. 얼른 보면 비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당시 가부장 중심 그리고 나이 중심의 위계질서에 기반을 둔 마을 사회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러한 선출 방식이 영좌가 좀 더 권력을 가지고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러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선출된 영좌이기에 영좌는 마을을 지배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에서의 영좌의 지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영좌가 다만 농악대의 우두머리로서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농악대 관련 업무만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구술자가 있었던 반면[8] 농촌 임금이나 왕이라고까지 떠받들어졌다고 대답한 구술자도 있었다.[9] 대체적으로, 영좌가 농사일에 관한 한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실질적인 지도자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였다. 영좌는 공원이나 총

7) 엄영태는 "돈은 꼭 많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진술은 필자가 생각하기엔 보편성이 떨어지고, 또한 응답자의 기억 상태에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영좌제도의 특성을 일반화시키는 데 포함하지 않았다.

8) 심운택은 "영좌는 마을 행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농악대의 업무만 맡아서 했다."라고 진술했다.

9) 오복환은 "영좌는 농촌의 왕, 임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각대방 등의 임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뿐 아니라, 직접 농악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영좌는 농악대를 주로 이끌었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는 데에는 사뭇 무리가 있으나, 사실 한 마을의 구성에 있어 나이가 많은 상노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농악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마을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 생산 및 마을 질서 유지에 있어서 영좌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영좌가 주도적으로 하는 농악대의 업무를 계절별로 구분하면, 우선 봄의 '갈령', 여름에는 '만경두레', 늦여름에서 가을 초의 '호미씻이', 그리고 겨울의 공동 작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 사항을 영좌가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내내 영좌의 지도 아래 구성원들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갈령'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는 논에 거름을 주기 위해 갈잎을 따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미리 갈잎을 따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좌가 날을 정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갈잎을 따도록 통제를 한다. 또한, 여름의 '만경두레'는 초벌매기 때 하는 것으로, 역시 영좌의 지시에 따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 논 전체를 맨다. 논 매러 갈 때 선두에 영좌가 서고 그 뒤를 농악대가 뒤따르며 농악을 치면서 논으로 향한다. 논에 들어가서는, 영좌가 선소리꾼으로 북을 두들기며 앞에 나서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10] 그를 따라 사람들은 풀을 매고 또 옆의 논으로 움직이면서 마을 전체의 논을 매는 것이다.

'호미씻이'는 모든 논매기가 끝난 후, 그간 썼던 호미를 모아 씻는다는 뜻으로, 실제적인 농사일이 끝난 후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영좌의 집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에



10) 영좌 이외에 목소리가 좋은 선소리꾼이 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모여, 영좌가 지시한 대로 각 집에서는 음식을 해 오고 농악놀이를 즐긴다.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모든 주요 농사 업무는 끝나지만, 마을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영좌가 공동 작업을 시킨다. 공동 작업으로는 영좌의 집이나 사랑방에 모여 신을 삼거나 집세기를 꼬도록 마을 사람들을 독려한다. 이들 작업 물건들은 영좌의 집에 보관했다가 2월 초순 즈음 각자가 만든 물건을 다시 분배한다. 그리고 2월 초하루는 특별히 '일꾼의 날'이라 하여 신을 받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인다. 이는 2월 초이튿날부터 시작될 바쁜 농사일을 기리며 하는 행사로, 특별히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체 생활에서 결속력과 협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좌가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한다.[11]

11) 이영화, 앞의 책, 363쪽.

다른 관점에서 보면, 농업의 지도자라는 직책 이외에도 영좌는 인성적인 면에서도 마을 내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마을의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의 예의범절 교육면에서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부모보다도 더 엄하게 교육을 시킨다. 쉽게 말하자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인사를 안 했거나 버릇없이 굴었을 경우, 영좌가 총각대방을 시켜서 버릇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매질을 시키거나 훈계를 하고, 심지어는 진흙탕에 메다 꼽는 등의 사뭇 모욕적인 벌을 줘 다시는 예절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키곤 했다.

이러한 규율들은 문서로서 특별히 정해져 있거나 정해져 있는 성문법은 아니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관습법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12]

12)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60쪽. 자연 부락의 관습적 법 요소에 대해 약간 언급이 되어 있다.

이러한 관습법적 규범에 따라 영좌가 다소 심한 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마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 대부분의 경우,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소 과격한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이처럼 심하고 모욕적인 벌을 받았음에도 체벌을 당한 사람이 벌을 거부한다거나 저항하는 등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벌하였다고 해서 항의하거나 불만을 품는 부모 역시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영좌가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마저도 혼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13] 항의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영좌나 총각 대방은 마을의 공식적인 행정 기관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 기관에서조차 이들의 이러한 자치적인 관습법적 행사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다. 물론, 면사무소에서 인정하는 행정적인 지도자인 구장은 이러한 체벌 등에는 관여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14] 구장은 세금을 걷는 등의 행정에 관여한 일에 중점을 두어 위와 같이 관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양반들까지 영좌의 이러한 자체적인 권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정리하자면 영좌는 농악대를 지휘하는 우두머리인 동시에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지도자, 그리고 마을의 규율과 분위기와 위계질서를 바르게 하는 어른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멀티플레이어였다고 할 수 있다.

⑵ 공원

공원 역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마을의 중요한 직책 중의 하나이다. 공원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영좌 대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좌가 바쁘거나 할 때에 영좌가 하는 일을 그대로 대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원은 영좌보다는 젊은 40대 정도의 말솜씨 좋은 마을 주민이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이 공원으로 뽑히는 것을 그다지 탐탁하게 여

13) 심운택은 "여자가 잘못을 할 경우 여자들보다는 오히려 그 아비를 불러 혼내기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14) 엄영태는 "면사무소에서 행정적인 일을 맡기는 우두머리가 바로 구장인데, 심지어는 직접 체벌을 하기도한다."라고 하였다.

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영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영좌나 공원과 같이 다른 마을 주민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대가도 없이 책임을 떠맡고 일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내키는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단 공원과 영좌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는 마을 주민들 모두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기도 하였다.

공원이 나중에 영좌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꼭 공원이 영좌의 뒤를 잇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공원이 영좌가 될 소질이 부족하다고 마을 주민들이 생각할 경우 다른 사람이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15]

공원은 자신이 물러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었고, 후임자가 그 뒤를 이었다.

15) 심운택은 "공원이 영좌가 될 때도 있었는데, 만약 남을 포섭하는 능력이 적다던가, 말솜씨가 별로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다른 사람을 영좌로 추천하기도 했다." 라고 증언했다.

(3) 총각대방

총각대방은 주로 20대의 혼인을 아직 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주로 맡게 되는데, 영좌나 공원의 명령을 받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벌을 가할 때에는 주로 체벌 위주로 벌이 내려졌는데, 회초리로 엉덩이나 손바닥, 뺨도 때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논두렁에 메다 꼽기도 했다고 한다. 벌은 상당히 강도도 높고 엄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지시를 잘 들었다고 한다. 요즘 기준에서는 반발하지는 않았을까 할 정도로 꽤나 강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의외로 반발을 하는 아이는 없었다. 벌을 받은 아이의 부모도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지는 않고, 오히려 단체 생활에서 당연한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체적이었다.

영좌나 공원과 마찬가지로 총각대방 역시 자신이 그 직책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원할 때, 바로 물러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출만큼은 영좌나 공원과는 다르게 영좌와 공원만이

상의해서 적임자를 뽑았다고 한다. 또한, 총각대방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대방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면 나이가 가장 많은 다른 총각에게 대방의 직책이 넘어간다.

(4)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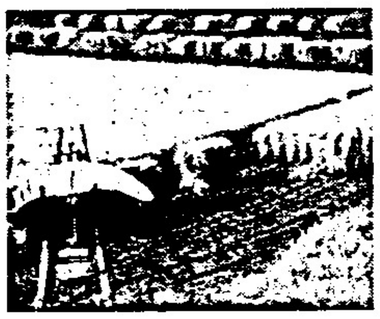
영좌제도 자체가 농악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농악대의 상쇠이자 장인 영좌가 영좌제도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농악대의 구성원들 역시 영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농악대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농업 생산의 주체였다. 영좌 아래의 농악대 구성원들은 각자 상쇠, 부쇠, 징, 장구, 북, 벅구잽이, 무동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져 있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무동을 제외하고는 농악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들돌 들기' 등의 일정한 시험을 치러야 했다. 마을 내에서 농악대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나, 농악대에 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악대에 참여했다고 한다.[16]

농악대의 규율은 엄격해서 반드시 영좌나 공원, 총각 대방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였고, 특히 영좌의 결정에 따라 구성원들이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농기싸움'을 할 때에도 영좌가 지시를 내리는 대로 대열을 맞추고 적절히 수위를 조절하여 싸워야 했다. 만약, 영좌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관습적으로 보아 부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영좌가 내리는 징벌을 받아야 했다.

특기할 것은 구성원 내에 영좌나 다른 지도자들이 적어놓은 성문법이나 그 밖의 규율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자체에서 서로 해야 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알고 그 관습적인 규율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기게 돼서 따르는 벌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16) 오복환은 "사실 농악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 전체에 꽤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증언했다.



여겼다.

3. 결론

흔히 우리가 법을 생각하면, 성문법, 즉 글로 적혀 있는 법을 떠올린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관습법보다는 성문법 체계의 성립과 발전에 더 초점을 맞춘다. 중·고등학생들의 국사 교과서에도 경국대전, 속대전 등만이 나와 있고, 관습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물론 사회가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바뀌고 나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관습법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성문법에 더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과 몇 십 년 전, 해방 직후까지도 성문법보다는 대부분의 마을이 관습법적으로 마을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관습법적 규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준다. 나아가 마을의 규범을 관습법적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횡성군의 농악대와 영좌제도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놀랍게도 많은 마을들-석문리, 정금리, 유동리 등- 중 어느 마을도 영좌제도가 존재했던 때까지는 적혀 있는 규율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마을 구성원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관습법적 규율의 집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알 수 있는 관습법적 규범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른에게 인사를 잘 해야 한다.
②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③ 농악대 일을 할 때 춤사위나 노래 가락을 잘 해야 한다.
④ 연애를 금하지는 않는다.
⑤ 영좌나 공원, 구장 등의 지시에 따른다.
⑥ 투전을 하지 않는다.

⑦ 술주정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습법적 규범을 어겼을 때 가해지는 형벌도 역시 정해진 것은 없었다. 다만 영좌가 보고 판단해서 총각 대방이 그를 시행했을 뿐, 그 어디에도 적혀져 있거나 적어도 공표된 징벌 방법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습법적 규범의 존재와 그 실행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는 조선시대 말기, 더 넓게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5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마을에서는 자치적으로 질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형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기관과 그 기관이 정한 구장 등이 조세 등의 일을 맡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의 농업 생산이나 행사의 주관, 미래 세대의 교육까지도 마을 내의 영좌의 지시와 그 아래 구성원과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그 사회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정립하고 실행한 성문법과 그 제도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시행되었던 관습법적 규범과 이러한 규범의 시행을 맡았던 지도자들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더 진전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횡성군 지역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해방전의 모든 마을들의 관습법과 영좌제도의 실행을 일반화시키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차후 개진할 논문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다.



※ 첨부자료

1. 엄영태

영좌나 총각대방에 의한 직접 체벌을 보지는 못했다. 그

러나 주변 어른들에게 그에 대해 자주 듣곤 했다. 누군가가 체벌을 한 번 받고 나면 그 구타 정도가 매우 심해,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

나이가 적어도 그다지 상관은 없었지만, 영좌가 될 수 있는 나이는 주로 50대 이상이었다. 주로 말을 유창하게 하고 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돈은 꼭 많을 필요는 없었다. 공원의 직책을 맡아보던 사람도 영좌가 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영좌를 최종적으로 선출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고 합의에 따라 선출하게 된다.

영좌에 버금가는 인물로는 상포계장, 구장, 그리고 존위(=행사) 등이 있다. 상포계장은 글을 웬만큼 쓸 줄 아는 유식한 사람으로서, 60대 이상이 주로 한다. 그러나 상포계장은 상이 났을 때 그것을 관장하는 일을 맡기 때문에, 영좌와는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좌는 농사일에만 관여했다.

구장의 경우 영좌보다 높은 위치에서 일을 처리한다. 예전에는 노인들이 많이 하는 편이었으나 근래 들어서는 젊은이들에게도 자격이 부여되었다. 구장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춘 사람으로, 각 우두머리 중 나이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며, 영좌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선출한다. 면사무소에서 행정적인 일을 맡기는 우두머리가 바로 구장인데, 세금을 걷거나 제사를 지내기도 하며, 심지어는 직접 체벌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존위는 행사라고도 불리는데, 영좌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기보다는 마을의 시종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구장의 아랫사람으로서, 부장이 시키는 마을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후에는 그 명칭이 서기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영좌, 상포계장, 구장, 그리고 존위들 각기 맡은 소임이 달랐다.

영좌가 내린 결단이나 처벌에 반발을 하는 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주로 술주정을 하며 규율에 대항하는 자가 생긴다고 한다. 이 경우 영좌는 총각대방을 시켜 논 옆 진흙에 주저앉히거나 나름대로의 벌을 내려 야단을 단단히 친다. 벌을 받은 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다시 생기지 않는다.

영좌가 주로 하는 일은 농사일을 전문으로 하는데, 농사일을 직접하기보다는 논이나 밭일을 하러 갈 때 꽹과리 등을 울리면서 사기를 북돋우는 일을 한다. 이 뿐 아니라 상이 났을 때도 상포계장과 같이, 관이 들어갈 구덩이를 파고 상여틀을 갈아 끼우는 등의 실질적인 일을 하는 장사잽이에게 지시를 내리는 일을 한다. 혹은 '호미씻이'나 '드렁네미' 같은 행사를 할 때 각 가정에 국수와 술, 음식

등을 해 오도록 지시하고, 가끔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며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한다. 겨울에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공동 노동을 시키는데, 이 때는 농사일보다는 짚세기를 삼고 짚을 꼬아 멍석을 만드는 등의 일을 하여 이듬해를 준비시킨다. 마지막으로 영좌는 농악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농악대의 악기를 조달하기 위해 유창한 말솜씨로 부유한 집에 자금을 부탁하는 일도 담당한다. 또한 농악대를 조직하고 농악놀이도 담당한다.

공원의 경우에는 영좌와 나이도 비슷해서 영좌와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다. 공원의 역할은 말하자면 영좌 대행으로, 영좌가 하는 일을 나누어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총각대방은 영좌가 알아서 뽑고 일을 시킨다. 총각 대방은 늙은 총각이 맡는 것이다. 주로 하는 일은 규율을 어긴 사람을 벌주는 것으로, 영좌의 명에 따른다.

영좌는 정해진 규율 없이 나름대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신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말솜씨가 필요하다. 정해진 규율은 없으나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따르는 법이 있었다.

이 영좌제도는 일제 통치 이후 없어졌는데, 이 때 행정기관에 의해 특별히 통제를 받지는 않았고 영좌가 자치적으로 마을을 통치하도록 간섭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끔 옆 마을과 농악대와 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이 때 심하게 다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격렬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싸움의 수위는 영좌가 지시하는 대로 조절되는데, 가끔은 영좌 본인이 두들겨 맞을 정도로 심할 때도 있었다.

2. 오복환

영좌는 주로 50대 이상, 집안 형편이 좋은 사람이 그 선출 대상에 오른다. 영좌는 농촌의 왕, 임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이 있었다. 다만 마을의 다른 업무는 건드리지 못하고 농악대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했기는 했으나, 사실 농악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 전체에 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영좌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는 구장과 상포계장이 있는데, 구장은 행정의 우두머리로서 행정적인 일을 맡아 햇다. 상포계장은 상포계의 우두머리로, 주로 영좌보다는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좌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좌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바수고리, 신 등을 만든 다음, 잘 만든 것에는 포상하는 '호미씻이'나 '신 받는 날'의 주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투전을 금하여 총각대방으로 하여금 투전을 한 자들을 모아 벌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농사

을 경우 관여하였다.

영좌의 업무로는 주로 논매기, 모심기 등의 농사일 관장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할 때 서로 시비가 붙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호미씻이 등의 잔치를 자신의 집에서 주최하기도 한다. 만약, 영좌가 결정한 일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성원들이 불복하는 경우가 있으나 드물었다고 한다.

영좌의 수하에는 공원과 총각대방이 있었는데, 공원은 영좌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으로 후에 영좌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영좌와 하는 일이 비슷하여 선출 대상 역시 말솜씨가 좋고 남을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영좌를 아버지처럼 여겼다면, 공원은 어머니와 같이 여겼다고 한다. 총각대방을 직접 부리기도 했다.

적어 놓은 규율은 없으나 관습적으로 따라야 하는 몇몇 조항들이 있었다. 어른들에게 불복하지 말 것, 장유유서를 따를 것, 도둑질을 하지 말 것 등이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연애는 특별히 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옆 마을의 농악대와 싸움이 나기도 했는데, 이를 '농기 싸움'이라고 한다.
일제 시대 때 특별히 영좌제도를 통제하지는 않았다. 또한 꽁지갈보나 들병장수 등의 자칫하면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자들이 들어와도 마을에서 특별히 통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영좌가 농사일은 관장하였지만, 가난한 집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구제하지는 않았다.

5. 장석준

영좌는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선출되는데, 필요한 덕목으로는 유창한 말솜씨 등이 있다.
선출할 때에는 마을 사람들의 협의로 선출이 이루어지고, 죽거나 더 이상 영좌의 직책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에는 공원 등에게 그 일을 위임하게 된다.

영좌가 하는 일은 봄에 논에다 거름으로 쓰기 위해 일시에 갈잎을 뜯는 '갈령'을 하고, 논 맬 때 소리를 해서 논 매는 사람들의 힘을 북돋우는 것, 또한 마을 운영을 위해 돈을 마련하고 바구니, 짚신 등을 모아놓고 분배하는 것 등이 있다. 겨울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짚신을 만들게 해 그 후 다시 분배하게 하는 일도 했다.

영좌를 돕는 역할에는 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50-60대 되는 사람으로 영좌 다음으로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선출되게 된다. 영좌가 지시하는 일을 처리하는 역할이다. 공원말고도 총각대방이 있는데, 총각대방은 20대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만둔다. 영좌나 공원과는 다르게, 총각대방은 영좌와 공원의 합의로 선출된다. 총각대방

은 주로 아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징벌을 내리는 역할을 맡는데, 이때 종아리, 볼기를 치거나 바닥에 메다꽂는 사뭇 과격한 일도 맡아서 하게 된다. 이러한 총각대방에게 반발하는 경우 더 많은 징벌이 가해지게 된다고 한다. 대체로,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벌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영좌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하여 이승만 정권 시절 폐지되었는데, 6.25 동란 이후 사회가 혼란해 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영좌가 따르는 규율은 협의해서 정한 것은 있으나, 문서에 적어놓은 것은 특별히 없다고 한다. 일제시대 당시 순사들이 영좌의 심한 체벌 때문에 직접 개입한 적도 있다.

6. 심운택

영좌는 45-50세 사이의 사람이 선출 대상으로 오르는데, 한 70세 이상이 되면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영좌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주로 마을의 주민들의 추천으로 영좌가 되는데, 영좌가 되면 주로 논일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구성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한다.

영좌 말고 다른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구장, 계장 등이 있었는데, 먼저 구장은 동네 자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면에서 직접 구장에게 연락을 취해 행정을 맡긴다. 영좌는 이러한 행정에는 상관없이 농악대의 업무만 맡아서 했다. 계장의 경우 상이 났을 때나 결혼식이 있을 때 그 일들의 진행을 맡는다. 이들보다 영좌가 더 나이가 많은 경우가 더 많았다.

영좌 밑에는 공원이 있었는데, 영좌가 일을 처리할 때 공원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공원이 영좌가 될 때도 있었는데, 만약 남을 포섭하는 능력이 적다던가, 말솜씨가 별로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다른 사람을 영좌로 추천하기도 했다.

영좌제도가 없어진 것은 한 30년 정도, 즉 해방 이후 즈음해서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인 이유는 젊은이들이 마을에 남아 있기보다는 좀 더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영좌제도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규율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제도가 부분적으로라도 반영되어 현재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규율은 없으나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 즉 암묵적인 관습법을 따라야 하는 서로간의 약속이 있었다. 따라서 규율이 적혀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영좌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체벌하는 경우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마을을 원하는 대로 통치하기 위해 영좌제도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비교가 용이하다.

나는너를 알기를 공산에명월로 아는데
너는나를 알기를 흑싸리겁데기 아노라

낙동강 칠백리는 뻐꾹새만 울고
이강산 삼천린 무궁화만 폈구나

'공산에명월'이란 말 그대로 빈 산의 밝은 달을 뜻한다. 즉, 청청하고 위대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흑싸리겁데기는 아주 하찮은 존재이다. 흑싸리껍데기는 먹는 데에 쓰일 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시 말해, 흑싸리겁데기는 '나'는 '너'를 존경하여 대하는 반면에, '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화자의 원망을 "공산에명월로"와 대구절을 이루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노래에서, 낙동강 칠백리란 이북을 뜻한다. 낙동강 칠백리는 뻐꾹새만 울고 이강산 삼천리엔 무궁화만 피었다는 것은, 이북은 살기가 어려운 반면에 남한은 살기가 좋다는 것이다. 위아래가 서로 대칭이 되어 같은 형식으로 짝지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 분단의 현실을 더 슬프게 드러내고 있다.

어러리를 찬찬히 보면, 이와 같은 대구절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대구법은 선조들부터 많이 사용해오던 방식이다. 고대 가사나 한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데에서 그들이 대구의 사용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는 수사의 단조로움을 없애준다. 그리고 단순히 서로의 짝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노래를 맛깔스럽게 만들 수 있다.

돈이 그리워 죽은 사람은 은행수복판에 묻구요
인생이 그리워 죽은 사람은 자동차복판에 묻읍시다

이들 외에도 눈에 띄는 것이 여럿 있었지만, 보다 뚜렷하고 설명하기에 좋은 것들을 몇 가지 골라보았다. 노래를 흥겹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가창자의 노래실력이나 음색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이다. 우리의 민요 같은 경우, 주로 논이나 밭일을 할 때에 주로 가창자가 즉석으로 만드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노래들과 같이 대구나 반복 등의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 민요를 살펴보았을 때,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복이나 대구, 운율을 이용한 형식을 꾀하였을 경우,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상대에 대한 감정이나 의견을 강조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의미 전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원망스러움 등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현명하지만, 이의 내용을 형식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의미 전달의 효과를 배로 창출해내는 것과 같다. 이번 어러리의 이해를 읽고 탐구해 본 일은 우리 민족의 슬기로움을 우리 노래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어러리, 그 친화적이고 인간적인 모습

안 세 연/민족사관고등학교

강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러리 가락으로 풀어나갔다. 강원도의 어러리는 첩첩 산골의 힘든 삶, 시집살이의 서러움, 어린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일제시대의 힘든 삶 등을 읊고 있다. 강원도 어러리는 같은 구절이라도 마을마다 약간의 해석이 다르고 가사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를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담은 가락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앞남산 한국**단풍**은 구시월로**나 들고**
요내가슴 속**단풍**(속 썩는 것)은 시시로**나 드네**

무주동산 **달뜬거는** 구름이 **없는 탓이오**
이내마름 **달뜬것은** 임(신랑)이**없는 탓이라**

신신산국(심심산국)에 참매미**소리는 듣기나두 좋지요**
청년과수(과부) 한심(한숨)**소리는 나는듣기 싫어**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이 가락들은 자연현상에 대한 고찰과 자신의 감정을 대구법을 이용해 탄력 있게 연결해 놓았다. 첫 번째에서 자신의 슬프고 우울한 기분을 단풍은 구시월에나 드는데 자신의 마음은 계속 시들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두 번째에서는 임이 없는 외로움과 솟구치는 욕정을 하늘에 달이 뜬 것이 구름이 없어서이며 자신의 마음에 달이 뜬 것은 임이 없어서라고 하였고, 또 세 번째에선 산속의 매미소리는 듣기 좋은데 과부의 한숨소리는 듣기 싫고 짜증이 난다 하였다.

자연현상에 자신의 감정을 빗대어 말의 어순도 비슷하게 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였다. 또한, 인용된 상황을 청자가 상상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런 의미전달의 증폭효과도 맛보았다.

시냇물은 **돌고돌아서** 바다로나 **가지만**
요내이몸은 **돌고돌어서** 어디로 **가나**

나뭇가지에 앉인(앉은)새는 바람이 **불까 염려요**
우리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떨어**질까 염려라**

앞남산 살구꽃은 **필락말락 하는데**
우리둘(색시와 총각)의 정은 **들락말락 한다**

산천이 고와서 **뒤돌려다 보았소**
임이있던 곳이라서 **뒤돌려다 봤지**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시냇물은 돌고돌아서'의 첫 번째 가락에서 시냇물은 돌고 돌아서 바다로 가는데 자신은 님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 돌고 돈다는 어구에서 강물도 오랜 세월에 걸쳐 바다로 나가는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진다. 두 번째 가락에서 임과의 사이가 멀어질까 염려하는 자신을 불안한 나뭇가지에 앉은 새에 감정이입시켰다. 세 번째에서는 살구꽃이 피려고 하는 순간을 색시와 총각의 풋풋한 감정을 비교하여 표현하였다. 여기서 필락말락, 들락말락과 같은 귀엽고 친근한 의태어가 마음을 들뜨게 해준다. 마지막에서 떠나간 임을 그리워하다 떠나는데, 산천이 고와 뒤돌아 본 것이 아니라 임이 있던 곳이라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아 자꾸 뒤를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강원도 어러리에는 자연과 개인의 감정을 상호 연관시켜 대구법으로 빗대어 표현한 가사가 많다는 것이다.

아남산(앞남산) 뻐꾸기는 **초성도 좋네**
정든님(신랑)의 한숨소리 **영듣기 싫여**

산천초목에 물과유지(물과 땅)도 **임자가 있는데**
요내인생은 뭘로하여서 **임자(애인)이 없나**

횡성군 서원면 석화 3리

를 말해주고 있다.

3. 성적인 표현들을 다른 말로 돌려서 대신 말하고 있는 단어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들은 이렇게 대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아 은근하게 그 주제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재치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생활모습 엿보기

어러리는 서민의 노래이다. 일을 하면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신세한탄을 할 때 등등. 어러리 (아리랑)는 민중과 함께 해온 문화이다. 그러므로 어러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 문학은 그 시대와, 작가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도 어러리를 읽으면서 '아, 이때에도 이랬었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랬었던 것이 있었나 보네?' 하며 의문과 대답을 구하였다.

유교의 영향으로 남아선호와 남존여비사상이 강했던 옛 선조들의 어러리에서 특이하게도 여성의 대담한 행동들을 표현한 가사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는 여성, 시집살이시키는 시어머니를 욕하는 가사, 좋아하는 남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람, 그리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출산하고 싶어 하는 여인들의 한 등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발생했기보다는, 억압당하고 있었던 여성들의 속마음이 노래 속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모습 엿보기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첫째, 술에 관한 것이다. 어러리에서 우리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주막과 같은 술집에 가면 '이러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술잔을 기울이는 선조들의 모습이 재미있었다. 요즘이나 옛날이나 음주습관은 고치기 힘들다는 그런 생활 속의 재미난 진리를 어김없이 알려주는 그러한 어러리였다.

둘째, 신세타령에 관한 내용들이 대다수였었다. 평화롭게 사는 작은 시골마을의 처녀, 총각,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나 남편이나 모두 자기 생활에 작은 불만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꼬마신랑을 맞이한 아내라든지, 시집살이가 힘들어 시어머니를 욕하는 며느리, 혼기가 찼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노총각, 노처녀들. 물

론 이들이 그들의 작은 불만들을 항상 겉으로 표출하고 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들은 그런 자신의 신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을 것이다. 대신 그러한 불만을 노래에 반영하여 스트레스를 풀었으리라는 상상을 해 본다. 짧은 가사 속에 자신의 현재 심정을 모두 풀어내며, 마음껏 노래를 불러 제끼며 말이다.

마지막으로 선조들의 설레는 사랑이야기이다. 의외로 혼외관계에 관한 내용이 많아 멋쩍게 어러리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주로 남편의 바람으로 여자가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는 것만을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여자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며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것들이 꽤 많았다. 유교의 영향으로 여자는 무조건 내방에서 조용히, 열녀로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많이 달라서 놀라기도 하였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불륜들이 성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저 지친 삶에서의 우스갯소리로 하는 작은 말장난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얼굴을 붉힐만한 내용도 서슴없이 솔직히 표현해놓는 선조들의 대담성과 그를 비유로 돌려 말하는 언어의 사용에 많은 것을 느꼈다.

일식에야 월식에도 해달이야 돋는데
정든 님은 어디로 비춰서 날 상봉하나

위의 어러리를 읽어보면 창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짧은 2줄 속에 이 모든 것을 녹여낸 것이 놀라울 뿐이다. 창자는 님의 부재로,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리움과 님의 부재와 걱정을 일식과 월식의 해의 움직임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일식과 월식(님의 부재) 같이 해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해가 다시 돋는데, 자신의 님은 어디로 사라져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일식과 월식의 해처럼 다시 돌아오기만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창자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전통을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소중한 문화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이다. 앞으로 오래되었지만 그 속에 아름다움과 지혜가 담겨있는 우리의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엮음어러리의 이해

김 가 영/민족사관고등학교

우리가 흔히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원도 지역에서는 어러리라고 한다. 어러리라고 하면 아리랑보다 좀 더 삶의 애환이 느껴지지 않는가. 단지 음운의 차이인데 느낌이 많이 다르고 이미지가 많이 다르다. 푸르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해보자. 우리는 다 같이 '푸르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표현할 때는 제각각이다. '시퍼렇다', '새파랗다', '푸르딩딩하다', '푸르스름하다', '파랗다' 등, 똑같은 이미지를 다른 느낌을 살려서 표현했다.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가지각색의 느낌을 연출해 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현하는 방식을 즉,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다. 같은 가을의 쓸쓸한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였을 때, 표현하고자 하는 이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는 사뭇 다른 이미지를 창출해 낸다. 만일 사진작가가 이것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사진을 찍을 것이고, 화가가 표현할 때는 이를 그림으로 담아낼 것이다. 사진이나 그림이나 똑같이 풍경을 담아내는 것이지만 사진작가에 따라, 화가에 따라 담아내는 쓸쓸함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가을의 고독을 표현하고자 흑백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칼라 사진이 주는 느낌보다 훨씬 진한 그리움과 쓸쓸함이 묻어 나오게 할 수 있다. 화가도 유채화를 그리느냐, 수채화를 그리느냐, 혹은 수묵화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가을의 고독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들도 취하는 형식을 달리 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서 생각한 같은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자. 운문으로 표현하는 것과 산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운문에서는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표현 하나 하나에서 이미지의 중후한 농도를 느낄 수 가 있다. 예를 들어 가을의 쓸쓸함을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하자.

바스락 바스락
떨어진 낙엽 위를 걷는 이 내 맘을
밤새워 우는 귀뚜라미에 싣는다.

'바스락 바스락'이라는 표현은 짧은 문장 속에 들어 있어서 훨씬 효과가 강렬하게 나타난다. '떨어진 낙엽', '밤새워 우는 귀뚜라미'와 같은 표현에는 감정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농도가 상당히 짙어졌다. 그렇다면 똑같은 주제를 산문으로 풀어 써 보자.

"밝은 달 아래, 귀뚜라미는 밤 새워 우는데 나는 떨어진 낙엽 위를 정처 없이 걸어간다. 오늘따라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온다."

앞의 것에 비해서 감정의 농도는 줄어들었지만 그 만큼 좀더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이다. 둘 다 가을의 쓸쓸함이 묻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느낌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운문이냐 산문이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지만, 운문과 산문 각각의 것들도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어러리의 경우에도 그냥 2가행으로 되어 있는 어러리, 변형을 취해서 3가행으로 불리워진 어러리, 경우에 따라서는 엮어 불러진 어러리까지 다양한 모습이 있고 그 이미지 또한 다르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창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느낌이나, 표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정선읍내 물레방애는 물살을안고서빙글뱅글 도는데
우리집 낭군님은 날을안고서왜못 돌어주나

2) 산진매야 수진매야 휘휘칭칭 고리매야 절뚝밑에 풍경달고 풍경
밑에 방울달어
앞남산에 까투리 한 마리 툭채가지구 저공중에 높이떠 빙글뱅글 도는데
우리댁에 저멍퉁이는 날안고돌줄을 몰라요

1)과 2)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느껴지는가? 가장 확연히 눈에 드러나는 것은 길이의 차이이다. 첫 번째 어러리는 보통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2가행이다. 반면, 두 번째 어러리는 엮음어러리로 3가행이다. 그것도 1행이 14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두 어러리가 담는 내용은 '내 낭군은 날 안고 왜 못 도는가' 이다. 이 두 어러리를 감상하는 데에서 큰 차이를 주는 부분은 바로 어떻게 도느

나를 표현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어러리에서는 단순히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에 비유를 했다. 대신에 낭군이 '나를 안고' 도는 것을 포착하여 '물살을안고서빙글뱅글 도는데' 라고 표현하여 좀 더 느낌을 생생하게 살려준다. 그냥 날 안고 도는 것이 아니라 물레방아가 물을 안고 돌아가는 것처럼 돈다는 것. 이것이 가창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과 같이 도는 것이라고 했다면 좀 더 밀착해서 힘있게 돌아가는 의미는 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두 번째 어러리에서는 도는 모습을 매가 하늘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먹이를 낚는 모습에 비유했다. 확실히 첫 번째의 느낌과는 구별이 된다. 첫 번째 것은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 물레방아처럼 시원스럽게 돌아가는 데에 비해 두 번째 것은 먹이를 툭 낚아서 여유롭게 큰 원을 그리며 멋있게 도는 매처럼 돌아간다. 왠지 좀 더 조용하고 은은한 맛이 나지 않는가? 게다가 먹이를 낚아챈 매의 만족스러움과 기쁨에 대조되어 남편이 자신을 안고 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감정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른 엮음어러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가다보니 감낭귀냐 오다보니 옻당귀요 자빠졌다 잣나무 엎어졌다 엄낭귀냐 청실홍실 앵두나마 꽝꽝울려 불낭귀냐 작두못탄 꼴두쇠야 옹그화레 불꺼지니 앉았으니 임이오나 누웠으니 잠이오나 친대친대 돋워놓고 친자친자 돋워비고 얼마만큼 울었다
정거정 마당이 한강수가 되었네"

"니팔자나 내팔자나 아차한번 죽어지면 육신장포 일굽메끼 자질끈 조여메어 사시나무 장경틀에 밤나무 마구리에 대추나무 연초대에 왱그랑댕그랑 네귀에 풍경달구 영월평창 운주지골 대화방림 강름이통천네 문앞 수물두다릴 건네 오초넘차 북망산천 돌아들어 들잔띠로 이불을 삼고 눌잔디로 울타리삼아"

"한질두질 석질넉질 다서여서 일고여덜 아호열질 되는"

여기까지의 엮음어러리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냥 늘여 쓴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의 것들을 열거해서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은 어떤 효과를 가져다줄까? 그 효과를 나는 생동감 있는 감정의 전달에서 찾고 싶다. 처음에 살펴보았던 2가행의 어러리는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도는
모습 하나만을 포착해 내었다. 그러나 엮음어러리의 경우에는 다양한 매들이 하늘을 도

는 모습과 역동적인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빙글빙글이라는 느낌이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위에서 본 다른 역음어러리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처음의 2가행 어러리가 의도적으로 물레방아의 도는 모습만을 가지고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어러리를 부른 가창자(한달용)는 전체적인 어러리의 모습을 유난히 균형적으로 완성시켰다. 처음 엮어 부른 것 이외에는 모두다 2가행이고 마지막에 어랑타령으로 부르는 부분이 한 번 나올 뿐이다. 이렇게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 부르는 것은 전체에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어서 심상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 특히, 이 어러리는 전체적 분위기가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러리에서는 중간에 엮음어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엮음어러리들의 경우에도 그 길이와 표현의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엮음어러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산진매야 수진매야 휘휘칭칭 고래매야 절둑밑에 풍경달고 풍경밑에 방울달어 앞남산에 까투리 한 마리 툭 채가지구 저공중에 높이떠 빙글뱅글 도는데 우리댁에 저멍퉁이는 날안고돌줄을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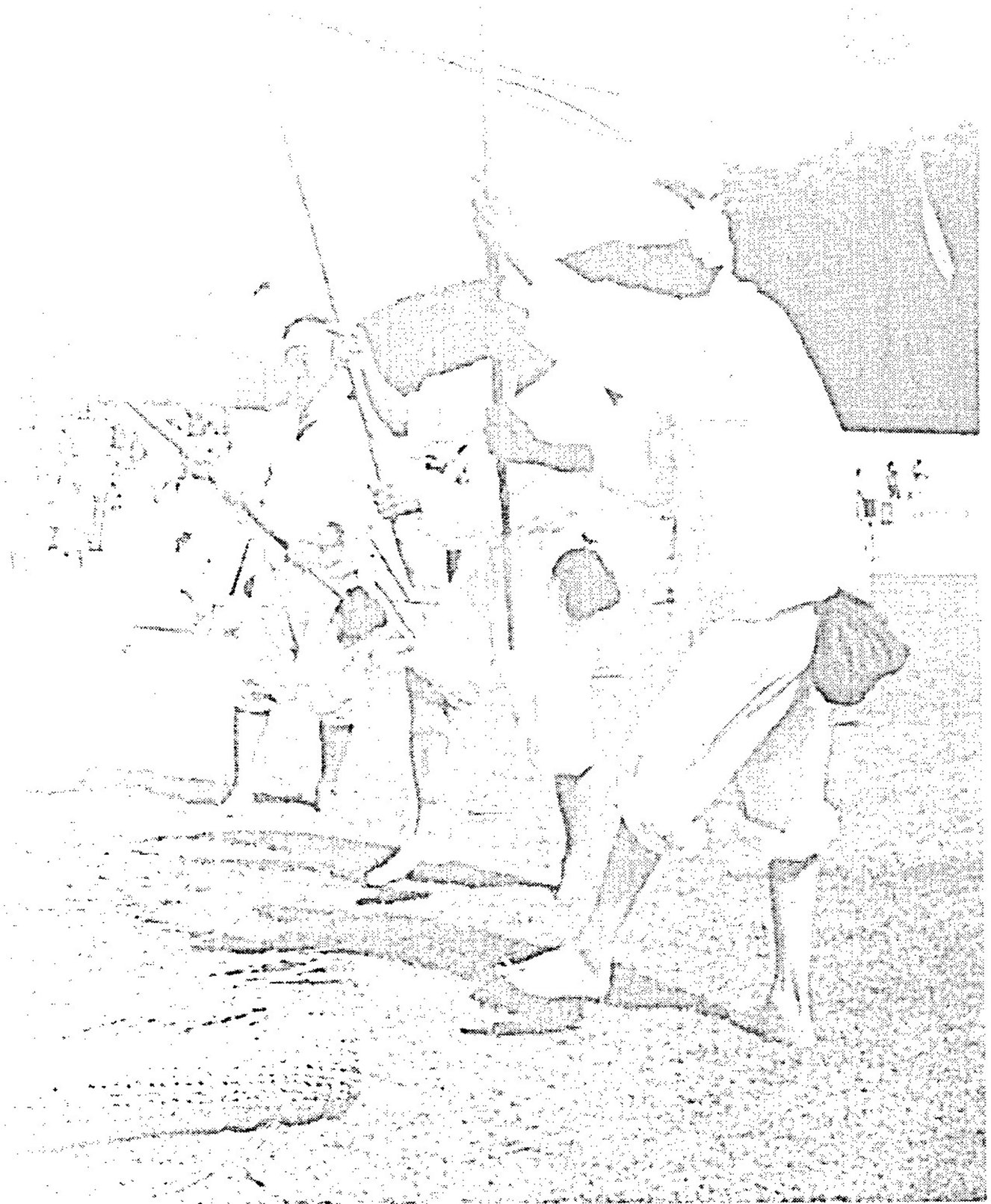
"정선읍네 물레방아 사구 삼십육 서른여섯살은 물살을 안구 사시상천 빙글뱅글 빙글비비배뱅글에 잘도나돌어를 가는데
우리집에 영감님은 날안고돌줄 왜몰러 주나"

두 번째 어러리는 첫 번째 어러리보다 비교적 짧고 열거되어 있는 것이 적다. 대신에 효과적인 느낌 전달을 위해서 '빙글뱅글'이라는 단순한 표현을 '빙글뱅글빙글비비배뱅글에'라고 표현하였다.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푸르다'가 '푸르딩딩하다', '퍼렇다' 등과 느낌이 다르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른 것처럼 '빙글뱅글'과 '빙글뱅글빙글비비배뱅글에'라는 표현으로 그려지는 물레방아의 모습은 다르다. 왠지 '빙글뱅글'도는 물레방아보다 '빙글뱅글빙글비비배뱅글에'도는 물레방아가 작고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가.

이렇듯 어러리 하나하나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가장 효과적인 느낌 전달을 위해 적합한 표현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러리를 잘 살펴보면 가창자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어러리를 불렀는가를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다. 표현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때의 상황에 다라서, 또는 가창자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는 것도 알아 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위에서 예로 제시하였던 어러리들에서도 발견할 수 가 있었는데, 살펴본 것들 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것들이 있다.

'우리집 낭군님은 날을안고서왜 못 돌어주나', '우리댁에 저멍퉁이는 날안고돌줄을 몰라요', '우리집에 영감님은 날안고돌줄왜몰러 주나'만 놓고 보자. 앞의 것은 남편을 '낭군님'이라고 표현했고 '저멍퉁이', '영감님' 까지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왜 그렇게 같은 남편을 두고 부르는 말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본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거리가 될 것이다. 어러리가 그리는 삶의 모습은 진정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는가.



숯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이 예 인/민족사관고등학교

Ⅰ. 연구 동기
Ⅱ. 연구 배경
1. 참숯의 특성
2. 목초액의 성분 분석 및 특성
3. 원적외선
Ⅲ. 숯의 활용실태와 사례들
1. 민간요법
2. 환경 개선
3. 해충방지
4. 건축에 이용
5. 미용에 이용
6. 기타
Ⅳ. 사례의 분석
Ⅴ. 결론

Ⅰ. 연구 동기

2003년 11월부터 기숙사 생활을 한 나의 민족 사관고등학교는 번잡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 진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하고 있다. 촛불을 손에 들고 마냥 기뻐하며 입학을 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마무리짓고 있다. 근 2년 동안 훌륭한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나의 새로운 지역 사회에 대하여 깊게 알아보고 그것을 정리해 보는 너무나도 값진 경험인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이다.

학교 근처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면 경원 참숯막이 있다. 그 정도 거리를 떨어진 곳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산골이다. 처음 그 곳을 갔을 때는 숯 때는 연기가 자욱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참나무를 가득 실은 트럭이 입구에 있었고 사장님께 논문 때문에

왔다하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다. 숯막에는 요즘 도시에서 유행하는 찜질방과는 달리 그야말로 숯을 꺼낸 그 숯막 자체에서 찜질을 하는데 밑에는 가마니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흰 옷이나 회색 옷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색이 있는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해를 입고 무채색 옷을 입어야만 숯막에서 해를 안 입는다 한다. 금방 숯을 꺼낸 숯막은 도저히 뜨거워서 들어갈 수 없었고, 만 24시간 이상 경과된 숯막이어야만 사람이 들어가기 적합했다. 사람들은 가마니 같은 것이나 타월을 몸에 두르고 찜질을 하고 있었다. 나도 타월을 몸에 두르고 숯막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찜질방과는 달리 온도가 매우 높았지만 가만히 참고 있으니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땀이 쫙 흐른 다음 바깥으로 나오니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었다. 푸른 산이 보이고 산바람이 불어와 무척이나 시원하고 자연적으로 땀을 말리는 것이 가능했다. 숯막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실이 없는 것을 의아했었는데 곧 이해가 되었다. 자연 바람으로 땀을 말리는 것이 몸에도 더 좋다고 하니 더욱 몸이 가벼웠다. 그리고 바깥에 주전자에는 목초액이 준비되어있었다. 몸에 안 좋은 청량음료를 마시는 대신 웰빙으로 목초액을 마실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목초액은 약간 미색을 띈 물이었고 메케한 냄새가 났다. 맛은 그을은 냄새가 나는 약간 시큼한 맛이었는데 그다지 맛있다고는 없었지만 상수리와 굴피나무 등이 들어간 건강음료라는 것을 사장님께 설명을 들었다. 예전부터 숯이 사람들에게 이로운 줄은 충분히 들어왔지만 직접 숯막을 견학해보니 더 깊게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번 해 여름에 강원도민체전 수중대회를 준비하느라 발이 아팠는데 이렇게 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마다 주말을 이용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찜질도 하고 논문 준비도 하게 되었다. 또한 방학에는 국립 도서관에서 도움을 얻기도 하였다.

숯은 목재를 탄화시켜 만들어 낸 물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2600년 전부터 숯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단지 높은 온도를 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습기 제거, 건강, 미용, 생활, 주방, 건축, 관상 등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횡성군의 2개의 숯막은 3대째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숯의 여러 효능을 많은 더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 또한 나중에 이 숯 관련 사업을 발전시켜 횡성군을 더 알리고 싶고 나아가서 보성 차밭이나 여러 온천과 같은 대한민국의 관광코스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연구 배경

1. 참숯의 특성

1-1. 숯의 개념

숯이란 '신선한 힘'이란 뜻을 지닌 우리말로 재료물질을 섭씨 600~900도의 온도에서

일차적으로 탄화시킨 것(C12)을 말하며, 맛과 냄새가 없다. 그리고 다시 섭씨 600~900의 온도에서 같은 공정을 한번 더 거치는 활성화라는 과정을 거쳐 작은 구멍들이 생기게 된다. 숯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숯의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아주 작고 수많은 구멍 때문에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작은 구멍은 크기가 다양하고, 이것은 액체 상태로 된 여러 가지 물질을 흡착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되므로 숯이 흡착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숯의 주성분인 탄소는 전기 에너지를 모으고, 축적, 유지하여 바로 자신의 전자를 남에게 내어주어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숯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성분은 미네랄인데 숯의 원료인 나무가 오랫동안 땅에서 흡수한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 태워도 없어지지 않고 숯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숯에 포함된 미네랄은 친수성이 높고 물에 녹기 쉬워 체내로의 흡수성도 높다.

숯이 흡착해내는 물질로는 농약의 살충제 종류인 디디티(DDT), 마라티온(MALATHION), 파라티온(PA), 약물종류인 아스피린(ASPIRIN), 바비트레이트(BA), 코카인(COCAINE), 아편(OPIUM), 모르핀(MORPHINE), 페니실린이 있고, 수은, 염소, 철분, 납, 은, 인산과 같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벤조피린같은 발암물질도 흡착한다.

1-2. 참숯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약 2천 600년 전부터 숯을 집안의 상비약으로, 영농자재로, 귀신을 쫓는 용도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신라시대에는 숯불로 밥을 지어먹고 차를 끓여먹었던 기록이 있고, 숯화로 가득히 숯을 담아 밥을 데우고 숯다리미로 옷을 다려 입었으며 아기를 낳은 집에서도 문간에 금줄을
걸 때 숯덩이를 끼웠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에게 외부인이 들락거리며 병균이 옮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 아기를 낳아 처음 외가에 데리고 갈 때에도 이마에 숯검정을 칠했다. 숯이 잡귀로부터 아기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가에서도 대문에서 한발 들어 딛는 곳에는 숯을 묻었다. 출타 후 집에 돌아오는 사람의 몸에 붙어 왔을지도 모르는 악귀, 즉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이다.

우리 선조들이 우물을 팔 때 밑바닥에 숯을 묻고 장을 담글 때 장독에 숯덩이를 띄우던 일, 배탈이 났을 때 우리 선조들은 물에 숯가루를 타서 손가락으로 휘휘 저어 먹여 아프던 배가 감쪽같이 낮던 일을 결코 심리적인 요법만은 아닌 것이다. 옛날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도 부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에 기름을 묻혀 태운 소지탄을 물에 타서 드리기도 했다. 자신의 육체를 태워 만든 그 숯이야말로 하늘도 감복시키는 숯 중의 숯으로 여겼던 것이다. 우리 조상의 농사에도 숯을 요긴하게 활용해 왔다. 숯가루를 논

에 뿌리게 되면 요즘처럼 농약을 쓰지 않고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잔병이 들었을 때도 숯가루를 먹이면 금방 괜찮아지곤 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국대전에는 해마다 번호를 정해 차례로 서울로 올라가 각 관사에 배정된 목탄을 준비하라는 기록이 있으며 중종 24년에는 "숯을 만들어 의미적으로 바쳐야하는 향탄산이라는 제도가 있어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다"는 기록이 있어 숯이 세금으로도 이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합천 해인사에 소장된 팔만대장경(국보 제 32호)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경각(국보 제 52호)을 지을 때 경판 보존의 절대적인 요건인 습기 조절과 통풍을 위해 숯과 소금을 쌓아 지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중국에서도 옛날부터 숯을 사용하였다. 중국 협서성에서 진시황제의 조상인 진경공의 봉분 같은 것이 발굴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주위를 숯으로 방부 장치 해놓아 2500~2600년 전의 시체가 지금 막 묻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관 주위에는 약 5톤의 숯이 쓰였으며 숯이 뛰어난 흡습제로 사용되어 관속의 시체가 영구 보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3. 숯의 종류와 그 특성

숯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탄화온도에 따라 흑탄과 백탄으로 나누어진다.

② 원재료에 따라 참나무숫, 소나무숯, 죽탄, 수피탄으로 나누어진다.

③ 탄화가마에 따라 건류탄, 유동탄, 화탄 등으로 나누어진다.

④ 목탄의 경도에 따라 연질탄, 경질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탄화 온도에 따른 숯의 분류가 가장 일반적이다.(강원 참숯 홈페이지 참조http://www.chamsoot.com/)



<table>
<tr><th>종 류</th><th>구 조</th><th colspan="2">성 분</th><th>특성 및 기능</th><th>제 조</th></tr>
<tr><td>흑탄(검탄)</td><td rowspan="2">숯을 구울 때는 불을 나무에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열에 의해 발생된 가스(열기)로 나무를 굽는데, 이때 나무의 세포벽이 타들어 가면서 수많은 미세한 구멍이 생김. 이 구멍들은 강한 흡착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해로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독소 등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힘도 가지게 된다.</td><td rowspan="2">탄소 : 90%
수분 : 7%
회분 : 3%
(미네랄 230여종)</td><td>약산성</td><td rowspan="2">강력한 흡착력
음이온 방사
원적외선 방사
흡습효과
소취작용
가스흡착
탈취작용
습도조절
전자파 차폐
항균작용
정수정화작용</td><td>가마 안의 공기를 차단시켜 천천히 식힌 숯 400℃정도의 저온에서 구워낸 숯</td></tr>
<tr><td>백탄</td><td rowspan="2">약알칼리
(pH8~9)</td><td>800 이상의 고온에서 탄화시킨 후 가마에서 꺼내 젖은 잿가루로 덮어 갑자기 식혀서 만들어지는 숯 경도가 강한 양질의 숯.</td></tr>
<tr><td>활성탄</td><td>숯이 가지고 있는 기공과 표면적을 더욱 많게 하기 위해서 백탄을 굽는 정련과정을 한차례 더 반복하여 숯의 고유기능을 강화 시킨 숯</td></tr>
</table>

숯을 사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용법이 있다. 하나는 탄소적 이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적 이용법이다. 본래는 에너지적 이용법으로 숯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철기 시대가 되고나서 탄소적 이용법도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일반적인 목탄의 성질은 또 숯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인 흡착력에는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이 있다. 물리적 흡착은 분자와 분자사이의 인력에 의해 그대로 표면에 흡착되어지는 현상인데 가열 등 외부로부터의 에너지를 가하면 분자는 쉽게 분리된다. 화학적 흡착은 화학적으로 흡수하는 현상으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하여도 쉽게 분리되지 않고 흡착분자가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숯의 흡착성의 효과로는 간단하게 가스흡착 및 선도유지, 습도 조절기능, 탈취기능 등이 있다.

2. 목초액의 성분 분석 및 특성

목초액은 일반적으로 참나무류의 목재를 탄화시킬 때 발생되는 연기를 포집하여 냉각시켜 생성되는 액을 다시 정치 및 여과시켜 만든 것으로 순수 광합성 자연에너지이다. 이는 탄소동화작용으로 잎에서 만들어진 태양에너지에 의한 생산물을 말하며 에너지를 수목에서 분리 및 정제하여 각 분야에서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농업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 원예, 버섯재배, 의약품, 건강음료, 탈취제 등으로 활발히 이용되어 지고 있다. 목초액은 산성으로 pH는 보통 2~3이다.

목초액의 성질은 탄화 온도와 탄재종류, 탄화법, 탄재의 함수율이 결정된다. 목초액은 숯을 구울 때 나는 숯 연기가 자연 냉각되어 떨어지는 액체를 회수한 것이다. 고로 채취시의 연기의 색상에 따라 성분과 성상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최초로 나오는 물연기는 촉촉하고 비중이 가벼우나 목초액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타르, 메탄올, 페놀 성분이 많고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된다.

채취한 목초액을 장기간 용기에 넣어 숙성시키면 함유된 성분의 비중에 의해서 상, 중, 하의 세 층으로 분리되어 상, 하층에는 경유질과 타르가 모이고 중층에는 목초액이 분리된다. 결국 목초액은 채취한 후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정치하여 숙성과 분리과정을 거쳐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타르나 크레졸과 같은 유해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종 류	구 조	성 분		특성 및 기능	제 조
목초액	나무의 70%정도가 수분이므로 숯을 태울 때 나는 연기의 대부분은 수분이고, 탄화의 마지막에는 점액분이 많이 섞여 나옴. 연기의 색이 회백색 단계나, 연기가 뭉게 뭉게 피어 오르는 때, 나무의 수액을 채취한 것을 목초액이라 한다.		산성 (pH 2~3)	온열작용 침투작용 악취분해 항균작용	숯을 구울 때 연기를 냉각시켜 주출한 나무의 엑기스

강원 참숯 홈페이지 참조http://www.charmsoot.com/

그러나 정치 분리한 목초액에도 목타르, 페놀, 메탄올, 크레졸, 벤조피렌 등의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특수한 공정을 거쳐 모든 유해성분을 제거한 뒤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음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음의 목초액은 적갈색(호박색)을 나타내는데 유해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목초액은 엷은 노란색을 띠는 투명한 액체가 된다.

〈목초액 성분 분석표〉(생활참숯 홈페이지 참조http://bm21.com/imsi/soot/)

성 분	조목초액	증류목초액
유기물 함유율	10.05	9.30
수분	89.95	90.70
유기물중의 산함유율	66.78	60.28
목초액중의 산함유율	6.71	5.61
pH	2.96	2.62
비중	1.008	1.007
색	황갈색	엷은 황갈색
투명도	투명	투명
침전상태	침전물없음	침전물없음

분석기관 : 일본 임업과학진흥소

3. 원적외선

원적외선이란, 적외선 중 파장이 긴 것을 말한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의 적색 영역보다 파장이 길어 열작용이 큰 전자파의 일종으로, 파장이 짧은 것은 근적외선이라 한다.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에 잘 흡수되며 유기화합물 분자에 대한 공진 및 공명 작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3-1. 전자파

원적외선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및 가시광선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빛은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으면 반사가 잘 되고, 파장이 길면 물체에 도달했을 때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침투력이 강해서 사람의 몸도 원적외선을 쐬면 따뜻해진다. 이 외에도 빛

은 진공 중을 직진하고 물질을 투과하는 등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빛(광선)은 전자파의 일종이다.

전자파는 대기 중의 전기가 전계와 자계를 생성하여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파동 모양으로 대기 중으로 전달한다. 이때 전달 속도는 광속과 같다. 전자파는 수많은 작은 입자의 흐름이다. 최소 단위 1개의 입자는 각각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이 에너지를 광양자 에너지라 부르고 파장이
짧을수록 크다.

적외선의 열작용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 생성에 도움을 준다. 또 세포를 구성하는 수분과 단백질 분자에 닿으면 세포를 1분에 2000번씩 미세하게 흔들어줌으로써 세포조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밖에도 발한작용 촉진, 통증완화, 중금속 제거, 숙면, 탈취, 방균, 곰팡이 번식방지, 제습, 공기 정화 등의 효과가 있어 주택 및 건축자재, 주방기구, 섬유 · 의류 · 침구류, 의료기구, 찜질방 등의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파장이 긴 적외선 중에서도 제일 파장이 긴 원적외선은 여러 가지로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의료, 생활, 건축 등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3-2. 음이온의 효과

숲 속이나 폭포, 온천 등에서 인체에 상쾌하게 느껴지는 (-)전하를 띤 공기의 원자요소이다. 음이온을 마시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피를 맑게하고 신경안정과 피로 회복, 식욕 증진의 효과가 있어 음이온은 공기 비타민으로까지 불린다. 쾌적한 자연 상태를 기준으로 숲 속, 온천, 폭포, 해안지역의 공기 1cc당 음이온의 분포량은 800~2000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기 중에는 이온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 두 종류로 나뉘며, 이런 전기의 미립자는 1000만분의 1mm정도라는 아주 미세한 크기로 지구상의 대기 속의 모든 곳에 무한히 널려있다.

음이온은 입자가 작은 물방울에 부착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어 폭포 주위에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폭포 주위의 공기는 신선하고 맑으며 또한 수목들이 언제나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다. 음이온이 많은 공기는 몸에 좋은 공기이다. 그러나 반대로 도시 한가운데와 같이 차량의 배기가스가 많은 곳, 공장의 매연이 가득한 공장지대, 쓰레기 소각

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공기가 오염된 곳에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양이온이 많이 있다. 이런 곳에서 오래 생활하면 만성 질병이 발생하고 몸에 갖고 있는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신축주택은 유해한 화학물질과 그 냄새로 더욱 심해 이런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8년이나 걸린다니 놀라운 일이다.

독일의 의학자 셀츠 박사는 공기 중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밸런스가 정상의 범위를 넘으면 신경통, 류머티스, 두통, 심장병, 천식 등의 만성병이 급증하고 대기 중의 양이온을 측정해 보니 그 양과 교통사고의 건수는 대게 정비례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오염된 과잉 양이온 공기를 계속 흡입하게 되면 쉽게 피곤해진다. 즉, 혈액이 산화하고 동시에 세포막이 산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음이온을 생체이온이라고도 부른다.

음이온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로운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폐 기능 강화작용

폐에 양이온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감기나 폐렴에 걸리기 쉽다. 음이온은 폐 기능을 높이기 위해 탄산가스 배출을 촉진하고 산소교환을 증가시킨다.

②면역 강화 작용

면역의 중심은 장과 간이다. 음이온으로 장과 간을 강화시킨다.

③혈액 정화 작용

건강한 혈액은 약알칼리성인데, 양이온은 혈액을 산성으로 만든다. 음이온은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성인병, 암, 알레르기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④정신 안정 작용

음이온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신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증폭시키는 엔돌핀을 활성화시킨다.

엔돌핀은 행복호르몬이란 별명으로 불리고 있고, 정신 안정 작용을 한다. 행복감은 곧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⑤진통작용

춥고 비오는 날 같은 저기압 시기에는 동기 중에 가득한 양이온 때문에 만성적 관절 류머티스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다. 음이온을 받게되면 신체의 이온 밸런스가 회복되어 아픔이 해소된다.

던 에어컨이라도 가동하는 날에는 곰팡이나 미생물이 무더기로 나온다. 이런 차내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흔히들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하지만, 차내의 향수는 냄새가 강하여 속이 울렁거리는 사람도 있다. 차내 공간을 무취의 신선한 공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숯을 사용하면 좋다. 이와 같은 숯의 원리로 냉장고 안에 숯을 넣기도 한다.

2-6. 옷장의 습기제거

흔히들 옷장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수분흡수를 효과적으로 하는 제품을 옷장마다 한 두개씩 놓곤 한다. 숯도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 옷장의 옷들을 뽀송뽀송하게 유지하게 한다.

3. 해충방지

3-1. 쌀벌레 퇴치

쌀통에 숯과 건조마늘을 섞어 넣은 주머니를 넣어두면 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숯의 흡착성과 원적외선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햅쌀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3-2. 애완동물의 진드기 방지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집 근처에 숯을 놓아두면 동물의 냄새도 막아 줄 뿐 아니라 진드기를 방지하여 준다.

4. 건축에 이용

4-1. 옛 건축에 사용

경주 석굴암, 불국사, 김제 금산사 등의 고찰 밑에는 수많은 양의 숯이 묻혀 있으며, 해인사 경판전에는 곰팡이나 거미줄을 찾아 볼 수 없는 것도 경판전 주변에 다량으로 매설된 숯의 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숯이 예부터 사용되어진 증거로는 경국대전을 보면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해마다 번호를 정해 차례로 서울로 올라와 각 관사에 배정된 목탄을 준비하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중종 24년에는 "숯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바쳐야하는 향탄산이라는 제도가 있어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다"는 기록이 있어 숯이세금으로도 이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2. 골프장

골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농약의 종류는 무려 21가지에 이른다. 이 중 주로 뿌

려지는 살충제는 6개, 살균제 8개와 코트 전체에 사용되는 제초제 7개의 종류가 있다.

목탄은 다공질이어서 투수성, 보수성이 크고 토양속의 유용미생물이 번식해 뿌리와 공생한다. 이 다공질 때문에 흡착성이 큰 특징을 갖게 되고, 이 작용으로 농약과 비료를 흡착해 골프장 등에서 농약비료의 시료량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것이 배수 중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며, 목탄은 유출되는 물 속의 유해물질까지 흡착해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 숯을 골프장 지하 배수구와 조정 못 유입구 등에 사용함으로써 농약 오염을 염려한 골프장 배수대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5. 미용에 이용

5-1. 목욕

숯을 욕조에 먼저 넣고 물을 받으면 미네랄이 용해되고 빨리 몸이 따뜻해지고 탕이 빠르게 식지 않으며 피부도 매끈해지는 효과가 있다.

고온에 구운 단단한 구조의 백탄을 물로 잘 씻은 뒤 천 주머니나 부직포 주머니에 3kg 정도 넣어 목욕 전 물을 받을 때 미리 넣어서 숯 내부의 미네랄 성분이 용해되었을 때가 온천의 효과가 높다. 숯을 이용해 목욕하는 것은 신경통, 류머티스, 요통, 냉증, 아토피성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가 있다.

5-2. 노화방지

노화는 전자의 이탈현상이다. (이것을 세포의 산화라고도 부른다.) 숯을 신체 가까이 두면 빼앗긴 에너지를 보충 받아 피로를 회복할 수 있고, 환자나 노약자에게도 건강에너지를 줄 수 있다.

6. 기타

6-1. 냉장고 과일박스

야채, 과일, 꽃은 스스로 에틸렌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에틸렌 가스는 본래 식물의 성숙, 낙엽, 개화, 흡수 작용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역할을 한다. 숯은 이 가스를 흡착하여 야채나 과일의 신선도를 오래도록 유지하게끔 돕는다. 또 과일이나 채소의 표면에 묻어 있는 농약 제거를 위하여 활성탄을 이용하는데,
과일이나 야채를 씻을 때 활성탄을 물에 30분~1시간 정도 담가 두면 활성탄이 농약 성분이나 유해물질을 모두 흡착한다고 한다.

6-2. 세탁

검정 숯 덩어리를 흰 세탁물에 넣고 세탁을 한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 보면 세재를 넣지 않고도 하얗고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검정물이 나오지 않는 단단한 참숯백탄을 부직포나 망사 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묶어 세탁기에 세탁물과 소금 1~2 스푼과 함께 넣는다. 심하게 찌든 셔츠의 목, 소매 끝의 때는 세탁 후 그 부분만 비누로 빨면 된다. 헹굴 때 식초를 큰 스푼 하나 정도 넣으면 더욱 부드러운 빨래를 얻을 수 있다.

6-3. 밥

숯의 원적외선이 밥이 되는 온도에 따라 방사되어 그 효과로 쌀알 속까지 고르게 퍼져든다. 이 때 숯에서 미네랄이 빠져 나와 쌀이 익는 과정에서 구수한 맛을 내게 된다. 또 밥물 또한 숯이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이 정화했기 때문에 밥맛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① 숯은 물로 잘 씻은 다음 끓는 물에 소독한 뒤 말려서 사용한다.
쌀의 물 조정도 보통 때와 같게 하고 쌀 3홉에 직령 3cm, 길이 5cm정도의 숯 하나를 넣고 밥을 하면 된다. (참숯 백탄과 같이 딱딱한 것이 좋다.)

② 한번 사용한 숯은 물에 잘 씻어서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하루정도 말린다.

③ 또 10회에 한번쯤은 끓는 물에 끓여 건조시켜 사용하면 효과가 계속된다.

④ 밥이 약간 탔을 경우에도 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⑤ 보온밥통에 숯을 넣어두면 산화를 막는다.

⑥ 밥통에서 밥이 누렇게 된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푸석푸석해 진다는 것 은 열을 가한 음식물이 일정한 시간을 지나서 산화(酸化)해 간다는 증거이다. 숯은 그것을 방지한다.

6-4. 술

술잔 안에 조그만 숯을 한 덩어리 넣고 마시면, 술맛이 부드러워지고 술의 독성을 제거한다.

6-5. 장

우리나라는 예부터 콩을 발효시켜 장을 담가 먹었다. 장을 담글 때 숯 한 덩어리를 같이 넣으면, 숯이 발효로부터 나오는 불순물들을 흡착해 더 맛좋고, 부드러운 장을 만들어낸다.

IV. 사례의 분석

숯과 활성탄의 기능을 실생활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잇는 기능으로는 크게 열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을 기능에 맞춰 분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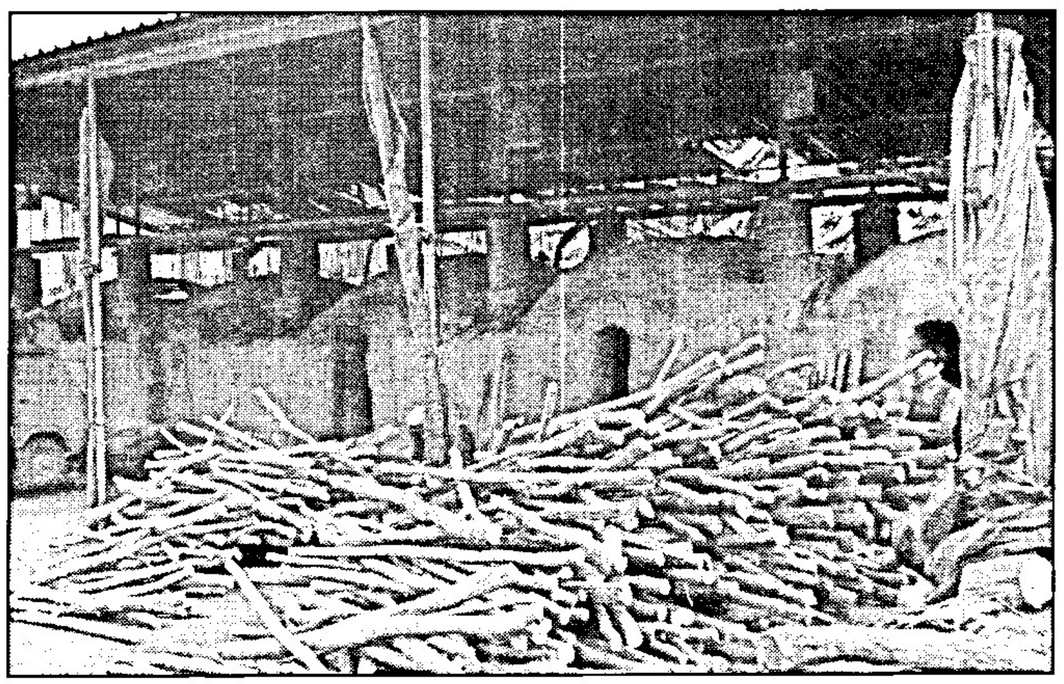
1. 흡착제거 효과

모든 화합물에서 이 활성탄에 대해 물리적 흡착은 다 일어나지만, 화학적 흡착은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즉 활성탄의 독물 흡착은 많은 부분이 가역적이다.

활성탄을 사용하여 칡의 쓴맛을 내는 성분인 산성 물질을 흡착, 제거하여 쓴맛을 제거한 보고가 있다. 또한 숯이 흡착하는 물질들은 다음과 같다. 국부 마취제, 진정제용, 각성제(식욕가미제), 청산가리, 현삼과, 비소, 보통최면용, 진통제(최면제용), 장뇌, 살충제, 독미나리, 말라리아 특효약, 진정(구토방지제), 요오드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사 례

1-1. 숯을 감염에 사용
1-5. 숯을 자궁종양에 사용
2-4. 새집증후군
3-1. 쌀벌레 퇴치
4-2. 골프장
6-1. 냉장고 과일박스
6-5. 장



2. 냄새 제거 효과

숯은 부패균의 발생을 억제해서 냄새의 근원을 없애고 그 악취를 흡착하고 염소 등 소독 냄새가 강한 수돗물을 여과하는 효과가 있다. 또 밥이 약간 탔을 때 밥 속에 숯을 넣으면 탄 냄새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주부들이 사용해온 방법이다. 숯의 다공질은 암모니아 가스 등의 냄새를 흡수하는데 있어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 김치 냄새가 훨씬 덜 나고 야채실에 넣어 두면 야채의 신선도가 훨씬 오래간다고 한다. 숯을 냉장고 야채실에 놓아두게 되면, 야채와 과일로부터는 나오는 식물의 열매와 잎의 성장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에틸렌가스를 흡수하고 습도를 조절하여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 안에 참숯을 놓으면 오래된 차의 에어컨

에서 나는 찌든 냄새를 흡착하여 냄새를 제거하고 차량 내부의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해 준다고 한다.

사 례

2-1. 수돗물의 정수
2-5. 차 안의 악취제거
3-2. 애완동물의 진드기 방지
6-3. 밥

3. 여과 효과

오염된 공기와 물이 숯을 통과하면 숯 내부의 다공질 구조 때문에 강력한 여과효과를 보이는데, 독가스를 무독화하는 방독 마스크에도 활성탄이 들어 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양수액 포도당, 아미노산 등의 물도 숯으로 여과한 것이 있다.

숯가루는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로 된 작은 입방체로서 현미경으로 보면, 수많은 미세한 가는 구멍이 잇는데 이 세공의 역할은 소화가 되지 않고 장내에서 부패하는 단백질 찌꺼기나 지방 알갱이를 흡착시키고, 야채나 과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성분이나 중금속들을 흡착시킨다고 하며, 숯이 장에 들어가면유해한 배당체와 결합해 이들이 체외로 배출되기 쉽도록 만든다는 사례도 있다.

활성탄은 가축의 사료에 잔존하는 각종 유해물질들을 흡착 · 분해하는 힘이 강하며, 모든 축종에서 소화 · 흡수율 증가, 유해가스 발생감소, 체질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료비, 약품비,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탈취, 방부, 여과작용은 숯의 다공질과 미생물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다공질로 냄새와 습기, 화학물질을 흡착하고 미생물로 독소를 분해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숯은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g당 내부 표면적이 무려 300㎡나 된다. 즉, 손마디 정도 크기의 숯에 테니스 코트 장 넓이 정도의 내부 표면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활성탄은 이 내부 표면적을 극대화한 것으로 3500㎡나 되는 놀라운 구멍 군을 가지고 있다. 구멍이 작고 많을 수록 좋은 목탄이라고 할 수 있다.

사 례

6-1. 냉장고 과일 박스

4. 음이온 발생 효과

숯은 탄소덩어리이므로 탄소가 발생하는 음이온을 무한정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탄소가 음이온을 모두 방전하는데 4500만년이 걸린다니 과히 놀랄 만한 생명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숯은 양이온을 흡착하고 음이온을 증가 시켜 주기 때문에 숯을 실내에 놓아두면 공기가 상쾌하고 신선해지게 된다고 한다. TV, 컴퓨터 등이 양이온이 다량 배출되는 제품들인데, 양이온이 많은 곳에서는 긴장, 흥분, 초조하기 쉽고 피로가 빨라진다고 한다.

사 례

1-2. 숯을 통증에 사용
1-3. 숯을 소화기에 사용
2-3. 공부방
5-2. 노화방지

5. 해독 효과

인체 해독제로서의 치료 연구는 1800년부터 활발해졌고 많은 사례와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해독제로서 활용된 charocoal의 첫 체계적 연구는 1800년 초 프랑스에서 시도 되었는데, Betrand라는 화학자가 1811년 동물의 비소중독을 연구하여 charocoal과 5g의 비소를 섞어서 삼키므로 그 유효성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Touery라는 프랑스 약학자는 1820~1840년에 동물실험을 하고, 1831년에 프랑스 의학협회 회원들 앞에서 치사량의 10배량의 스트리키닌을 charocoal 15g과 함께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Hort가 1834년에 Garrod는 영국에서 스트리키닌, 아편, 몰핀, aconite, ipecac, veraturum, elatarium, stramonium, cantharides, delphinium, hemlock, 수은, 질산, 은, 납 등에 charocoal이 해독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1848년 미국의 학자 Rand의 논문에서 몰핀, 스트리키닌, 수은, 캄포, 요오드, 염화제2수은 등에 대한 해독작용을 증명한 바 있다.

사 례

1-4. 숯을 두드러기에 사용
6-4. 술

6. 방부 효과

숯은 방부작용이 뛰어나 고려시대에는 양반의 무덤에,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무덤에 반드시 숯을 묻어 장례를 지냈다고 전해온다. 약 2100년이 지난 마왕퇴고분에서 발굴된 유체가 사후 4일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만 보아도 숯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미생물이나 곰팡이 등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도상구균과 이질, 대장균에 대한 숯의 항균실험 결과, 포도상구균이 1/1000 이상으로 줄어드는 등 항균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사 례

4-1. 옛 건축에 사용

6-1. 냉장고 과일박스

7. 습도 조절 효과

우리가 사는 환경에 있어서 습기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잠을 자거나 생활을 하면 몸이 무겁고 잔병이 많아진다고 하며,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건조한 스펀지가 물을 깨끗이 흡착하듯이 고온에서 구워진 숯은 수분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아 주위의 습도를 줄여주고, 또 너무 건조하면 수분을 방출하여 습도 조절을 자연스럽게 해 준다고 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터를 매우 중시해 집터에 수맥이 지나가고 있거나 수맥을 건드릴 경우 습도조절을 위해서 숯을 묻었다고 한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비롯하여, 석굴암, 다보탑의 기초에 다량의 숯이 묻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습도 조절에 숯이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옛날 일본의 NHK가 방영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마루 밑에서 숯 자루를 넣어 둔 곳의 습도가 50%인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의 습도는 76%나 되었다는 예가 있다.

사 례

2-6. 옷장의 습기제거

4-1. 옛 건축에 사용

8. 유해 전자파, 방사선(라돈) 차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흔한 모든 전자 제품에서는 몸에 해로운 전자파가 나온다. 휴대폰 때문에 뇌종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형광등, 면도기, 전자렌지 등 모든 전자제품에선 전자파가 나오기 마련이다. 임산부는 기형아를 낳는 경우도 있다.

숯이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것은 일본 교토대학의 목질 과학연구소 이시하라 교수에 의해서 밝혀졌다. 원래 나무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나무가 숯이 되면 세라믹처럼 단단하게 되고 부딪치면 금속소리를 내기조차 한다. 따라서 숯이 되면 전기 특성을 띄어 전기가 통하게 된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 방출된 전자파는 숯의 내부로 흡수되어 전자파가 소

멸되게 된다.

9. 미네랄의 보고

수목은 오랜 세월에 걸쳐 대지로부터 흡수해 올린 미네랄을 잔뜩 품고 있는 미네랄의 보고이다. 나무 속에는 중량비로 보아 0.3~0.6% 정도 미네랄류가 함유되어 있으며, 그 나무를 숯으로 구우면 미네랄 성분이 약 4~5배로 농축되어 회분으로서 숯 속에는 약 2~3%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숯에 함유된 미네랄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망간 등이다. 활성탄은 소채류, 과수, 화훼, 화분, 버섯재배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토질을 개선함으로써 연작에 따른 질병이나 성장부진으로부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사 례

5-1. 목욕

6-2. 세탁

6-3. 밥

10. 가축 정장제/지사제로 활용

소의 몸에 가스가 찼을 때에 활성탄이 가스를 흡착하는 작용을 하며, 가벼운 생리적 설사의 경우, 활성탄의 흡착능력을 이용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돼지에 대해서는 설사 지사제로 또 변이 묽을 때의 정장제로 이용이 가장 일반적인데, 활성탄이 가진 구멍이 수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여 정상적인 변으로 되돌려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단순한 생리적 설사는 활성탄을 주는 것만으로도 완치되는 수가 있으나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일 때에는 항균제와 같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첨가량은 비교적 많아 사료량의 2~3%의 첨가가 요구된다고 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들을 이용한 사례들이 많아 기능에 맞춰 나누는데 어려웠다. 특히나 사례 3-1과 사례 6-3은 원적외선의 효과도 같이 생각해줘야 하는 것이었다.

V. 결론

우연치 않은 계기로 실생활에서 숯을 사용해보고 그것의 효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논문은 숯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숯이 활용되는 범위와 그 사례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등 숯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근거자료들을 분석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간단하게라도 숯을 이용하는 32명이었다. 이분들의 사생활문제로 인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숯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다양했다. 숯을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양의학의 치료에 진전이 없거나 양약에 대한 부작용 또는 현대의학기술에 대한 불신 등이 있었다. 그 외 다른 곳에 숯을 사용하여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람들은 현대적인 기술로 해결이 안 되거나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숯의 효능에 대한 말을 전해 듣고 사용하고 있었다.

숯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범위는 광범위했다. 민간요법에서는 주로 숯을 감염이나 통증, 소화기계 질환, 호흡계 질환, 두드러기 등에 사용하였고, 그 중 소화불량, 통증, 감염, 설사 등에서 효과가 확실했다. 특이하게 자궁종양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발견하기도 했다. 환경개선에서는 물의 정수, 공기 정화, 습기 제거 등에서 탁월한 효능을 발휘했고, 해충방지와 건축에도 이용되었다. 미용분야와 세탁 또는 밥을 짓거나 술과 장을 담그는 의외적인 곳에도 숯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분석하여 숯의 효과를 열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보았다. 숯의 가장 큰 효과는 숯의 흡착제거 효과와 냄새제거, 여과 효과가 있다. 흡착제거 효과는 감염과 자궁종양, 요즘 문제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에 이용하고, 악취제거, 수돗물 정수 등에는 냄새제거 효과를, 냉장고 과일박스의 과일 신선도 유지에는 숯의 여과 효과를 돈독히 보고있다. 또 숯은 음이온을 발생하고 해독하는 효과도 있으며, 방부, 습도 조절 효과도 있다. 게다가 유해한 전자파나 방사선을 차단해주고,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있고, 가축 정장제나 지사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숯의 효능이나 사용법은 숯의 확실한 효과를 경험한 일반인들이 현대 생활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다른 일반인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구전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숯 사용의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민간요법에서는 고름 같은 것을 흡착시킬 때 숯을 피부에 직접 닿게 하면 문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것은 숯과 피부사이에 거즈를 사용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곳에 숯을 사용할 때 숯이 깨지거나 가루가 나와 변색되거나 하는 불편은 숯의 종류에서도 가장 딱딱한 백탄을 사용하면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

숯을 사용할 때의 반응으로는 복용에 대한 거부감과 무취, 무미의 까만 것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하는 반신반의의 태도였다. 그러나 사용 후에는 대체적으로 만족하였고, 숯의 저렴한 가격에도 만족한다고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민속요법이라 하면 원시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숯 사용에 관한 효과는 대한약전과 다른 나라의 약전 외에도 여러 책에 수록되어 있고, 또 숯에 관한 책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다. 숯의 작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러한 민속요법들 중에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자체를 비과학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것들은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하기 전에 연구와 경험담을 통해 과학적으로 근거를 찾고 널리 알리도록 해야겠다.

참 고 문 헌

[1] 이경순, 민속요법으로 활용되는 숯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2] 최미현, 생활 조재인 숯을 이용한 탐구안 개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조원주, 숯을 이용한 직물의 천연 염색,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 유상기, 참숯 : 사람을 살리는 신비의 숯, 대한한약, 3, (1999)

[5] 임영래, 숯가루가 반죽의 발효와 빵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 동아 새국어 사전, 동아출판사

[7] 참숯의 가스 흡착능 분석 실험과 실용화 모델링, 원예과학기술지, 19(2), (2001)

[8] 숯과 활성탄의 기능성과 연구 동향 분석, , 36(2) ,

[9] 이범식, 참숯을 이용한 두피 관리 및 탈모 개선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0] 강재윤, 숯이 생명을 구한다, 영진미디어, 2005

[11] 강원 참숯 홈페이지, http://www.charmsoot.com/

[12] 생활 참숯 홈페이지, http://bm21.com/imsi/soot/

[13] 강원 횡성 참숯 홈페이지, http://www.soot.or.kr

[14] 좋은 참숯 강원 참숯 영농조합 홈페이지, http://www.goodsoot.com/

아름다운 횡성

서 제 원/횡성읍 읍하리 대동 아파트 103동 907호



지인들과 경상북도 김천을 다녀온 바 있다, 점심 식사집 주인이 요구르트를 마시고 있었다. 파스퇴르 제품이었다. 일행한 사람이 주인에게 "그 요구르트 어디서 만든 건지 아세요?" 하고 물으니 라벨을 드러다 보고 떠듬떠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한다.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요" 하고 일깨워 주는 일행의 눈빛에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애향심과 고향 횡성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서울에 자주 올라간다. 서울사람들에게 횡성에서 왔다고 하면 그들이 떠올리는 상품이 있다. TV에 많이 나오는 곳, 한우가 유명한 곳, 안흥 찐빵이 있는 곳, 서울에서 가까운 농촌 소도읍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

이때 나는 어깨가 으쓱해진다. 신바람이 난다. 그래서 여기에 부언해서 자랑거리를 보태준다. 향기 높은 더덕도 있고요, 세계적 명문고등학교 민족사관고가 있는 곳, 동계스포츠의 메카 성우 스키장이 있으며, 유서 깊은 섬강의 맑은 물이 흐르는 곳, 치악산과 태기산이 자리해 풍수해의 재난이 비켜 가는 곳이 횡성이라고 …

내가 하는 자랑이 좀 과했나 싶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름다운 횡성, 살기 좋은 횡성이란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 군은 여기에 더하여 2000년부터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을 벌리고 있다. 옛 정취가 물씬 나는 푸른 숲과 맑은 물, 아름다운 꽃이 어우러지고, 정리 정돈된 환경, 잘 보존된 자연이 숨쉬는 고장으로 만들어 정주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100대 과제를 골라놓고 차분하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가지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도심, 농촌도로가 확장 연장되고 포장되어졌고, 도로변 화분대에 계절별로 꽃이 바뀌어지고, 재래시장 리모델링으로 백화점 같은 재래시장으로 변모되었고, 벚꽃 길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세계적 수준이 되었고, 종합운동장은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열어 놓았으며, 마을이 있는 뒷동산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모두가 산을 즐기고 그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상가 간판도 눈에 띄게 아름다워지고

있다. 어수선하던 전기 통신시설이 지중화되어 거리의 깨끗함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외형적 변화는 우리의 삶의 활기를 더해 주고 편리하게 하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횡성의 참 모습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형적 변화보다 더 소중한 내면적 변화가 싹트고 키워져야 하는 횡성만의 차별화 된 정서가 아쉽게 느껴진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여유롭게 하고 순화시키는 몫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외형적 변화에 따른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러한 외면적 변화는 돈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가깝고 섬강이 흐르고 태기산과 치악산 자락에 위치했다는 것 외엔 어느 것이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 군보다 더 편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하드웨어에 변화인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구축이 아닌가 쉽다.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5만 군민의 생각과 행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 돼야할 것이다. 이것이 하드웨어 변화 노력보다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 보다 당신이 먼저, 나보다 당신이 더 우선이란 생각으로 상대를 높이는 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생각에서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베풀지 않고 주기를 바라기만 하는 이기주의 정신이 없는 사회가 진정 아름다운 횡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쉽다.

횡성이 좋아 살려고 들어온 어떤 사람의 하소연을 들은 바가 있다, 작은 일인 듯 하지만 그냥 넘기기엔 아쉬움이 남는 큰일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외출할 때 대문을 잠그고 가면 '도둑놈만 끼고 살았나'이고, '대문을 열어 놓고 집을 비우면 도둑맞고 이웃집 도둑 누명 씌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동네 분들이 술 먹고 노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고 '도도한 외지인'으로 매도되기가 일쑤라는 말이고, 서로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사고가 아쉽다면서 정을 주지 않는 배타적 정서가 내재돼 있다는 푸념이었다.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심덕을 가져야 한다. 상대에 대한 격려와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수 만개의 가시(비난, 질책)는 벌을 한 마리도 불러오지 못하지만 꿀(칭찬, 격려) 한 방울이면 수많은 벌떼를 불러모을 수 있다. 무조건 감사하라, 감탄사를 많이 내 뱉어라, 긍정 긍정 또 긍정하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 보라. 이런 것이 우리 모두를 편안하고 즐거

운 아름다운 횡성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친절이 친절한 횡성이 된다. 허가청을 찾은 민원인의 민원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차제하고라도 돌아가는 민원인의 기분만은 상하지 않게 하는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 한 보습의 흙도 한 폭의 수목도 우리들만의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돈주고 살수 없는 자산임을 생각하고 다루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도 가을이 되면 추운 겨울나기를 위해 줄기의 물기를 줄이는데 안간힘을 쓴다. 거추장스러운 잎은 아픔을 감수하고 떨어버린다. 미천한 곤충이나 야생동물들도 새봄을 맞기 위해 동면하거나 먹거리를 준비한다. 우리 인간들도 예외는 아니다. 김장을 하고 연료를 준비하는 등 겨울나기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횡성의 정체성을 키우는 일에는 소홀한 것 같다. 다른 지방에 없거나 못하고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가꾸고 키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을 물려줘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 흐르는 물에서는 물고기가 노닐어야 하고 숲에서는 들짐승들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해야 한다. 여기에 더불어 사는 5만 군민들은 친절한 사람, 웃음이 가득한 사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드는 길일 것이다. 저마다 맡은 일에 본분을 다하는 횡성사람이 되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다워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 한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가져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엄마와 아빠의 격이 달라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관계로든 상생관계이기 때문이다.

원주에서 횡성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2번을 타면 횡성군계에서 들려주는 녹음 멘트가 있다. "애국의 고장, 한우의 고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입니다." 이 말이 헛되지 않게 우리 모두는 횡성인의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하고 이를 위한 크고 작은 일에 게을러서는 안될 것이다.

역시 횡성에 오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말이 손님들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횡성, 살기 좋은 횡성의 진가가 드리워지게 될 것이다.

횡성예찬

류장희/재원횡성중고동문회장, 전 화천교육장



횡성에서 30여 년 긴 세월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보니 횡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횡성의 자랑거리가 무어냐 하는 것과 횡성 사람이 깍쟁이라는데 정말 그러냐"하는 두 가지다.

나로서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고 있는 생각을 다 짜내 대답이랍시고 해놓고 내가 생각 해 보아도 별 신통치가 않아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6.70년대까지만 해도 첫째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요, 둘째가 풍수해가 없고 식량의 자급자족이 되고, 셋째가 항일운동이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었다는 세 가지를 내세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소도읍 가꾸기 전국 최우수, 농공단지 조성, 횡성 회다지소리 전국 민속 경연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자랑이 더 추가되어 나가더니 이제는 하도 자랑거리가 많아서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는 정말 자랑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횡성한우축제. 정말 대단한 축제였다.

나는 처음 참가해 보았는데 공식 집계가 100만 명이 다녀가고 270마리의 한우가 5일동안 동이나 버렸단다. 이로 300억 원대의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한다. 이거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육장 재임시 홍천 한우와 횡성 한우, 평창 한우가 서로 좋다고 우겨대는 바람에 은근히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완전 승이라고 어깨를 펴도 될 것 같다.

안흥 찐빵. 정말 맛있고 선전이 잘 되어 있다. 여행을 해본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강원도는 물론 이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안흥 찐빵 판매소를 볼 수 있음은 물론 상표 도용 해프닝도 있으니 가히 그 명성을 알만하다. 값도 저렴하고 먹기도 좋아 타도에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 없다.

횡성 더덕. 그 향내에 반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70년대 횡성교육청에 근무 할 때 관내 어떤 학교에서 더덕 재배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횡성 더덕은 서울에서 더 호평 받는 농산물이 되었고 한우축제를 계기로 더 유명하게 되었다. 또 더덕을 이용한 새로운 음식

의 개발로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먹거리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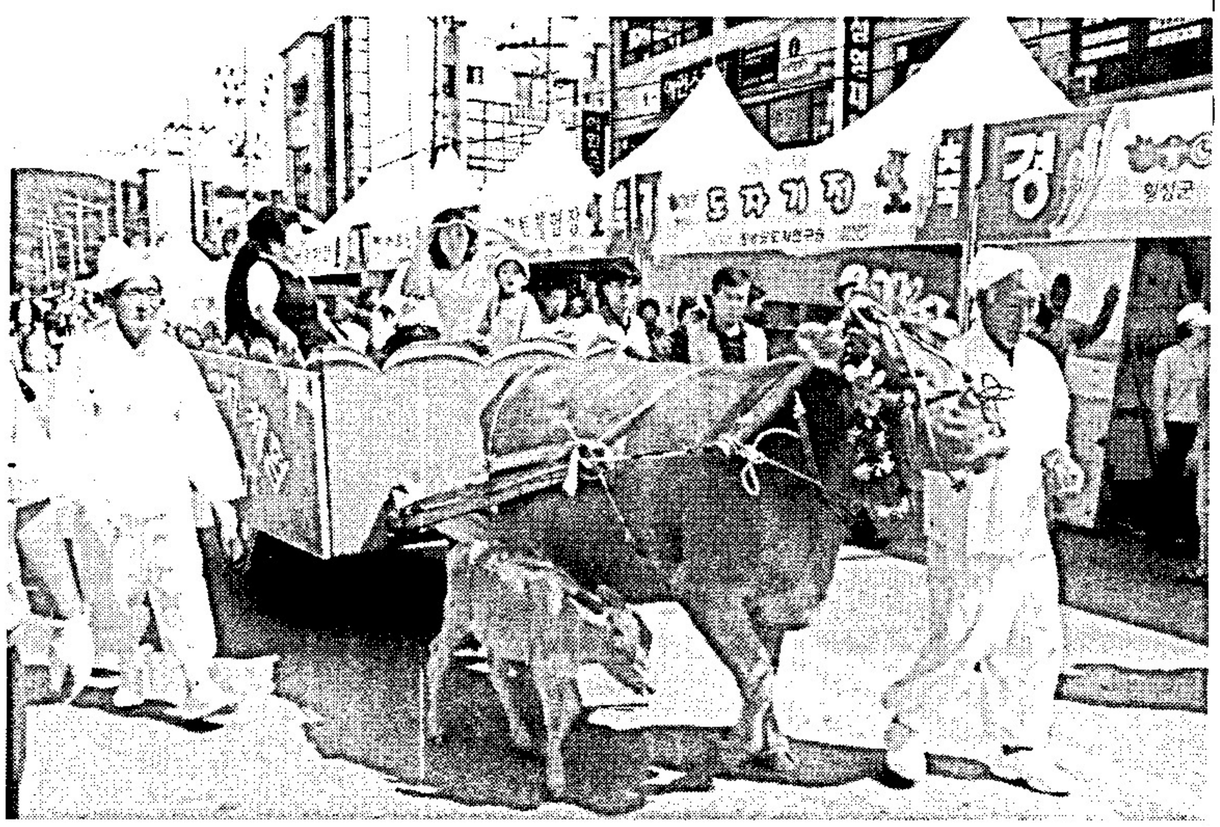
문화면에서 특히 전국적인 각종 체육대회와 국제대회의 유치는 횡성을 알리는데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몫을 했다고 본다.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치르어 낸 큰 대회들은 다른 시 · 군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리모델링과 활성화 방안들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밖에서 듣는 이야기로 제일 기분 좋은 이야기는 "횡성은 뭐 그리 잘해!"라는 부러움 섞인 이야기다.

체육대회에서 2부 우승은 물론이고 타 분야의 실적 평가에서도 많은 수상을 하였으니 그런 부러움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밖에도 내가 미쳐 알지 못하는 자랑거리들이 참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들은 어느 한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그 지자체를 믿고 모든 군민이 힘을 한데 모아 이룩한 고귀한 땀의 결실일 진대 어쩌면 "횡성 군민의 강한 응집력" 그것이 가장 자랑스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고향을 떠나 밖에서 바라보는 내 고향이 생동감 넘치는 자랑스런 고장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



앞으로 설치 예정인 골프대학과 타운은 횡성을 다른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인근 원주시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발전하게 되면 그 배후 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문제는 씽크뱅크를 어떻게 잘 구성하여 탁월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군민의 동의를 얻어 힘차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주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기억의 춤

정 금 자/횡성읍 북천리 태우A 2동 709호



동강, 제장마을 건너는 다리 위에 서서
오랜만에 오래도록 물소리를 들었네

길 건너 망초밭을 막 지나온 바람의 냄새와
째깍이며 망초꽃 송이송이를 세던 물소리

해질녘이면 마을을 걸어나가
강둑에서 바라보던 어린날의 그 물소리와 만나고

먼 기억들 풀어져 나와 여울처럼
여울처럼 춤을 추었네

그 오래 전 강기슭에서 띄운 종이배를 따라 달리다
길이 끊긴 둑방에 서서 바라보던 저물녘의 물살과

까닥까닥 떠내려 가던 그 쪽배가 부려 놓은
한 계집애의 희망이나 절망은
발끝이 닿지 않는 사람들의 바다에서 늘 까닥거리고

가라앉지 않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고단하게 놀리던
생의 물갈퀴를 잠시 수평선에 걸어두고

오늘, 은빛물결로 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볍게 가볍게 물수제비로 뜬 기억들이

반딧불이 나는 강가에 섰는 한 아이의
손을 잡았네 춤을 추었네

※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 공모 대상 수상

엽서 한 장

전 태 규/횡성문학회

단풍나무 아래서
사랑이라 받아 쓴 엽서 한 장
부끄러워 고쳐쓰고 자꾸 지우며
행여 마음 다치실까, 당신의
반 쪽 그리움에 젖어
겨우 내내 망설이다 잠이 들었다

사랑도 만나야 행복한 거
어쩌다 서로 헤어져 살 운명인 걸
안부전화보다
문자 메시지보다
깨알같이 받아 쓴 당신의 사랑
늦은 봄날 눈내리는 새벽에
나, 그토록 사랑했다고 고백하리!

우리 아버지

정 하 영/횡성문학회

생김새도 변변치 못했었고

풍채도 그리 당당하지 못했었고

뭔가 보여주겠다고 평생 다짐만 하시다

정리 못한 책상서랍 반쯤 열어두신 채

숲 속 솔바람으로 남으셨다

못 다 쓴 낙서장 한 귀퉁이

민들레 홀씨처럼 쓸쓸하게 피는 한 구절

미쳐서 살다 정신 들어 죽었다

가을의 기도

정 요 섭/횡성읍 읍하1리 415-1

가을에는
꽃이 되고 싶습니다.
화사한 꽃보다는
작은 들꽃으로 피어
제 분수껏
하늘을 우러러 보고 싶습니다.

만일 허락하신다면
작은 열매라도 좋습니다.
들찔레의 열매가 되어서라도
가지 끝마다 조롱조롱
작은 소망을 매달아 놓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에는
바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결실의 들판
여기 저기를 자유롭게 돌아보며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도 싶고…

아, 가을에는 내마음을
하늘에 올려 놓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몰래 밀어 올린
저 높고 푸른 하늘
천상의 계단 아래 조용히 무릎 꿇고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蟾江에서

권 욱 인/원주시 봉산동 1126-1

1. 두꺼비의 西遊記

太白의 두꺼비가 中原絶情 좋아해서
굽이쳐 쉬어간 곳 水白, 橫成 原州, 文幕
큼직한 알을 놓고서 興原倉에 보금져.

2. 蟾江의 形成

泰岐山 五音錦溪 結義兄弟 泰豊玉流
雉岳山 淸淸碧溪 다시모여 北原川을
두꺼비 訴願 따라서 蟾江이라 하였네.

3. 蟾江紀行

1) 五音山과 錦溪川

五音山 겹겹 溪谷 杜門洞을 彷佛했고
錦溪川 구비마다 沼와 들을 빚었는데
草塘과 蒼隱의 南村엔 賢人자취 돋보여.

2) 於斯買, 橫成 댐, 雲巖亭, 泰豊樓

泰岐山 發源水 中金벌에 바다되고
뒷내의 絶壁위에 雲巖亭이 의젓하며
於斯買 文武氣質은 泰豊樓에 걸렸네.

3) 北原京과 鳳山川

雉岳의 精氣담아 北原京을 열어노니
六百年 都邑地로 宣化堂이 證言하고
雲鶴은 춤을 추는데 두꺼비는 시뻐해.

4) 七峰書院과 玉山

玉山川 七峰溪谷 茂長들에 合宮하여
아담한 門前沃畓 茫茫堪輿 부러울까
虛와 實 群像의 넋이 書院뜰에 서성대.

5) 艮峴 遊園地

湖巖을 돌아내려 白沙場에 原色마을
아침해 높았는데 늦잠 들어 고요터니
순간에 깨어난 두꺼비 뜨고 뜬다 生氣가.

6) 翠屛沼와 개나루 나루터

絶壁을 굽이쳐서 翠屛沼에 쉬었다가
개나루 배터에서 아득했던 地平線아
들어찬 工團의 熱氣로 두꺼비가 놀래라.

7) 魯林川邊 追憶

달려온 두꺼비가 魯숲벌에 이르러서
世俗의 文武人傑 樹林속에 隱居하며
棟樑의 名分을 살려 中原文物 이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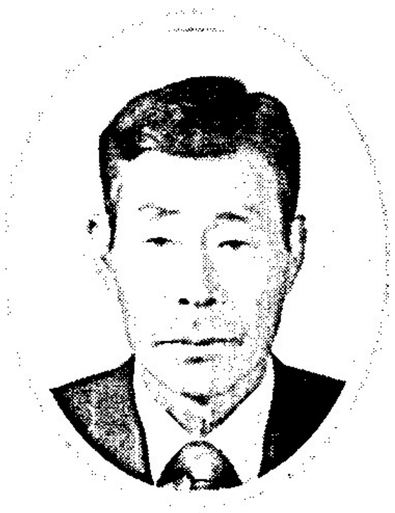
8) 興原倉 古趾

興原倉 나루터에 흥청대던 배터風物
寧平旌 雉岳圈에 文物交流 起點인데
때 잃은 지친 두꺼비 合水沼에 잠겼네.

* 횡성 태생인 권욱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였으며, 이 작품은 그의 문집 『燈火峴 鄕歌』에 실린 것이다.

歲　暮

厚堂 송 인 석/둔내면 영랑리 539



忽當歲暮會筵參　홀당세모회연감
日氣淸明更又曇　일기청명갱우담
倚枕思鄕煩夢惱　의침사향번몽뇌
掛燈守夜感懷含　괘등수야감회함
舊詩詠盡心惟樂　구시영진심유락
栢酒嘗來喜不堪　백주상내희불감
所計無成年且送　소계무성년차송
世間萬事付眠酣　세간만사부면감

문득 세모를 당하여 회연에 참석하니
일기가 청명하고 다시 또 흐리도다
베개에 의지하여 고향을 생각하니 번거한 꿈이 괴롭고
등잔을 걸고 밤을 지키니 감회를 머금었도다
옛 시를 읊으니 마음이 즐겁고
백주를 맛보니 기쁨을 견디지 못하도다
계획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해를 또 보내니
세간만사를 면감에 부치도다

初 冬

梅亭 이 승 호/원주시 흥업2리 1748-2



風急天高冷氣侵 풍급천고냉기침
江樓睡起整衣襟 강누수기정의금
恒憐柳老墨溪路 항연유로묵계로
可惜楓凋盤谷林 가석풍조반곡임
漁下鷺鷗蟾水諸 어하노구섬수제
樵歸牧豎葛豊岑 초귀목수갈풍잠
茅坪洞里田農叟 모평동리전농수
百穀收藏擊壤吟 백곡수장격양음

바람은 급하고 하늘은 높아 찬 기운이 침범하니
강루에서 자고 일어나 옷깃을 여미었어라
항상 가련한 것은 버들이 늙은 묵계 길이고
가이 애석한 것은 단풍에 시들은 반곡의 수풀이로다
고기 잡으려고 갈매기는 섬강 물가로 나려오고
나무하러 목동은 갈풍 산기슭으로 돌아가는구나
모평동리 밭농사하는 늙은이
백곡을 걷어들이고 격양가를 읊조리네

우리 이혼했어요

김 미 애/횡성읍 북천리 중앙Ⓐ 6동 105호



평소 우리 부부는 다정한 편이다. 시골이지만 넉넉한 살림살이에 화목한 가정, 술을 좋아 하지만 성실한 남편 그러나 성질머리가 개떡같은 남편과 잘살고 있다.

난 어릴 때부터 개를 싫어했다. 친정아버지는 개를 무척이나 좋아 하셨고 넓은 마당에 그럴싸한 개집 3개를 들여다 놓고 올망졸망한 개들을 10마리나 키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척 귀여웠는데 날이 갈수록 일이 많아져 개들이 싫어졌다. 학교에 다녀오겠다는 인사하는 나를 보시고는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면 개 밥 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집에서 제일 한가한 사람은 나였으니 개밥 주는 게 당연히 내 몫이었다.

결혼해서는 시댁에 개가 없어 얼씨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개를 무척 좋아한다고 했다. 에쿠 내 팔자야 아버지 닮은 남편을 만난다 하더니…

결혼할 때 개 좋아하냐고 먼저 물어 보지 못한 내가 원망스러웠다. 시댁에서 분가를 할 때 나는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했다.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분명 개를 키울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아니다 나들까 남편은 개를 키워야 한다면서 일반 주택을 원했다. 우리는 훗날 생길 일을 염려하지 못한 채 옥신각신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남편이 이겼고 이사해서 짐을 풀자마자 개새끼 3마리를 사와서 잘 챙겨 주라고 했다.

술 먹은 다음날 본인은 속 쓰리다고 밥은 안 먹어도 개밥은 꼭 주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편이다. "개 밥 줬어?" "응" 나는 이따금씩 개 밥 주는 걸 잊어먹고 두 끼 어느 때는 한 끼 줄 때가 많다. 남편은 쉬는 날도 나한데 개 밥 주라고 해서 짜증이 났나. 난 어쩌면 개밥 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싶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은 정말 귀찮다. 그래도 짐승 미워하면 죄받는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 안 그런 척 개들에게 다정하게 한다. 벌받기 싫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도 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밥 잘 챙겨주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간다. "걱정하지 마, 이래 봐도 내가 짐승을 얼마나 잘 돌보는데." "당신이 개를 알기나 하냐?" "그럼 당귀 삼 년에 페풍월이라 이런 말도 모르나?"

나는 문자를 써가며 친정에서 개밥 주는 당번이 나였다고 으스댔다. 당귀 삼 년에 페풍월이라, 그렇게 좋은 말을 저 개들한테 비유를 하다니 우리 부부는 맘껏 하하 호호 웃었다. 덩달아 개들도 신이 나서 웃는 것 같았다. 뒤돌아서 개집을 보니 요즘은 개집도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잘 만들까 싶다. 개들 좋아하는 남편의 뒷모습과 개들이 남편을 향한 눈빛을 보니 개 팔자가 나보다 좋구나 했다. 개의 눈동자가 그렇게 청승맞아 보여서 밉다. 그런 눈빛으로 남편의 동정심을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얄미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귀신에게 홀린 날이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장날 개 3 마리를 억지로 데리고 가서 개장사한테 팔았다. 지들도 아는지 안가겠다고 끙끙대는 개들에게 미안했지만 이젠 개들에게 벗어나 편히 살고 싶었다. 청승맞은 눈빛으로 나를 흘겨보는 개 3마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주인 만나서 잘 지내라 바바이 ~~" 깔끔하게 이별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안 살면 안 살았지 개는 안 키운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이 씨가 된다는 걸 무시한 채 말이다.

개 팔아서 생긴 돈으로 삼겹살 사고, 통 치마 하나 사고, 쓰레기통 하나 사고 남은 돈 천 원으로 노래하는 장애인 바구니에 넣었다. 기분이 좋았다. 싱글벙글 목젖이 터져라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아싸 아싸" 하며 노래를 부르며 청소를 하면서 개집도 깨끗이 반질반질 닦아 햇볕에 말렸다. 뒷집 영식이네가 달라고 하면 주려고.

하루 이틀 사흘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집안이 환하고 깨끗해 졌다고 좋아라 웃더니 "니 개 3 마리 어디나 뒀니?" "팔았는데." 남편은 충격에 휘청거리더니 나를 한데 후려치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다. 그래서 난 개 3마리 때문에 이혼했다. 당장 갈 곳이 없어 친정 집에 있는데, 평소에도 나를 못마땅해 하는 올케가 하는 말 "아가씨 개밥 좀 갖다 줘요" 친정 집은 개가 15마리나 된다.

저놈의 개새끼들 또 장에다 내다 팔면 난 이 집에서 쫓겨나겠지 ^*^ 히~~~

역사를 통하여

박 현 숙/횡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제A 105동 708호



5월의 향기에 흠뻑 취하는 아침, 빗줄기들이 오간 밤사이에 여운을 남기고 아침까지 고운 봄비가 오락가락 한다. 아침 8시, 내가 좋아하는 비가 내리고 남쪽을 향하여 2박 3일간의 문화탐방길에 오른다.

웬지 모를 흥분에 휩싸여 삶의 모습을 확인해 보며 문득 한점 바람에게도, 흔들리는 초록의 이파리들에게도, 소리 없이 터지는 꽃봉오리가 산으로, 강으로, 숲으로 쏘다니는 작은 님프들처럼 기쁘고 행복하다.

일행들과 즐겁게 담소하며 스치는 풍경들이 환상이었다. 지루한 것도 잊은 채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서해대교를 건너다보면 만나는 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여 명의 주민들이 바지락을 캐며 살아가던 섬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행담도 휴게소에 도착했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산뜻한 공기, 햇살마저 감미롭고 어여쁜 표정과 친밀감을 더하는 자연이 우리를 반겼고 일상에서 벗어난 순수만이 가득하고 행복했다.

다시 버스에 오르며 목포를 향해 질주하는 마음이 처음 가는 목포에 다다라 먼저 바다를 그리고 있었다.

남쪽으로 향하는 5시간 이상의 시간들도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봄 빛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차내에 흐르는 음악들도 감미로웠다. 오후 1시가 좀 넘은 후에야 목포 바닷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도착하여 바다와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비릿한 바다 내음이 향기롭고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갈매기의 유연함은 부드럽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 뱃길과 해양문화와 해양문화 유산을 찾고 지키며 가꾸고 알리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관람했다. 1975년에 신안 해저에서 보물선이 발견되면서 발굴이 시작되어 1981년에 선체편이 인양되었다. 중국 청자유물, 중국 통나무배, 해저유물로 고려청자, 생활용품도 나왔다. 인양 후 보존과 처리 및 복원을 훌륭하게 해냄으로서 세계적인 목제 유물보존기관으로 우뚝 서고, 이어

1994년에 전시실이 마련되면서 훌륭한 박물관으로 탄생하였다. 고려청자의 수요와 공급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수중문화재를 관람하고 모세의 길로 알려진 진도로 향했다.

다도해의 섬, 동북부는 경관이 빼어나고 토질이 비옥하고 해안은 개펄로 이루어져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한다. 울돌목으로 부르는 명량해협은 시속 79㎞의 조류로 일본의 나루토해협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조류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크게 무찔렀던 곳, 진도대교를 중반쯤 걸어 올라갔다 내려다보는 울돌목은 무서울 정도의 세찬 소용돌이가 왜적을 무찔렀던 그 날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또한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유물유적, 천연기념물, 기 · 예능보유자가 많고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잘 알려진 진돗개의 친근한 이미지는 우리 앞마당의 삽살개처럼 마음에 다가왔다. 카메라에 클로즈업. 순수하고 멋있는 자태는 가히 뽐낼 만 하며 가는 곳마다 진돗개의 모습과 강아지의 모습은 정말로 귀여웠다.

삼국시대의 성, 사적 제127호로 지금도 남아있는 남도석성을 보았다. 조선시대 왜구를 막기 위해 증 · 개축한 것이라 하는데, 규모는 서산의 해미읍성이나 순천의 낙안읍성에 비해 작지만 성곽의 두께와 위용은 그 이상이다. 정겨운 것은 성안에 살아있는 마을이다. 박제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있는 정겨운 고향이 있는 곳이다. 용장산성은 사적 126호로 지정된 현재 성지 일부가 남아 있으며 성내에 용장사지, 행궁지가 남아있다. 고려장군 배중손이 이끈 삼별초군이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벽파진은 국방상 중요 지역의 하나였던 진도의 관문 역할을 하던 곳으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에는 순군영을 두었으며 이순신의 전첩비가 있다. 또한 순천에서 시작된 봉수가 지나는 길목이자 해남현 삼기원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지금도 목포와 완도간, 목포와 제주간을 잇는 여객선의 기착지이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진도의 뱃길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는데, 그것은 시기가 맞지 않아 뱃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닷길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음력 3월말 희동리와 모도 사이에 2.8㎞의 바다가 40m의 폭으로 갈라지면서 신비의 바닷길이 열린다고 한다. 이곳은 지난 75년 현장을 본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랑디 씨가 '한국판 모세의 기적' 이라며 프랑스 신문에 기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바닷물로 출렁거리는 모습이 도무지 뱃길을 상상할 수 없는데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했나보다. 서쪽 하늘에 해가 세 뼘쯤 남았나보다. 붉은 빛으로 물

들어 가는 아름다운 석양의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을 따라 경관이 아름다운 세방낙조대 앞에 이르렀다. 바다에 떠있는 아름다운 섬들이 석양에 빛을 뿜고 있었다. 옛날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로 선정한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름다운 낙조에 여운을 남긴 채 어둠과 피로는 어김없이 몸 속까지 파고든다.

다음날 아침 일찍 피로를 씻어간 지난밤에 감사하며 땅끝마을 해남으로 향했다. 산이 아름다운 강원도에서 바다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남쪽나라, 또 다른 아름다움과 땅끝마을 해남으로 아침 햇살의 미소와 향기로운 바람, 초록의 이파리들의 축복 속에 버스에 몸을 실었다. 땅끝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더 끝을 향하여 걸었다. 소라껍질을 주어 귀에 대고 파도소리를 듣는다. 예쁜 돌들을 주머니 속에 모두었다. 바람이 몹시 불었다. 동백꽃잎이 뚝뚝 땅위에 붉게 물든다. 한 컷, 한 컷 찍어둔 사진들을 돌려보며 해남에 온 기념을 새겼다. 훈훈한 바람을 안고 땅끝마을을 등졌다.

강진 청자박물관에 다다른다. 천년의 신비로 불리는 '고려청자'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경부터 청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이때 만들어졌던 청자들이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명품들이며, 이중에서 80% 이상이 강진산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도자기의 색깔이 푸른 것을 비색이라고 한다. 아름답고 고운 빛깔, 또한 고려청자 중에 상감기법은 우리만의 값진 자랑임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를 탐방하면서 가족과 강진만을 바라보며 슬픈 마음을 달랬던 정약용 선생의 넋을 기린다. 당초에는 건물이 없었으나 선생의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 1975년 강진군에서 건립하였다고 한다. 발걸음을 돌려 날마다 그곳에 머물고 싶은 유명한 보성으로 향하는 마음은 벌써 보성 녹차만의 진한 향이 느껴지는 듯했다. 각종 CF 촬영지와 유명한 삼나무 가로수 길, 오랜 역사와 함께 최대의 차 생산지로 자리잡은 보성 녹차 밭, 산비탈 수 만평의 초록의 물결 속에 차 앞을 따는 아낙들의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는다. 우리도 CF의 주인공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카메라에 각종 표정을 담았다. 여운을 남긴 채 송광사 저녁 예불 시간에 맞춰 예불을 관람하기 위해 서둘러 버스에 올랐다.

천년 고찰의 송광사. 지금 남아 있는 기록에 의하면 송광사는 신라 말 혜린 선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길상사였으며, 100여 칸쯤으로 30, 40명의 스님들이 살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절이었다고 한다. 송광사가 지금

과 같이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각광받게 된 것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가 이곳으로 옮겨지면서부터라 한다. 송광사에는 국보 제42호인 목조삼존불감, 국보 제43호인 고려고종제서, 보물 제90호인 대반열반감소 등 전국 사찰 가운데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어둠이 먼저 산 속에 찾아들고 피로에 쌓인 일행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녁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산 속의 아침은 향기로 말을 걸어온다. 산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겹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송광사까지 산책을 했다. 숲 속의 요정들이 내 영혼에 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만 같고 이 순간만 같아라. 숲 속 나무 사이로 간간이 남아 있는 진달래의 꽃잎들이 애절하게 핀 채 남아 있었고, 봄을 넘어선 연두 빛 이파리들은 초록으로 진한 빛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일행 중에 우리보다 더 일찍 더 높은 곳까지 등산하고 내려오는 우리 식구들을 보았다. 모두가 행복하게만 느껴졌다. 아침식사 후 배낭을 둘러메고 우리나라 삼대 민속마을인 낙안읍성을 향했다. 삼한시대 마한 땅, 백제 때 파지성, 고려 때 낙안군 고을 터이며, 조선시대 성과 동헌, 객사, 임경업 장군비, 장터 초가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성과 마을이 함께 국내 최초로 사적 제 302호로 지정되어 있다. 3개 마을 생활 근거지를 감싸안은 듯 장방향으로 견고하게 축조되어 400년이 가까운 지금도 끊긴 데가 없고 웅장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도 91세대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민속 고유의 전통마을로서 민속학술자료는 물론 여가의 산 교육장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남부 지방의 특유한 주거 양식이 어린 시절의 정감어린 고향을 연상케 한다.

버스에 올라 순천 선암사로 이동했다. 고계산 기슭 동쪽에 자리잡은 선암사는 백제 성왕 7년(529년)에 아도화상이 비로암을 짓고 신라 경문왕 1년 도선국사가 선종 9산 중동리 산문 선풍으로 지금의 선암사를 창건하였다. 선암사 주위로는 수령 수백 년 되는 상수리, 동백, 단풍, 밤나무 등이 울창하다. 절 앞에 아취형 승선교는 신비롭고 사찰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절의 하나로 보물 7점 외에도 화려한 대웅전, 원통전, 금동향로, 일주문 등 지방문화재 12점이 있다.

마지막 탐방길인 남원 광한루에 도착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 보물 281호로 세종 16년(1434년)에 중건되어 정유재란 때 없어진 것을 인조 16년(1638년)에 재건한 광한루에서 오작교를 건너고, 춘향이 그네 뛰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세계 속에서 버들가지 넘실대는 사이로 혹시 이도령이 나타나는지 둘

러보았다. 마치 춘향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소침해지기도 했다. 한바탕 웃으며 햇살이 덥다고 느껴지는 오후의 한때를 출발의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득했던 문화탐방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버스에 몸을 던져버리며 따스하고 평온해진 마음으로 차창밖의 풍경들을 마음 속에 꼭꼭 심어 놓았다.

강원도 땅이 가까워질 즈음 남쪽의 평야지대를 바라보며 평안했던 마음과는 달리 매일을 살며 바라만 보아도 정겨웠던 눈에 익은 가로등 불빛의 희미한 그림자마저도 반갑고 편안함을 느꼈다.

마음의 정원을 만들었다. 가꾸고 열매 맺은 것은 우리들의 몫,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직물을 짜며 새로운 날들을 튼튼하게 키워 가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의 동산임을…

유익한 탐방 길을 열어주신 군, 문화원 관계자들 그리고 2박 3일 동안 함께 유익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나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횡성 향토문화 유적답사 보고서

이 다 휘/ 공근중학교 1학년

처음으로 우리가 간 곳은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위치한 풍수원 성당이다. 이곳은 신미양요, 병인양요 등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지면서 신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오래된 건축물이지만 매우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높아 1982년 지방문화재 제 69호로 지정되었다. 풍수원 성당은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다. 성당 뒤편에는 유물 전시관이 있으며 선작 수건, 성수 그릇, 묵주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횡성읍 읍하리 횡성군청 뒤편에 자리잡고 있는 3 · 1공원이다. 이곳은 횡성 읍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공원 입구 좌측에는 지방문화재 제22와 제23호인 읍하리 삼층석탑과 석불이 자리잡고 있어 고장의 문화재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원에는 국가를 위해 몸바쳐 싸운 이들의 큰 뜻을 기리는 충혼탑이 있고, 6 · 25 전쟁 때 참전했던 네덜란드 오우덴 중령의 참전 기념비가 공원 정상에 위치해 있어 이 고장이 애국 충절의 고장임을 넌지시 일러주고 있다.

한얼문화예술회관은 우천면 용둔리 폐교된 용둔초등학교를 이용하여 고 남농 허건 선생님의 제자이신 부부 예술가 동헌 이양형 선생과 설매 이정자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창작하신 작품들과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예술공간이다. 2003년 5월에 3,00여 평의 폐교부지에 교실을 이용한 창작실과 전시시설, 야외공원, 세미나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일반인도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하였다.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는 어릴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서 익숙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당시의 전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으로 태종대와 노고소를 보러갔다. 이방원이 임금으로 등극하기 전에 옛 스승인 운곡을 찾아 다시 관직에 앉히고 정사를 의논하고자 험한 산골이었던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강직하고 절개가 곧았던 운곡은 방원과의 만남을 꺼려 일부러 치악산 골짜기로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않았다. 방원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을 안 운곡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노파에게 자신을 찾는 사람이 오거든 횡지암 쪽으로 자신이 갔다고 일러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피신했다. 방원은 노파가 가르쳐준 곳으로 스승인 운곡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당시 방원이 머물던 곳을 '주필대'라고 불러오

다가 나중에 방원이 태종으로 등극하자 '태종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방원이 임금이 되어 다시 운곡을 부르자 차마 어명을 어길 수 없던 운곡은 상주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는 대궐에 들어가 태종의 형제간 살육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무언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임금인 줄 모르고 거짓을 아뢰었다가 나중에 그 분이 지엄하신 임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노파는 죄책감에 자신이 빨래하던 바위 아래 소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후 노파가 빠져죽은 소를 사람들은 '노고소'라 불렀으며, 이곳 마을에서는 매년 이 노파에 대한 제를 올렸다고 한다. 부근에는 방원이 만나지 못한 스승을 향해 돌아가면서 예를 갖춰 절을 했다는 '배향산'이 있고 임금의 수레가 넘었다는 '수레넘이' 고개'가 부근에 있다. 그리고 치악산 기슭에는 운곡이 머물렀던 '변암'이 그 당시 대쪽같던 운곡의 곧은 절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봉복사는 산 중턱에 있으며 예전에는 아주 큰절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불타 없어지고 조금만 남아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건축한다고 하였다. 산을 내려오면 인삼밭 가운데 3층 석탑이 있었는데 그만큼 봉복사의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망향의 동산은 초등학교 때 한 번 와본 적이 있었다. 2000년 초 횡성댐이 완공되어 담수를 시작하면서 갑천면 구방리, 중금리, 화전리, 부동리, 포동리 등 5개리 258세대는 영원히 물 속에 잠기게 되었다. 고향이 물 속에 잠기게 된 수몰민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고향에 대한 정을 잊지 않기 위해 구방리 옛 화성초등학교 옆 야산에 망향의 동산을 만들었다. 수몰민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가구와 수몰되기 전의 흔적들을 전시해 놓았다. 망향의 동산에는 기념비와 더불어 중금리 탑둔지에 있던 중금리 삼층석탑 2기와 화성정이 건립되어 있다. 망향의 동산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횡성 관내 향토문화 유적지

이 응 석/ 공근중학교 1학년

우리는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그동안 횡성에 살면서도 보지 못했던 많은 문화재를 답사하게 되었다. 아침 8시 50분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답사는 시작되었다.

첫 번째 찾아간 곳은 풍수원 성당이었다. 이곳은 고종 3년(1866년) 병인양요로 탄압 받던 신도들이 피난 온 곳이다. 고종 25년(1888년) 프랑스인 르메르 신부가 초가 사랑방에 초대 신부로 부임하면서 한국의 네 번째 천주교회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뭔가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성당뿐만 아니라 그걸 둘러싼 자연 경관 역시 드라마에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횡성 읍내의 3 · 1공원이었다. 가는 길에 읍하리 석불좌상과 3층석탑을 보았다. 읍하리 석불좌상은 원래 공근면 상동리에 석불좌상과 같이 있었으나 일제 시대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네모난 얼굴과 굵고 투박한 옷 주름, 머리가 크고 무릎 폭이 좁아 균형이 맞지 않는 신체비례 그리고 광배 및 사대좌의 특징은, 그것이 고려시대 전기에 지어진 것임을 알려준다는데, 재미있으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실제 고려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웃음도 났다. 석탑은 1층 몸돌 이하의 기단부는 땅 속에 묻었는지 알 수 없지만 1층 몸돌부터 3층 지붕돌까지는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상동리 3층석탑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한다.

점심 무렵에는 3 · 1공원으로 올라가 충혼탑을 보았다. 여기는 삼일절이나 현충일 행사를 하는 자주 하는 곳이라 이전에도 몇 번 와 본 적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횡성 지역은 일제 시대 때 강원도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하였으며, 그 뒤에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격렬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한 사실이 나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아울러 나도 횡성인의 한 사람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나 우리 고장에 큰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나도 선조들처럼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3 · 1공원의 정문을 내려가면 태풍루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조선 정조 22년(1798년)

정래승 현감이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흉년, 괴질, 재난과 악정 등의 민생고를 없애고 백성들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지은 것이란다. 아마도 그는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다.

이어서 우리는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를 보고 갔다. "충성과 용기로서 신조를 삼는 오렌지공의 억센 후예들 붉은 침략자와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768명의 … 여기에 비를 세우다."라고 새겨진 문구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남의 나라 전쟁에 와서 고귀한 희생을 한 그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 보았다.

그곳을 뒤로 하고 우리는 강림면의 태종대를 찾았다. 이곳은 태종 이방원이 옛날의 스승인 운곡을 찾았으나 운곡이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끝내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아마도 운곡은 피를 보면서 왕위에 오른 이방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답사지역은 청일면과 갑천면이었다. 먼저 간 곳은 덕고산 봉복사였다. 이 절은 신라 선덕여왕 16년 자장율사가 덕고산 신대리에 창건하여 삼불을 봉안하고 5층석탑을 조성하였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봉황의 배 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봉복사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맨 먼저 보았던 풍수원 성당에서의 느낌을 여기서도 받았다. 엄숙하면서도 아담하고 정겨움이 느껴지는 절의 건물이 아름다운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망향의 동산을 끝으로 우리는 하루동안의 내 고장 답사 여행을 마쳤다.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나는 횡성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 무척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하루 답사여행을 하면서 보니 나는 참 많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것으로 나는 내 고장 횡성에 대해 더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의 문화유적 답사여행은 나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었고, 내 고장을 위해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횡성군 문화유산 답사를 다녀와서

오 은 정/ 서원중학교 1학년

횡성 문화원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답사를 주선해 주셔서 우리 학교 학생 모두는 우리 고장의 곳곳의 유적을 답사할 수 있었다. 여러 곳을 다니고 보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있다면 태종대, 장송모 도자연구원, 읍하리 3층석탑과 석불좌상이다.

태종대는 강림면에 있는 것으로 안내해 주신 분의 설명이야기 중에서 자신이 임금님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강물에 투신자살한 노파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이 이야기로 그 옛날 백성들에게 임금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로 무형문화재 제6호이신 장송모 씨이다. 공근면에 도자연구원이 위치해 있었는데, 도자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초지식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전시실에서 많은 도자기를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색을 낼 수 있을까' 하고 여러 번 놀랐다. 도자기를 다 둘러보고 끝으로 한 번 더 도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자기를 보면서 미처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 게 되었다. 도자기에 그려진 바다에 있는 용과 구름에 있는 용으로 그 도자기가 만들어진 시대를 알 수 있고, 용의 생김새로 우리나라의 용과 중국용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셨다. 때문에 나는 친구들과 도자기 속의 용의 모습을 보고 시대를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장송모 도자연구원을 다녀옴으로써 나의 도자기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

세 번째로는 읍하리 3층 석탑과 석불좌상이다. 3층 석탑은 화강암으로 되어있는 고려시대의 것이다. 이것을 보고 고려시대의 석탑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석불좌상은 부드러운 느낌의 둥근 얼굴과 자연스러운 옷 주름이 생각난다. 그런데 나는 읍하리에는 여러 차례 방문하고 지나다니면서도 석탑과 석불좌상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유리 고장의 유적에 대해 무관심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아는 이번 유적답사를 계기로 하여 우리 고장인 횡성군에 많은 관심을 갖기로 했다.

나는 이번 문화유산답사로 보고 느낀 것이 많다. 몇 주전 사회숙제로 인해서 횡성군홈페이지에 갔었는데 글을 읽어보고 사진을 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안내해 주시는 분의 설명을 듣고,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아주 실감나는 답사였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답사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고장의 유적지와 관광지도 직접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도 하루 동안 우리를 위해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안내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

횡성 문화유적지를 보고

오 세 직/ 안흥중학교 2학년

2005년 5월 18일 소풍가는 날이다.

청일면에 있는 봉복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이다. 647년(신라 진덕여왕 1)에 자장이 창건하였다. 이 절에서 30m 떨어진 곳에 삼층석탑이 있는데, 본래 자장이 그곳에 절을 세우려고 했으나 밤마다 마귀들이 목재를 훔쳐가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절을 세웠다 한다. 또 석탑이 있는 곳이 본래의 절터였으나 669년(문무왕 9) 불이 나자 671년 원효가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도 한다. 원효가 처음에 석탑 근처에 절을 중창하려 하였으나 마귀들이 방해하여 절을 옮겼다고 전한다.

한때는 승려가 100명을 넘었으며 낙수대 · 천진암 · 반야암 · 해운암 등 산내 암자만도 9개나 되었다. 구한말에는 의병들이 머물면서 일본군과 싸우던 곳이기도 하다. 여러 번의 소실과 중건을 반복하다가 1950년 6 · 25전쟁 때 다시 불에 탄 것을 곧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

건물로는 인법당과 삼성각 · 국사당 · 요사채 등이 있고, 유물로는 자장이 세웠다고 하는 삼층석탑이 유명하다.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었다. 그밖에 절 입구에 7기의 부도가 놓여 있다.

갑천면에 위치한 횡성댐은 높이 48.5m, 길이 205m, 총저수량 8690만t, 유역면적 209㎢이다. 남한강의 제1지류인 섬강 중하류지역에서 해마다 물 부족현상과 홍수피해가 되풀이되자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건설된 중앙 차수벽형 석괴댐이다. 1993년 12월 착공하여 7년여의 공사 끝에 2000년 11월 준공되었다. 대부분의 댐이 표면취수방식인 데 비해 횡성댐은 국내 최초로 선택취수방식을 택해 댐 수질의 변
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댐과 수문 2문을 갖춘 여수로, 취수탑, 소수력발전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댐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을 하는 횡성댐발전소는 시설규모 1,000kW(500kW 2기)의 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연간 500~60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횡성댐이 완공되면서 농업용수와 주변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

었다. 원주시를 비롯한 댐 하류의 중소 도시에 연간 1억 1160만㎥의 용수를 공급하며, 900만㎥의 홍수조절 용량을 갖추고 있어 섬강 하류지역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피해가 크게 줄어들었다.

댐 위쪽 광장에는 주제관 · 영상관 · 체험관으로 이루어진 연건평 390평 규모의 물 홍보관이 있다. 댐 관련 자료와 댐 모형물을 전시해놓았으며 물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상영하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된다고 한다.

이번 소풍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횡성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이 주 형/ 안흥중학교 1학년

우리 학교 1학년과 2학년이 횡성의 여러 문화 유적지에 다녀왔다. 횡성군에 있는 모든 곳을 다 가보지 못했지만 나는 몇몇 횡성의 문화유적지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횡성의 문화유적지는 '봉복사'이다. 봉복사는 산에 있는데, 나는 봉복사를 올라가면서 무척 기대가 되었다. 거의 다 올라와 보니 봉복사는 주변을 꾸미기 위해 공사 중이었다. 우리는 봉복사 주변에 있는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면서 안내원과 선생님에게 봉복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말씀을 듣고 중학교 1, 2학년이 같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인삼밭에 들러 인삼밭에 있는 탑에 대해 안내원에게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 설명을 듣고 내려가 버스에 탔다.

그 다음 떠오르는 횡성의 문화유적지는 '망향의 동산'이다. 망향의 동산 앞에 강이 있는데 그 강 안에는 총 다섯 개의 마을이 잠겼다고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다. 그 다섯 개의 마을이 강에 잠기자 수필가 이승기 씨가 이 다섯 개의 마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글을 썼다. 그 글을 망향의 동산에 있는 탑에서 볼 수 있다. 강을 바라보며 고향을 잃은 사람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내가 나온 초등학교가 물에 잠기고 살던 집이 물에 잠겨, 커서 고향에 돌아와도 추억을 되살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면에서 망향의 동산을 만든 것은 수몰지역 주민을 위해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횡성의 문화 유적지는 횡성댐이다. 그 이유는 횡성댐에 있는 전시관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횡성댐에 있는 전시관에서 체험과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 우리나라의 물 부족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나는 우리나라가 약간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물 쓰듯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을 쓴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횡성댐에서 점심을 먹고 선생님과 ○×퀴즈를 하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냈다.

나는 봉복사, 망향의 동산, 횡성댐 외에 풍수원성당, 도자기 박물관 등을 다녀오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먼저 나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은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함부로 보지 않고 모든 일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중학생이 되겠다

횡성 향토문화재

서 인 애/ 우천중학교 3학년

오늘은 횡성군의 여러 향토문화 유적지를 다녀왔다.

내 고향! 횡성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실제 강원도에서 살게 된 것은 2년 정도라서 그런지 강원도나 내가 살고 있는 횡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게 될 횡성군내의 여러 면을 찾아가 보는 것이 나에게는 뜻 있게 다가왔다.

여태까지 다녀왔던 경주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의 유명한 유적지를 찾아가는 것과는 무언가가 달랐다. 경주와 같이 거창하게 유명하지는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되고, 횡성인이란 자부심이 생기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친숙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횡성문화원 사무국장님의 구수한 설명과 함께 한껏 기대를 안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강림면에 위치한 강림의병총이었다. 강림의병총은 험준한 산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숨진 분들의 시신을 모아 묻어놓은 곳이었다. 나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차가운 바람도 잠시 잊고 묵념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하였다.

그리고 나서 노고소를 지나 태종대를 찾았는데 지방문화재 자료 제16호이다. 스승을 찾으려다 결국 찾지 못한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비석과 비각을 세운 것이며, 주필대라 불려오다가 태종대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관광지로 경치가 좋고 물도 맑았다. 그리고 태종대를 몰랐던 친구들과 함께 오니까 더 좋았던 것 같다. 안흥면을 지나면서 먹은 찐빵은 우리 횡성의 인심처럼 따뜻했다.

버스는 다시 청일면으로 향하였다.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걷다보니 봉복사라는 절이 나왔다. 봉복사는 신라 때 지어진 횡성에서 가장 유서 깊은 사찰이고, 대체로 둥글둥글한 산에 쌓여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보고 어머니의 태반같이 생겼다고 하여 봉복사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절에서는 경을 외는 스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마당에는 목련꽃이 피어있었다. 절이 크진 않지만 다른 절 못지 않게 신성하고 아늑하였다. 그리고 절을 나와 인삼밭 가운데에 있는 신대리 3층 석탑을 보았다. 그 탑을 보면서 탑은 어디서 보나 멋있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갑천면으로 가서 구방리 망향의 동산과 중금리 3층 석탑을 보았다. 중금리 3층 석탑에는 8방신이라 하여 신성시 여기는 동물을 새겨 넣었는데, 여느 탑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느낌과 웅장한 느낌이 동시에 느껴져서 신기하였다. 그리고 탑 뒤에는 횡성댐의 물줄기가 보였는데 아주 멋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횡성댐 물이 있는 곳이 마을이었다는 사실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그 옆에 '화성의 옛터'라는 전시관에는 돌절구, 재봉틀, 돌칼, 식기, 베틀 등 그 마을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횡성댐의 물줄기가 산을 끼고 흐르는 것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물줄기를 보면서 어느 곳의 물줄기 못지 않게 멋있다고 느껴졌다.

다음으로는 공근면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상동리 석불좌상과 그 옆에 3층 석탑이 있었다. 이 석불좌상과 3층 석탑은 버려져있던 것을 다시 복원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탑도 여기저기 깨져있었고, 석불좌상의 여러 곳이 깨지고 파여 있었다.

이어서 장송모 도자연구원에 갔는데, 나는 이곳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들어설 때부터 굴이 솟은 바위가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도자기와 그것들을 빚어내신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6호 장송모 선생님이 계셨다. 장송모 선생님은 고려시대 이래 조선시대 후기까지 발달했던 강원도 도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예쁜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정말 사람의 손으로 빚었다 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쁜 도자기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서원편이었다. 그곳에는 풍수원 천주교회가 있었다. 초기의 풍수원 천주교회는 1801년 신유박해 때 40명의 교우들이 숨어서 지킨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 4번째 본당으로 설정된 성당이라고 한다. 바이블 파크를 준비할 만큼 예전에 사용했던 성경책과 십자가 등 옛날 물건들이 많았다. 전시된 모습이 아주 귀하게 여긴 물건인 것을 나타내듯이 낡기만 했지 찢어진 곳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몇 년 후 조성될 바이블 파크가 정말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횡성읍으로 향하였다. 횡성에 도착하자 읍하리 석불좌상과 3층 석탑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310년이나 된 보호수나무가 있었다. 그야말로 웅장했다. 또 3 · 1공원을 찾았는데, 3 · 1공원에는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와 '오우덴 중령 현충비', '3 · 1운동 기념비' 등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향교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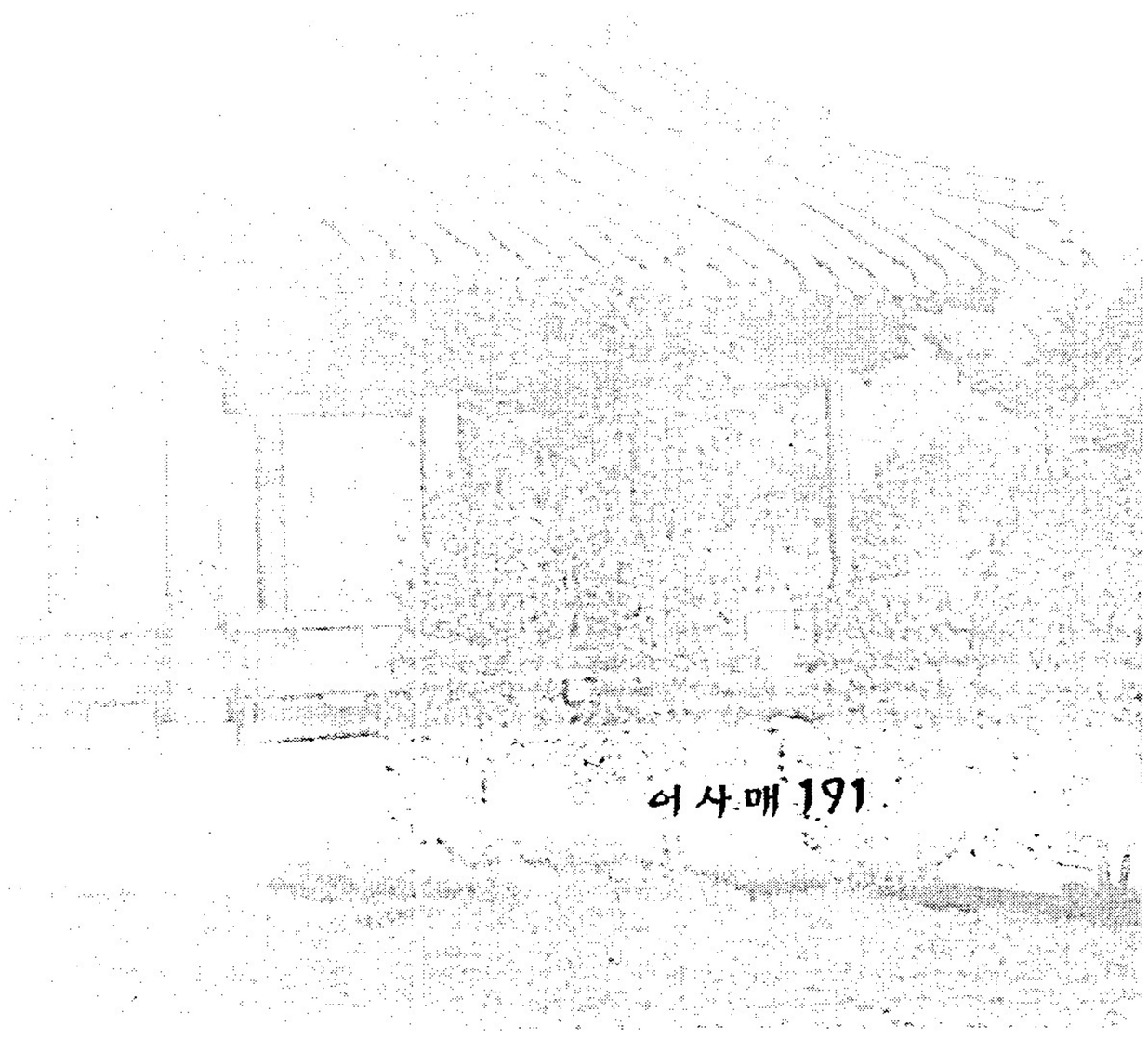
지금의 중 · 고등학교에 속하는 것이 향교인데, 제일 높으신 전교님께서 맞아주셨다. 전교님은 옛날과는 너무 달라진 현재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나는 전교님의 말

씀을 듣고 새롭고 편하게 변해 가는 문화도 좋지만 옛날을 돌이켜보고 한번 더 생각해 본 후 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오늘, 횡성군 전체를 모두 답사해 보진 못했지만 너무너무 좋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장송모 도자연구원'과 '횡성댐'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횡성에 대해 조금은 밝게 아는 느낌이 들었다. 아쉬움이 있다면 '한얼문화예술관'에 들러보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은 강릉에서 살았을 때 들어본 적이 있는 천문인 마을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었다. 그곳의 별빛은 아름답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팜플렛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음에는 꼭 천문인 마을에 가보고 싶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횡성문화원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가는 곳마다 좋은 설명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 하루동안 참 많은 유적지를 가보고 온 것이 마냥 기쁘기만 하다. 이제 어디 가서도 횡성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횡성 화이팅!!



횡성 향토문화재

김 광 섭/ 서원중학교 1학년

우리 학교는 횡성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횡성 문화 탐방을 갔었다. 우리는 맨 처음에 횡성 향교에 갔다. 향교란 지금의 중 · 고등학교 정도의 조선시대의 교육 기관중 하나이다. 횡성 향교에는 전교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의 교장 선생님이다. 전교는 전통 복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교육을 하셨다. 그리고 전교에게 우리는 인사를 하고 전통예절에 대한 책을 받고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간 곳은 세덕사라고 하는 곳인데, 세덕사에는 고려시대에 원수를 지내신 조영인, 조충, 조계순 등 세 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그리고 세덕사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는 토지 촬영장에 갔다. 드라마는 끝이 났지만 세트장은 그대로 있었다.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는 세트장이 작아 보였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 토지에서 광복이 되었던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어 있어서 광복 60 년 전의 모습은 살아있는 세트장이다.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는데, 식당 옆에는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가 있어서 밥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올라가서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를 보고 왔다. 그리고 또 버스에 타고 횡성댐으로 향했다. 저번에 횡성댐을 2번 왔었는데 횡성댐의 물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그리고 횡성댐 2층에서 물의 귀중함을 알려주게 하는 동영상을 보고 전망대에서 댐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별 천문대로 향했다.

버스가 우리별 천문대 근처 도로에서 버스가 서고 버스에 있는 짐과 우리들은 다 내리고 차가 오더니 우리들의 짐을 싣고 산 위쪽으로 가더니 차가 사라져서 엄청 멀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별 천문대까지 올라갔다. 우리별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리고 마을같이 생긴 곳이 나타나면서 우리별 천문대로 들어갔다. 문에서 환영을 하러 나온 것은 우리별 천문대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였다. 우리들은 우리별 천문대에 마당에 집합하고 방을 배정했다. 1학년 남자는 맨 끝에 있는 수성에서 묵었다. 자유시간 동안 형,

누나, 친구들이랑 물놀이를 했다. 물놀이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천문대 마당에서 친구랑 배드민턴을 쳤다. 그리고 별자리와 망원경에 대한 공부를 했다. 별자리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재미있었다. 별자리 공부를 하고 천문대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난 후 캠프 화이어 준비를 마치고 캠프파이어를 했다. 캠프파이어를 하는 도중에 퀴즈도 하고 장기 자랑도 했다. 야식으로 빵, 우유, 감자,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다 치우고 밤 12시가 지나서 취침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고 마지막으로 보는 블랙홀과 혜성에 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았다. 동영상을 보는 도중에서 블랙홀이 우리 지구를 노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다. 블랙홀이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인 태양보다 600 배 정도나 더 큰 행성이 폭발해서 엄청난 빛과 함께 슈퍼노바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블랙홀이 생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블랙홀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엄청 큰 행성이 흡수가 되어 몇 천년, 몇 억년 만에 흡수가 이루어진다. 블랙홀은 작은 점 같은 것인데 위력이 대단했다.

우리별 천문대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장승모 도자기연구원에 가서 도자기를 만들었다. 맨 처음에 만든 도자기는 이상하여서 다시 만들었다. 다시 만든 것은 그런 데로 잘 만들어서 도자기에 이름표를 붙이고 붓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제출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다. 만약 기회가 되면 다시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우리 서원중학교는 횡성군에서 벽지 학교인데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행운학교, 행운학생이 되게 해준 횡성 문화원에 고마웠다. 그리고 또 한번 횡성에 대한 문화체험을 더 많이 하고 싶다.

문화탐방

한 지 희/ 서원중학교 2학년

오늘은 시험이 끝나고 야영을 가는 날이다. 너무나도 좋았다. 우선 아침 일찍 버스를 탔는데 4월 달에 만났던 가이드 아저씨를 다시 만났다. 다시 보니 참 반가웠다. 아저씨는 우리가 갈 코스를 말해주셨는데 첫 코스는 바로 횡성향교였다. 버스를 타고 횡성향교에 도착하였다. 횡성향교는 지금의 중 · 고등학생의 교육기관이며, 조선시대 건국초기 태조 때 창건되었다고 한다. 향교에서 공자에 대해 배웠다. 공자께선 불우하게 자라셨다고 하였다. 3살 때 아버지를 보내고 13살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 공자께선 세상을 구하기 위해 공부를 하신 것은 15살(지학)이였다. 그리고 입학과 불혹의 과정도 거치셨고 50세에는 하느님의 명령 천명과 어떤 이야기(자신의 욕 등)를 하든지 다 소화가 되는 60(이순)이였다. 70세에는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여도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절교육도 배웠다.

바로 향교에 오면 문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신이 다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향교 수업은 조금 지루하고 졸렸다.

향교 수업이 끝나고 다시 두 번째 코스 세덕사에 11시 16분에 도착하였다. 조충 장군 및 그 집안 3대가 원수를 했다고 해서 삼원수라고 한다. 원수는 지금의 국무총리를 말한다.

이제 세 번째 코스인 토지 세트장으로 향했다. 토지는 보지 않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세트장을 본다니 너무나도 기뻤다. 11시 46분 경 토지 세트장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분수대였다. 세트장을 구경하고 거기서 마차를 탔는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간이 흐르니깐 조금 재미있었다. 그리고 소품을 보았는데 정말로 그게 실제 같았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았는데 정말 가벼웠다. 그렇게 가벼운 소품을 들고 힘든 표정을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역시 연기자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네도 뛰고 널뛰기도 하였다. 그네뛰기는 너무나도 무서웠다. 연기자들은 정말 높이 올라가는데 안 무서운 걸까? 아니면 무서운 것을 참고 하는 걸까? 우리는 민속체험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분수대로 왔다.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다. 처음에는 정림이와 나와 둘이서 하였는데 그 다음에 소연이가 와서 같이 하였다. 너무나도 즐거웠다. 하지만 진솔이가 하지 않아서 섭섭했다.

우리가 한창 열심히 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만 하라고 하셨다. 너무나도 아쉬웠고 또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하지 못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12시 55분 점심을 맛있게 먹었고, 그 뒤에 있는 네덜란드 참전기념비에 갔다. 거기는 786명이 돌아가시고, 정의의 십자군으로 육군은 1954년 10월 18일, 해군은 1955년 1월 24일 개선한 군대이다. 여러 유엔 국민들에 그 뜻을 전하고자 그들이 남긴 전력과 지휘관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한다.

2시 9분 정금향토민속관에 도착해서 횡성회다지를 듣고 보았는데 횡성회다지에서 탈을 쓴 사람은 나쁜 잡귀를 칼과 창으로 쫓아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횡성회다지 소리는 1984년 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데 너무나도 졸렸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았다.

3시 19분 횡성댐에 도착했다. 많이 와 본 곳이라 그다지 신기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물에 대한 영상을 보고 물의 소중함을 느꼈다. 이제부터라도 물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깐 여러 사람이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젠 마지막 코스인 우리별 천문대만이 남아있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향했다. 우리별 천문대는 참 산 속에 있었다. 도착해서 보았는데 그 숙소가 참 예쁘다. 하지만 숙소 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남자는 반끼리 하고 여자는 전교생이 해야 하는 걸까? 정말로 슬픈 현실이다. 거기서 별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지구가 현재 얼마나 위험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참 스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지구를 확대하였는데 참 신기하였다. 하지만 9시면 자야하는 나는 너무나도 졸리고 피곤했다. 천문대에서 밤에 희한한 곳에 들어가서 별자리를 보았는데 거기서 유성이 떨어지면 소원을 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바로 "놈놈놈"과 "돈돈돈"을 외치라는 것이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재미있었다. 특히 우리 반이 제일로 잘 한 것 같다. 그 다음날 영화를 보았는데 너무도 피곤한 나머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너무나도 소화하기 힘들었다.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장송모 도자기연구원에 갔다. 거기서 우리가 직접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괜찮다. 그런데 이정배는 너무나도 잘했다. 참 신기하다. 이번 문화탐방은 4월 달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 좋았다. 하지만 야영이라는 것에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뻤고 우리별 천문대에서 우리학교를 방문한다고 하였으니 그 때를 기다리겠다. 나에겐 너무나도 뜻 깊었다.

동그라미 회전목마

차 지 혜/ 둔내초등학교 6학년

몇 일 전이었습니다. 3월 달도 훨씬 지나고 벌써 경칩도 지났는데 갑자기 큰 폭설이 내려 나의 발을 동동 구르게 하던 날이었지요. 눈발과 함께 거센 바람이 불어서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던 날, 한차례 폭설이 지나간 후 꽁꽁 얼어버린 도로와 냇가. 우리 집 앞 냇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꽁꽁 언 냇가처럼 차갑고 썰렁한 나의 머릿속… 한동안 경직된 분위기가 흐르고… "아, 맞다!" 재미있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생각이란, 꽁꽁 언 냇가에서 신나게 팽이치기를 하는 것이었죠.

민속썰매도 타고 싶었지만 뭐 만들기가 워낙 어려워서 말이죠. "쿠다당탕 쿠당!" 서랍 속을 다 뒤지고 뒤졌더니 맨 구석퉁이에 처박혀 있는 팽이… 얼마나 서랍 속에만 오래 두었는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전 빨리 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팽이와 긴 끈막대를 준비하고 냇가에 후다닥 나갔죠. "후후후…" 사실 전 팽이치기 왕이랍니다. 비록 제가 여자아이이긴 하지만 민속놀이 하는데 뭐 성별 따지나요?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팽이치기할 때에는 일단 팽이를 손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바로 끈막대로 탁탁 때려야 합니다. 무작정 마음만 앞서서 타다닥 탁 때리면 팽이는 몇 번 돌다가 그대로 쓰러져 버리죠.

"팽그르르 팽그르" 잘만 돌아가는 팽이를 보고 있노라면 전 아주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저 팽이는 때릴수록 잘 돌아가는데 난 때리면 바로 쓰러지는 힘없는 사람이 아닐까?'

정말 팽이치기는 은근히 끌리는 놀이입니다. 오늘 좋은 교훈을 얻었군요. 아, 나도 이 팽이처럼 끈기 있는 팽이가 되고싶습니다. 때릴수록 잘 돌아가는 이 팽이 말입니다.

사 물 놀 이

유 새 봉/ 우천중학교 3학년

홀로 노래부르는 장구
쿵덕쿵덕
수천년을 거슬러 오는
장구의 힘있는 소리
하지만 한구석은
아주 외로운 소리
홀로 노래부르는 북
덩덩덩
수천년의 나이를 잊었는지
언제나 힘있는 소리
하지만 아주 외로운 소리
홀로 노래부르는 꽹과리
째재쟁
언제나 높은 소리로
기분좋게 부르는 노랫소리
하지만 아주 쓸쓸한 소리
홀로 노래부르는 징
지이이잉
수천년의 세월동안
듬직하게 노래부르는 징
하지만 아주 슬쓸한 소리
홀로 있으면 괴로운 악기들
하지만 넷이 모이면
힘이 넘치는 악기들

할아버지와 소

조 효 경/ 횡성초등학교 6학년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는 소를 여러 마리 키우신다. 그리고 외양간도 꽤 크다. 지난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소에게 먹이를 줬던 일이 생각이 났다. 처음에는 소 가까이 가는 것도 무서웠는데 고삐를 쥐고 풀을 뜯으러 들에 나가시는 할아버지를 따라나갔다. 엉뚱한 곳으로 가는 소를 나도 모르게 풀을 뜯어주었는데, 그 일은 의외로 재미있었다. 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이 소 언제 팔 거예요?"라고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소를 팔다니! 이 소는 내 자식인데 팔다니!" 하면서 언짢아 하셨다. 나는 속으로 "소가 무슨 사람인가?" 했지만 며칠 할아버지 댁에 있는 동안 그 소는 틀림없이 할아버지 아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음~메" 이렇게 소리만 내어도 할아버지는 먹이를 갖다준다, 물을 떠다준다 하면서 어렸을 적 나에게 해주시던 것과 똑같이 해주시는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소와 얘기해요?" "응, 할아버지는 소를 오래 키우셔서 울음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지." "할아버지는 소가 자식이래요."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뜻을 알았다. 작년에 나는 한우축제 때 소 캐릭터를 그려 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 정말 소는 사람과 비슷하고 친근감 있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소한테 말을 걸어 보았다. "밥 많이 먹었어?" "오늘 더웠지? 이제 푹 자!"

소는 눈만 끔벅거리다가 곧 음메~ 하고 소리낸다. 잘 알았다는 소리로 듣게 되었다. 동물하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얼마 후에 큰 소가 송아지를 낳는다고 한다. 전에도 새벽에 전화하셔서 송아지 낳았다는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좋아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반가운 말씀을 전해주시겠지? 그러면 정말 작고 귀여운 송아지를 보러 할아버지 댁에 또 올텐데…

지금 횡성은 한우축제가 한창이다. 우리의 어린이날 같은 축제일텐데… 우리 고장의 으뜸인 한우가 정말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같다.

자연풍물소리

김 하 늘/ 대동여자중학교 1학년

여름이면 빨라지는 개울물소리
너는 꽹과리의 빠름을 닮았느냐

느릿느릿 커가지만 한결같은 소나무야
너는 좌대고 소리를 받아 포근하냐

땅을 향해 내리꽂는 빗방울
너는 북소리를 담고 땅에 퍼지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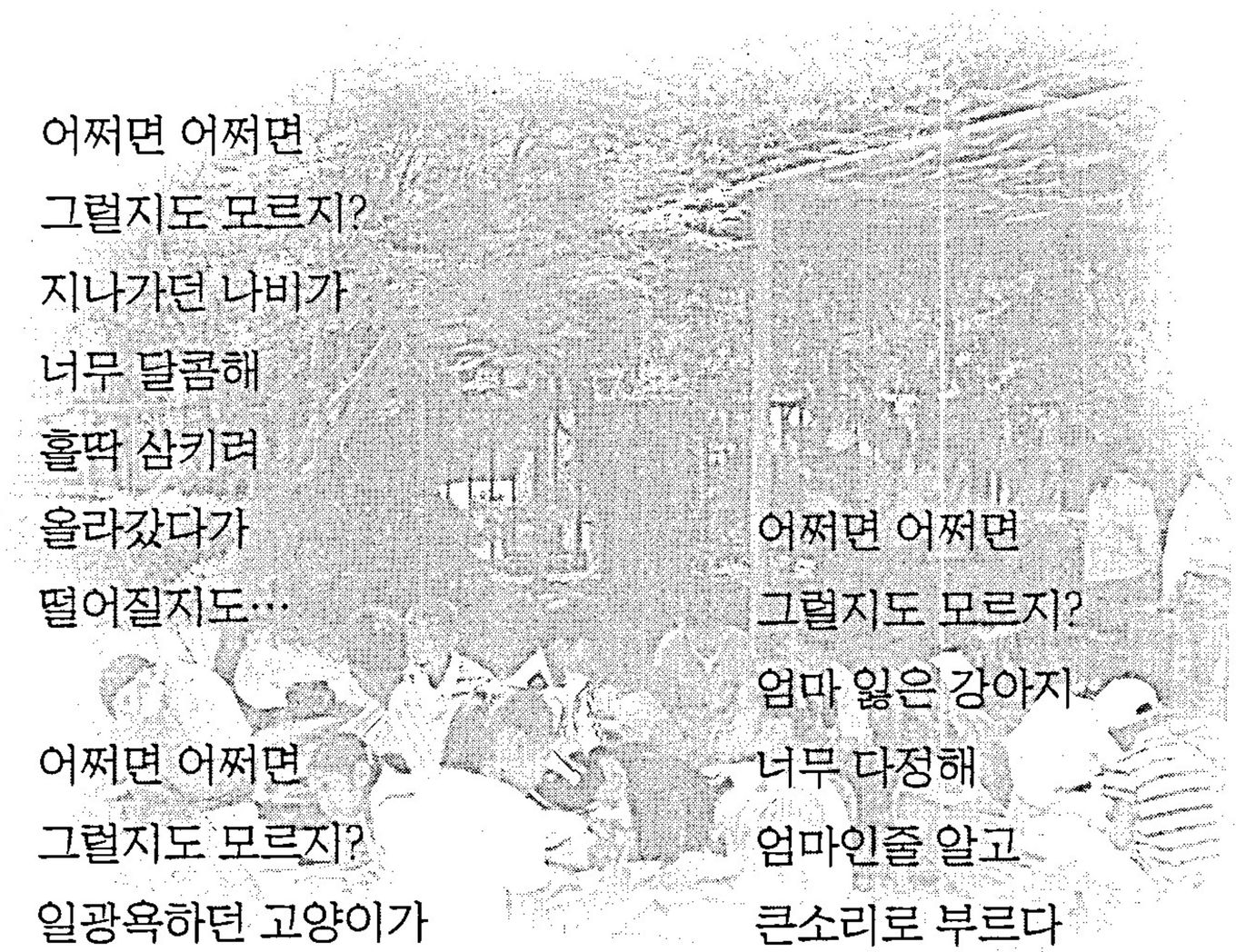
거센 폭풍우의 바람아
너는 상모지기의 흐름을 닮았느냐

아름다운 장미와 따끔한 가시야
너흰 장구의 북편과 채편의 조화를 받았느냐

우리와 가까운곳의 자연아
너는 풍물놀이 속에 사는구나

해

전 미 현/ 성남초등학교 6학년



어쩌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지나가던 나비가
너무 달콤해
홀딱 삼키려
올라갔다가
떨어질지도…

어쩌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일광욕하던 고양이가
너무 포근해
덮고 자려고
폴짝 뛰어오르다 넘어져
콩 엉덩방아 찧을지도…

어쩌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엄마 잃은 강아지
너무 다정해
엄마인줄 알고
큰소리로 부르다
주인 아저씨한테 혼날지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모를 걸?
너무 달콤해
너무 포근해
너무 다정해
모두가 가지려 하는
저 둥그런 해는 말이야…

산나물과 봄나물

조 혜 리/ 덕고초등학교 5학년

나는 봄이 좋다. 겨우내 앙상한 가시에 파릇파릇 움이 트고, 싱그러운 햇살, 경쾌한 소리를 내어 흐르는 시냇물이 나를 봄이 좋다고 말하게 하나보다. 엄마는 봄이면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산으로 간다. 산으로, 산으로. 우리 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사실 앞쪽은 길 하나 건너서 있는 산이긴 하지만… 엄마는 보통 오른쪽 산에 올라가신다. 그곳은 뒷산과 연결되니까 그러시는 것 같다.

봄에 학교를 다녀오면 엄마는 으레 취, 잔대, 고사리 같은 봄나물을 한아름 캐서 오신다. 그리고 그 날 저녁 향긋한 봄나물을 밥에 비벼먹으면…

엄마는 산에 다녀오시면 "오늘은 뱀 안 봐서 다행이야."라고 말하신다. 그러다 가끔 "오늘은 뱀 봤어." 하고 말하시면서 본 위치, 색깔, 모양 등을 말해주시고 책에서 찾아보신다. 책에 없으면 동네 어르신들께 여쭈어 본다. 동네 어르신들이 "응, 그건 물어도 괜찮아."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응, 그건 독사야, 독사." 그러시면 몸서리를 치신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는 "어휴, 그게 독사라지 뭐니? 징그러워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는 나보고 뱀 조심하라는 소리도 있다.

가끔은 나도 산에 간다. 산에서 고사리, 취, 잔대, 삽추 등을 뜯고 그 자리에서 흙을 털고 먹으면… 쌉사름 하고 향긋하다. 난 아는 것만 뜯는다. 내가 아는 거야 뭐 삽추, 잔대, 취, 기름나물, 둥굴레, 고사리 정도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깨끗이 씻고 저녁에 쌈 싸먹고, 비벼먹고 그냥 먹고 하면 겨울동안 잃었던 식욕이 왕성하게 살아난다. 고사리 같은 것은 잘 말렸다가 가을, 겨울에 먹는다.

새삼 나물 한 젓가락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조상님들도 그러셨겠지… 엄마와 내가 뜯은 향긋한 봄나물을 먹으며 또 내년을 기다린다.

Ⅷ. 문화원 소식 및 회원명부

- 문화원 소식
- 임원 및 회원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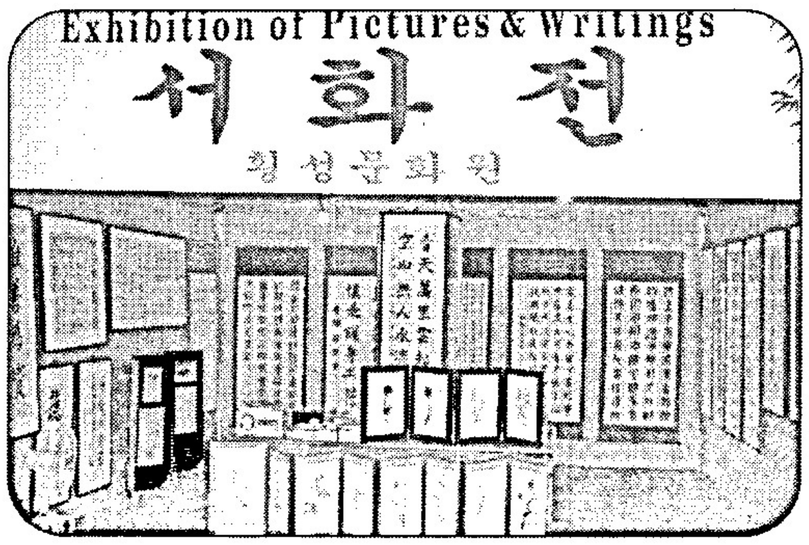


지역사회문화사업

전 시 회

각종 전시회의 지원과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소양과 창조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횡성문화원은 문화원의 시설 및 장소를 개방하여 열린 문화공간 확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5 횡성한우축제 기간 동안 전시된 문화학교 서예교실 수강생들이 전시한 서예작품 25점은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 2005 횡성한우축제 서예작품전시회 (9/29~10/3)



음 악 회

수준 높은 음악단체 및 개인연주가의 초청 공연을 통하여 횡성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찬사를 받았던 '모던팝스오케스트라'를 다시 초청하여 관객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 모던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신나는 음악여행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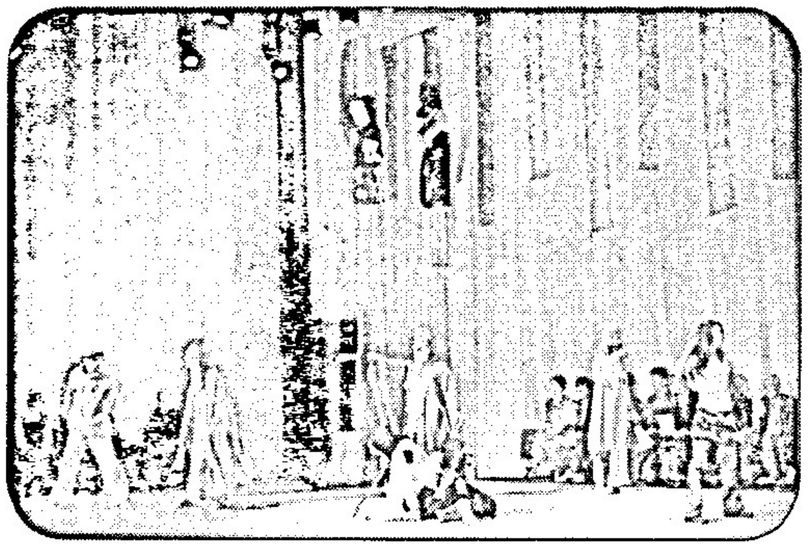


문화예술공연

횡성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환경문제 창작뮤지컬과 효를 통한 가족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가족 마당극을 공연하여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았다.

· 창작뮤지컬 「아기돼지 6남매」(4/13)

· 孝가족마당극 「쪽빛 황혼」(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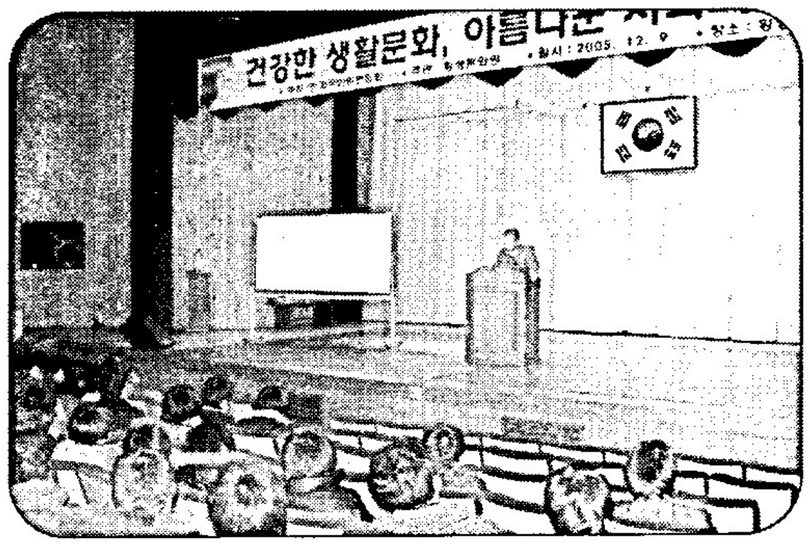


향토문화교육사업

‹문화교양 및 향토사강좌›

문화교양 및 향토사 강좌는 저명한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건전한 생활문화, 아름다운 사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YWCA 사회교육위원회 위원인 안경섭 박사를 초빙하여 12월 9일 관내 고등학교 수능수험생 35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양강좌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한 최승순 박사(전 강원대 교수)의 전통문화와 자녀교육이라는 주제의 선진시민문화 강연회에 문화원 임직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이 참가하여 경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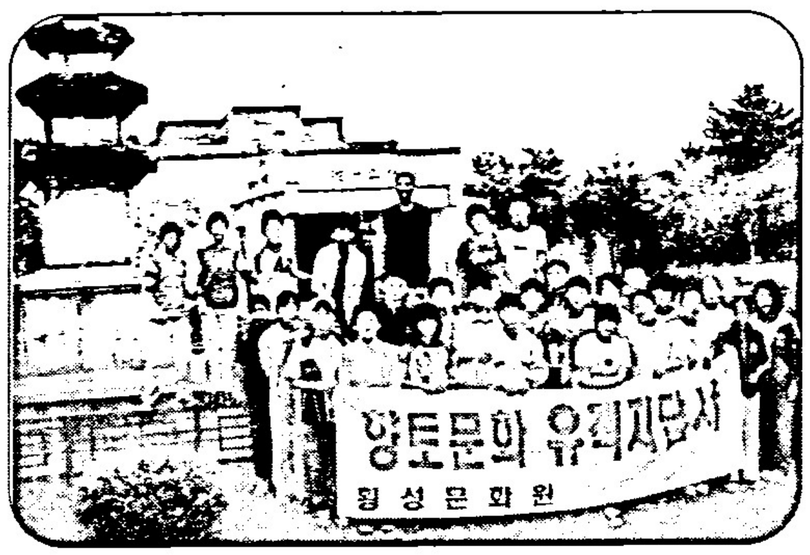
- 선진시민문화 강연회 참가(11/10)
- 생활문화 실천운동 교양강좌 개최(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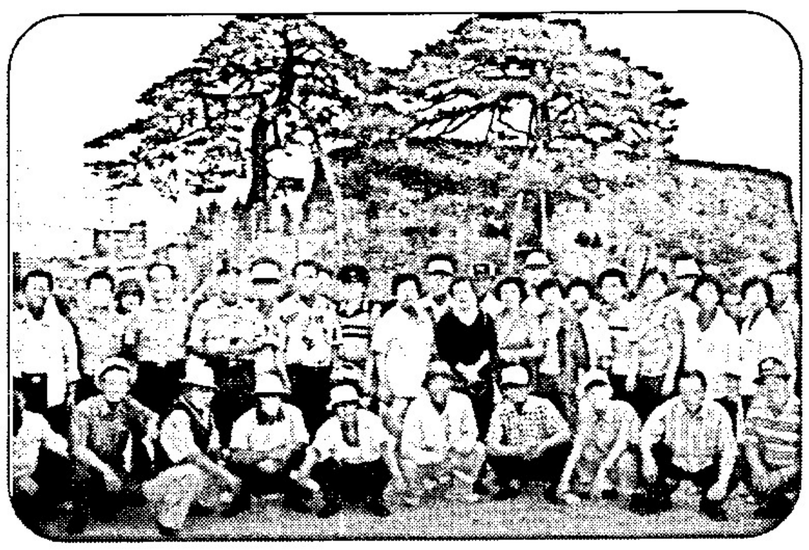


‹문화유적지 순례›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 외 문화유적지 답사를 실시하고 있는 문화원은 금년도 4차에 걸친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를 관내 4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는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강화도 역사관, 고려궁지, 광성보, 전등사, 초지진 등 강화도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관내문화유적지답사
  (1차 4/19, 2차 4/29, 3차 4/22, 4차 5/17)
- 관외문화유적지답사 (6/14)





횡성문화원 회원명부

2005년 12월 31일 현재

No.	성 명	주 소	직 업	자 택	직 장
59	양기호	공근면 학담리 205번지	농 업	762-8328	011-374-8328
60	양우환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707	횡성한의원	343-9526	343-7364
61	양중하	우천면 정금리 849-3	농 업	342-2602	
62	오세민	둔내면 둔방내리 108-9	상 업	011-361-2633	342-5888
63	우광수	강림면 강림리 강림중학교	교직원	011-9791-1446	342-7041
64	원종숙	횡성읍 남산리 50	농 업	343-0451	
65	원종춘	횡성읍 읍하1리 110 한림서당	한림서당		343-3162
66	원종택	횡성읍 읍하리 75-5 명문사	명문사		343-2653
67	원종훈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304	자영업	343-7920	
68	유관종	우천면 용둔리 93		342-2706	016-9337-2706
69	유병규	홍천군 남면 명동리		432-4252	
70	유인상	횡성읍 읍하1리 115-11 횡성치과	횡성치과		343-8890
71	유장곤	둔내면 현천1리 139	농 업	342-2130	019-9009-2131
72	유태선	우천면 두곡리 255-1			011-9901-9315
73	윤기화	횡성읍 입석리 18		343-3171	018-278-3171
74	윤만복	횡성읍 읍하3리 215-3	농 업	343-2575	011-377-2572
75	윤병철	횡성읍 읍하1리 90-6	농 업	343-2208	
76	윤춘식	횡성읍 읍상1리 333		343-3349	343-1286
77	이계범	우천면 정금리 256	농 업	342-2761	
78	이광수	횡성읍 북천리 태우아파트 3-801		342-6006	011-1788-6011
79	이근형	횡성읍 읍상3리 295	농 업	343-2748	016-352-4102
80	이돈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가-503	상 업	343-2755	
81	이방우	공근면 학담1리 209-8		342-3412	011-495-4127
82	이병설	횡성읍 개전리 241-1	표고재배업	018-374-3066	343-2982
83	이병오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1008		343-6789	011-305-6055
84	이석원	횡성읍 읍상1리 346 횡성새마을금고	횡성새마을금고	343-3526	343-3518
85	이송윤	횡성읍 정암1리 206		345-9905	011-286-9905
86	이승호	원주시 흥업면 흥업2리 748-2		766-2230	
87	이양형	우천면 용둔리 75-2 한얼문화예술관	한얼문화예술관	345-0151	011-255-7200

횡성문화원 회원명부

2005년 12월 31일 현재

No.	성 명	주 소	직 업	자 택	직 장
88	이영석	청일면 신대리 174	시누대펜션	343-5543	
89	이영식	횡성읍 북천리 중앙아파트 5-410		342-2094	016-774-2094
90	이우만	횡성읍 입석리 65-16		343-2690	010-9937-1259
91	이일영	횡성읍 읍하1리 69	크로커다일	343-0808	011-9919-2666
92	이장우	횡성읍 가담1리 90-1		343-2723	
93	이제구	횡성읍 읍하1리 305		343-2434	343-1202
94	이종근	횡성읍 마산리 13-2	농 업	343-2722	343-0207
95	이철우	우천면 정금리 507	농 업	342-2665	
96	임종훈	둔내면 자포2리 643	농 업	342-1555	
97	임종흥	횡성읍 읍하4리 6반 352	농 업	343-2056	
98	장경호	공근면 수백리 185	농 업	343-6239	
99	장석용	안흥면 지구1리	농 업	342-0103	011-362-0084
100	전덕현	청일면 유동리 908	축산업	342-5071	011-366-5071
101	전두표	횡성읍 읍하리 86-9	법무사	344-3888	011-373-3888
102	전상국	횡성읍 입석리 65	농 업	343-2466	018-504-2466
103	전상규	횡성읍 읍상4리 541-5	농 업	345-2356	011-374-2590
104	전원표	둔내면 둔방1리	농 업	342-2459	011-366-2459
105	전인환	횡성읍 조곡리 433	초암꿩농원	343-7700	017-375-2070
106	정건환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206		345-0056	010-3365-3901
107	정계철	원주시 개운동 444-15		761-1063	
108	정남진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206		345-0056	
109	정두영	횡성읍 읍하리 299-6	서원사인쇄소	343-0694	343-2404
110	정무홍	횡성읍 북천리 태우아파트 3-208		342-0594	018-258-0594
111	정병유	공근면 공근리 350		342-3217	
112	정병익	횡성읍 입석리 132		343-2390	
113	정삼영	횡성읍 읍하3리 214-6	상 업	343-3130	
114	정영식	횡성읍 읍하리 421	횡성더덕판매장	345-1111	011-9792-4351
115	정우철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3-306		343-2818	
116	정윤철	횡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A-203	자영업	343-8292	

횡성문화원 회원명부

2005년 12월 31일 현재

No.	성 명	주 소	직 업	자 택	직 장
117	정인영	횡성읍 읍하택지 550-3		344-1558	
118	정재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A-201	교 직 원	343-3326	011-9813-1558
119	조경택	횡성읍 읍상2리 274		343-2742	016-352-3326
120	조영현	횡성읍 읍상2리 278-10	상 업		
121	조원섭	횡성읍 입석리		343-2685	343-2306
122	조원용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1307	공 무 원	344-0939	016-9221-8545
123	조정섭	횡성읍 읍하4리 377-31	자 영 업	343-2828	340-2206
124	주창석	횡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나동 205호	자 영 업	343-5660	
125	지영수	원주시 우산동 233-4 88스포츠	88스포츠	762-7701	011-370-5445
126	진광두	횡성읍 개전리 96		343-7656	011-374-7701
127	진광수	횡성읍 입석리 162-1		342-7777	010-3191-9160
128	진기범	횡성읍 읍하1리 56-2	횡성군사회	343-2687	
129	채금순	둔내면 자포1리 455-2	복지협의회	342-1245	342-1104
130	최기섭	우천면 상하가리 170	가 사	342-6294	017-380-9983
131	최두현	강림면 월현2리 692-5	농 업	342-9004	342-8923
132	한상균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204		343-2144	016-265-5004
133	한상남	둔내면 자포곡리 동산아파트 A-203		342-4738	342-6072
134	한상동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808	농 업	343-4019	
135	한상래	횡성읍 입석리 162-8	농 업	343-2670	
136	한상숙	횡성읍 교항리 22-1 일산기계	횡성군노인회	343-5527	343-3553
137	한상운	원주시 우산동 120-40	일산기계	744-0527	343-5525
138	홍성익	우천면 정금2리		342-2671	
139	홍영표	횡성읍 읍하리 90	농 업	343-0423	
140	홍원식	우천면 우항리 773-8	상 업	343-2684	
141	홍종광	횡성읍읍하리금광포란재아파트105-305		343-0658	010-3150-2684
142	홍창기	횡성읍 가담1리 68-4	건 설 업	345-9301	011-361-5201
143	홍천유	강림면 월현2리 984-1	농 업	342-2007	011-240-2003
144					
145					

문화원 회원 입회안내

횡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 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20,000원)

안 내 : 횡성문화원 ☎343-2271

어 사 매 제20호

발 행 일 : 2005. 12. 31
발 행 처 : 횡 성 문 화 원
발 행 인 : 이 일 영
편 집 : 홍 성 진
기획/제작 : 서 원 사

(비매품)



횡성문화원

www.hs-culture.or.kr

TEL. (033)343-2271

FAX. (033)343-7652